



| 인제군민 생활문화기록 발간 사업 |

# 38선의 기억

이 학 주

## 38선의 기억



| 인제군민 생활문화기록발간사업 |

# 38선의 기억



## 목 차

발간사 “인제군의 근대원형 찾기”

서문 “절망을 딛고 일어난 삶”

1. 사랑하는 아내 생각에 눈물을 흘리다..... 11
2. 피난통에 아버지를 잃다 ..... 25
3. 형제를 잃은 슬픔 ..... 39
4. 그냥 뛰었다 ..... 49
5. 구만리의 악몽 ..... 83
6. 부평 모르박의 전쟁 이야기 ..... 131
7. 소양강의 핏물..... 153
8. 생생한 대동아전쟁과 6.25전쟁 이야기..... 171

## 인제군의 근대원형 찾기



인제문화원장 남 덕 우

인제군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항상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화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신을 아는 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사는 고장을 아는 것이지요. 자신을 잘 알 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지수는 나와 타인을 잘 알면 당연히 높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제에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인제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라는 것이지요. 인제가 고향인 사람은 어찌면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새겨야 합니다. 바로 이 속담 속에 인제의 정체성과 인제인의 삶의 원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누구나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바로 인제(麟蹄)라는 글 풀이가 이 속담에 담겼고, 인제의 역사가 이 속담 속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 속담은 인제에서 군인생활을 한 사람들이 지명에 빗대서 얘기한 것입니다. 물론 인제와 원통(元通)이라는 원 뜻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라는 지명의 원 뜻을 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인제라는 지명은 기린 린(麟)자에 발굽 제(蹄)자를 씁니다. 이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옛날 인제를 오족현(烏足縣)·저족현(猪足縣)·희제(豨蹄)·오사회(烏斯回)·인제현(麟蹄縣)이라 했듯이 모두 동물과 관련 됩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모두 신령스러운 것과 관련이 있지요. 그것도 역경을 이겨내고 하늘의 뜻을 받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기린은 신령스런 동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인식했고, 까마귀·멧돼지 등은 신의 매개자이면서 신을 강림시키는 제물입니다. 모두 신화에 나오는 동물입니다. 우리 고조선에서 삼족오(三足鳥)를 상징 동물로 삼았다는 것은 모두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바로 ‘하늘내린 고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하늘의 뜻을 받은 곳’ 정말 멋진 말입니다. 지명 뿐 아니라, 바로 인제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 줍니다. 인제의 역사는 한 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신라·고구려·백제의 중앙에 위치한 탓에 강원도가 그랬듯이 인제도 매일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었지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후삼국이 통일되고 고려가 건국을 하자, 신라의 마지막 태자 마의태자가 인제를 찾아 구국운동을 벌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무예지인 『조선무예도보통지』를 쓴 백동수가 기린에서 집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소치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면 6.25한국전쟁이 바로 인제군 남면 부평리에서 시작된 것을 안다면 말입니다.

인제군은 38선이 지났던 곳이며, 광복과 동시에 최초의 분단군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어찌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념과 체제는 같은 마을을 둘로 갈라놓았지요. 그야말로 비극이었습니다. 남면의 경우는 나이가 차도 군대집집도 안 되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행정공백구간이었습니다. 이를 다 설명하기에는 벽차지만 이 책을 읽다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제군은 요즘 ‘모험’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관광과 연계 시키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지역알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험의 전통은 이 글에서 보듯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바로 그곳에 인제의 원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제의 정체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제의 정체성이지요.

이번에 인제군에서 지원하여 “38선의 기억”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술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6.25의 소용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의 자원마저 떠나기 전에 좀 더 채록하여 원형의 자원을 남겨 두어야 겠지요.

이번에 “38선의 기억”을 낼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현장에서 채록하고 음원을 푼 이학주 박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런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은 인제군청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면담에 성실히 임해주신 구술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인제군에 계시는 6.25의 전사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준 것에 대해 인제군민과 함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절망을 딛고 일어난 삶

찬바람이 썰썰 들판을 활궤고 지나간다.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추운 겨울이다. 바람이 몹시 부는 탓에 풍(風)대리라 불리는 용대리에서 92세의 장곤옥 할아버지를 만났다.

모진 세월의 아픔을 모두 잊은 채, 편안한 웃음을 짓는 얼굴이 몹시 보기 좋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말이다. 그 모습으로만 보면 오랜 세월 아무 일도 없이 곱게 지낸 얼굴이다. 그러나 고요하고 편안한 그 모습에서 우리는 전쟁의 아픔을 읽어야 한다.

장곤옥 할아버지는 만나자 마자, 난 아무 것도 기억에 없다고 말씀 하셨다. “금방 잊어버려, 뭘 몰라.”, “배우지 못해서 글자도 몰라.” 그런데 참 흥미로웠다. 그렇게 6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시절만 뚝 떼어 기억을 생생히 하고 있는 것이다. 연신 구술 도중에 나는 다 잊어서 모른다고 하시면서도 그 시절만큼은 이상하게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셨다. 어린 시절 생사를 넘나들던 절박한 사연들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처럼 말이다. 어쩌면 그래서 이렇게 또 한 줄의 역사를 쓰는 것일 게다.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일찍 혼인을 했다는 그의 아내를 보호하고자 무던히도 애를 썼단다. 그의 아내는 남의 집 무남독녀로 태어나 과란 많은 시절을 만난 탓에 열여섯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온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대동아 전쟁에 일본으로 끌려가고, 광복이 되어 돌아오니 인민통치에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다. 또 6.25전쟁이 나자 등짐을 지고 군속으로 따라다니는 남편을 가까이 하기에는 정말 너무 먼 당신이였다. 매일 굶어야 했다. 남편을 믿을 수는 없는 탓이다. 그런데 군속으로 있는 남편도 매일 아내 걱정이였다. 매일 눈물로 고지에서 밤을 샜다. 찬바람이 웅웅 천막을 뚫고 지날 때마다 그 걱정은 더했다. 분명 집에는 쌀 한 톨 없는데, 무엇으로 끼니를 때울까? 추운 이 겨울 밤 방에 불은 땀을까? 군대에서 주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무던히도 울었다고 했다. 어린 딸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던 장인을 잇을 수 없었다고 했다. 어린 아내가 몹시도 고왔다고 했다.

그래도 장곤옥 할아버지와 그 아내는 오남매를 두었다. 참으로 끈질긴 삶이다. 바로 장곤옥 할아버지의 삶이 우리나라 근세의 삶이다. 정말 지옥에서 하늘까지란 말이 실감난다.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모두 그랬다.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

배고픔과 추위를 이겨내고 지금까지 온 것이다.

다시는 이런 힘든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것도 식민지, 이념, 전쟁, 통치 등처럼 모두 개인의 삶과는 무관한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빼앗겨서는 곤란하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짧게 92년 장근옥 할아버지의 삶을 펼쳐보았다. 아니 요약을 했다. 정말 얼마 있으면 이런 전쟁의 실화를 들을 수 있는 날도 없을 것이다. 또 언제 그런 전쟁이 있을 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한다. 평화와 자유, 그리고 민주라는 단어가 언제나 항상 했으면 한다.

이 책은 이런 바람으로 마련된 것이다. 처음 기획한 사람도, 사업비를 책정한 사람도, 논의를 한 사람도, 구술을 해 준 사람도, 녹취를 하고 푼 사람도,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사람도 모두 전쟁이 없는 평화와 자유와 민주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런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정말 고마움을 느낀다. 그 모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비용을 책정해 준 이순선 군수님과 이 책을 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남덕우 인제문화원장님과 백창현 국장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밤을 새워 가면서 녹취를 열심히 풀어 준 오염향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무엇보다 구술을 선뜻 해 준 모든 제보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은 구술을 열심히 해준 여러분의 것이다. 또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준 인제군민의 것이다.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바라면서 서문을 마친다.

2014년 선달

춘천 무편서실에서 문래산인(文來山人) 이학주 쓰다

## 1

## 사랑하는 아내 생각에 눈물을 흘리다



구술자	장곤옥
구술자 나이	92세(1922년)
면담 주제	6.25전후의 용대2리와 구술자의 삶
면담 일자	2014. 12. 14
면담 장소	용대2리 노인회관
면담자	이학주

제보자는 예전에 『인제사람들의 마을제사』를 내기 위해서 취재를 할 때 이미 용대리에서 만났던 적이 있다. 그 때문에 쉽게 면담을 할 수 있었다.

연세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6.25전쟁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좋았다. 구술을 하면서 본인도 신기해했다. 요즘의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그 당시의 일은 생생히 기억이 난다는 것이다.

장곤옥 제보자는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에 끌려가서 태평양전쟁을 치러야 했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와서는 인민통치를 받았고, 6.25전쟁 당시 는 국군의 전쟁 물품을 등짐으로 져 나르기도 하고, 첩보원 역할도 했다.

젊은 시절 오로지 살기 위해서 목숨을 연명했는데, 특히 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다. 아내는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장곤옥 제보자와 일찍 혼인을 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먹을 것이 없고, 어디 의지할 곳조차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전쟁 중에 국군의 등짐을 져 나르며 자신은 밥을 굶지 않았으나 집에서 밥을 굶고 있을 아내 생각에 언제나 맘을 조였다고 했다.

그렇게 전쟁을 무사히 넘기고, 부부는 아들딸 5남매를 낳아 키워 오늘에 이르렀다.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미 늙은 자신들보다도 어린 손자들 생각에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사랑하는 아내 생각에 눈물을 흘리다”

- \_오늘은 12월14일 이곳은 인제 용대2리입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곤옥.
- \_연세는요.  
92이래요.
- \_그럼 몇 년생 되세요?  
똥 몇 년생 그것도 증명을 봐야 알지.
- \_아하, 그래요.  
증명이게~ (신분증을 꺼내며) 정신이 없어, 아휴.
- \_아 22년 4월 10일생이네요. 그쵸. 그럼 여기 주소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2리 5반
- \_그럼 어르신은 여기서 나서 자라셨어요?  
나기는 저~ 홍천서 나가지고 강원도 출신이래요.
- \_예 홍천요. 그럼 여긴 언제 들어오셨어요?  
여기는 한 세 살 땡가, 두 살 땡가 왔대요. 그러니 잘 몰라요. 에이 어  
려서 어른들 따라 여기 왔다가 그런데 여기 와서 잔뼈도 다 꺾고, 늙  
었지요.
- \_그럼 해방도 여기서 맞았겠네요.  
해방은 일정 때 강제 군인 거... 거 징용 걸려 가지고 일본 가서 22살  
에 일본 강제군인 붙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해방돼서 나왔어요.

\_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군대 어떻게 끌려 가셨어요?

군대가 일본 북해도 가서 일본군대도 했지요. 그것도 뭐 지금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저거 공병대나 똑 같애. 가 일하고 땅굴 파고, 뭐 그런 일 했죠. 다리 놓고, 집 짓고 집도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고서는 낭굴 다 재목 말라가지고 그걸 뒀다가 마차 다 싣고 가서 세우고 그라고 꼭대기에다가 지붕을 해 잇고 떼를 떠다가 풀을 떠다가 덮었어. 그러니까 공중에서 비행기나 뭐 그냥 봐가지고는 버딩이나 산이지 뭐 보통이나 집 같지는 안거든. 그렇게 하구. 그 근데 그제 군대 막사에요. 그 안에서 인제 밤에 자고 그러니. 그런 걸 일 하는 걸 시키고 그러다 22살에 해방되고 집에 나왔지요.

\_ 그럼 몇 살에 끌려갔어요.

그제 19살 그맘때 끌려가서 일본 북해도 아오모리 고기에 가서 있다가 해방 돼 가지고 22살에 나왔어요.

\_ 나와서는 어디에 계셨어요?

나와서는 계속 집이 여기이니까 인제군이니까 있었지 뭐. 있었는데 그 우리 처가 집이가 저 충청도 분인데 그 처녀들 그때 일본놈들이 붙잡아갔어요 그 강제로.

\_ 그 위안부

응 위안부. 그래서 참 우리 장인님이 연일 정 씨인데 그 자식을 못 낳고 있다가 그 자식을 이렇게 늦게 딸 하나를 얻었는데. 그 키우는데 그 붙잡혀 갈까봐 쪼그만 걸 어린 걸 데리고 여와가지고서 살았어요. 살다가 가만 보니까 좀 크니까 또 끌려 갈까봐 나랑 나 거 일본 가기 전에 이렇게 서로 약혼식. 혼인을 안 하고.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알기를 그 여식아는 이미 약혼식을 했으니까 남에 집에 갔다. 처녀가 아니다. 이렇게 그니 우리 장인께서 그 딸 하나 뺏길까봐. 게서 가 있다가 일본가니까 집에 혼자 있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은 알지만 집에다 뒀다간 일본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그럴 거고. 붙잡아 가면 내 책임이 어떠냐하니깐 넌 우리사람이 아니고 너거 집 가서

라 그래구 우리 집에 갔다가 뒀더라구요. 그래 해방 돼가지고 집으로 오니깐 집에 와 있어요. 그래 그때 나와서 결혼했어요. 8.15해방 돼 가지고 나완. 그때 나온 게 집에 오니까 음력으로 9월말 그쯤 됐어요. 게서 와 가지고 한 10월 동짓달 음력으로 그맘때 결혼식을 해가지고 사는 게 여태 살아요.

\_ 몇 남매 뒀어요.

5남매요.

\_ 5남매요.

5남매 뒀는데 지금 우리 손자들이 많아요. 그것도 여자가 여식아 서 이에, 머스마 둘 그렇게 오남매를 뒀 지금 살고 있어요. 사는데 뭐 그동안에 고생이라는 건 참 말 할 수 없지요.

\_ 해방되고 나서 바로 결혼식 올리고 아이도 낳고 그랬어요.

그럼요. 지금 그뻘 나이가 여자랑 어려서 그런지. 해방 돼가지고 22 살에 그러니 나랑 6년차이래요. 여자가. 그때 첫 아 낳으면 참 오래 있다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애가 육십네이요.

\_ 아들이요

아이 여식아. 머슴아는 늦게 낳고 지금 춘천 가 살아요. 시집가서 춘 천 가 사는 게 거기 가서 아들 형제 딸 하나 낳는데 아들 두 손주다 아들 낳고 아들 둘씩 낳고, 딸도 또 아들 하나 낳고 그랬는데 손주가 머슴아 손주가 지금 다섯을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딸이.

\_ 좋네요. 그럼 어르신은 여기서 군대 끌러갔다 와가지고 일본에 끌러갔다 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결혼해서

여기 내가 증명이 있어요. 거기 갔다 온 근데 증명해 줄지 거기서 해 준건데. 내가 하두 고생을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어요.

\_ 회원증을 갖고 있구나. 이거는 대한민국 태평양전쟁 한국 유족회라고 그랬네요.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정신도 없고 죽을라 죽을라 그래. 공부도 못하고 그저 내 이름도 잘 쓰지도 못해요. 국문을 못 써서 기양 거 일본사

람한테 끌려가가지고 일만 죽도록 하다가 나와서 노상 이렇게 되니까 뭐, 공부라는 것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저 이런 산간 일귀서 밭빼기 좀 산에서 일귀가지고 감자 옥수수 심어서 먹고 이렇게 살다보니 학교라는 건 영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때는 또 돈이 좀 있어야 학교를 가지 지금 의무적으로 다 학교에 가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그때는 돈이 좀 있어야지 국민 초등학교도 가지, 못 갔거든요. 아주 무식해요.



\_ 그럼 그때 6.25때 결혼해서 여기 사셨잖아요. 그때 얘기 좀 해 주세요. 6.25때 어땠어요?

6.25때 형편없었지요 뭐. 이북아들 정치에 몇 해 안 돼도 고생 많았어요. 농사라고 지으면 이런 산골에 그 땐 뭐 논도 없고 밭농사만 지으면 밭농사도 감자 뭐 현재 고추 마늘 이런 거 심귀야 전부 와서 조사해가지고 제일 잘 된데 가서 파가지고 감자도 파가지고 한 필지에 얼마 나온다는 거 몇 대 나온다는 거. 그 다음 근수로 얼마 나온다는 거 해가지고 전체 밭을 세가지고 얼마라는 걸 따져가지고 그 나와요. 하나도 공출 대가라는 건 없고 기양기양 가져가지요. 그것만 가져가면 그래도 좀 나옴데 게 현물세라는 게 나오고 또 나오고 그 잘 안주면 반동이라고 안 되거든. 그러니 거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요. 그렇게 살다가 참 6.25나가지고 피란을 산에가하고 그래가 아군이 와서 들어와 이렇게 여태까지 살고.

\_ 그때 공출을 해가고 다른 게 또 뭐 있었어요. 그 당시.

공출 아니면 없고. 그러군 무슨 회라하고, 오라하면 가고 가면 그저 만날 무슨 노동이라도 해서 조금 돈이 생기잖아요. 그땐 이북에는 돈이 별로 아주 귀했거든. 그러면 거기서 또 그거 이북에 군수품을 하



는데 돈이 없으니까 몇 프로 예를 들어서 만원을 벌었다면 거기서 몇 프로 예라서 한 20%나 10% 내라는 거. 안 내면 반동이라고 해서 물어주고 사는 게 아주 형편이 없었죠. 뭐 사는 게.

\_ 물건 같은 거 공출을 가져가고 현물세 거둬가잖아요. 그럼 물건 사고파는 건 어떻게 했어요.

사고파는 건 별로 없고 이런 데는 돈이 있어도 식량 같은 것도 못 사 먹고. 왜냐하면 있는 사람도 현물세 바치고 남겨진 것 팔면 저가 먹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돈을 귀하게 써도 쓰면서도 그걸 못 팔았어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 아주 곤란하죠. 아주 없는 사람은 배급을 주는데 배급도 예를 들어서 열흘 치를 준다면 팔일 치를 먹으면 이틀 치는 없는 거야. 그러니 여자들은 만날 나물 채소 이런 거 뜯어다 섞어 먹고. 그래서 낭구 소낭구 껍데기 벗겨다 먹으면 또 소낭구 잡았다고 또 가서 며칠 씩 몇 달씩 구류살고. 이북정치 때는 가서 잘못해가지고 구류를 사는 걸 거기서 먹어주지를 앓고 집에서 갔다가 먹어야 돼요. 식량을 거기서 안 먹여줘요. 집에서 끓어도 가서 구류 살면서도 끓어 죽을까봐 가족이 집에서 끓으면서 감자 같은 거 보내줘 그걸 먹고. 너는 무슨 죄를 지어서 몇 달 몇 해 이렇게 하면 살고 나오지요.

\_ 구치소가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죠.

\_ 마을에 있는가 봐요.

마을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인제군 하면 군청에 하나있고. 면에 또 쪼금한 죄인은 면에서부터 있어요. 그리고 뭐 하찮은 쪼금한 죄는 나가서 어떻게 어떻게 될 하다가 잘못 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자아비판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걸 좀 감해주는데 솔직 참으면 감해 지지 않고 자꾸 죄가 커지지. 이북정치 그렇게 받다가 하도 곤란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6.25가 나니까 죽어도 이북에 들어가지 않고 아군한테 죽어도 여기서 살다 죽자고. 그래 가족을 데리고 그때 가족이 아직까진 애들이 없었어요. 애들이 없고. 저 산 밑에 가서 바

우 밑에 가서 피난을 하는데 아군들 카악 막 이래 땡기다가 아군들한테 들켜가지고. 뭐 산에가 있으니까 뭐 먹을 게 있어요. 그래도 불을 피우고 그러니까 뭘 그래도 뭐 끓여 먹어야 되니까 그 연기 나는 걸 아군들이 보고 와 가지고 데리고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그러니 조사 하니 뻔하지 뭐. 그러니까 그 뭐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쌀도 주고 먹을 걸 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는데 군인을 따라 다닐 수도 없고 가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군인들 가고 후퇴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넌 남한 군인들한테 뭘 잘해가지고 먹고 살았으니까 넌 뭐 죄 진다고 뭐라고 붙잡아가지고 저 아오지탄광 저 함경도 이런데다 보내. 그럼 오지도 못하게 탄광에 들어가면 못 와. 그렇게 탄광에서 일하다가 탄에 으깨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늙어 죽는 게 그래. 그렇게 사는데 그 다음 붙잡히지 않고 아군하고. 그 다음 수도사단이라고 여기다 호랑이 마크. 그리고 수도사단 아군들. 26연대 3대대 수색대 있다가 향로봉이라고 여기 있어요. 거기 가서 전투 하는데 짐을 지고 가자고 그래. 거가 짐 지고 가가지고 뭐 오래 돼요. 내려오다가 붙잡히면 폭탄 짐 짊어지고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것도 올라갈 땐 폭탄 무슨 저 먹을 거 이런 걸 지고 또 올라가고. 내려 올지겐 전사한 사람들, 뭐 환자들, 다친 사람들 미고 내려오는데. 그 다음엔 뭐 어떡할 수가 있어야지. 죽지 않고 명이 긴지 그 수도사단 26연대 3대대 수색대장이 날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이 아저씨는 집에 보내고 싶는데 군속도 아니고 인부도 아닌데 오래 있어서 안 되는데 집에 보내야지 집에 가족도 살고 그러는데. 내려가다가 붙잡히면 위험하다 이거야. 짐 지고 뭐 폭탄 짐 지고 다른 부대에 붙잡히면 더 고생하네. 그래 데리고 있어서 고생은 그렇게 안 되는데. 아주 집에 가족이 다 그냥 끓여 죽는 것 같고 뭐이 아무 것도 없거든. 그 참 내려와 그 다음엔 전투가 끝나고 인제 그 다른 부대하고 교대를 하는데. 그 부대가 저 양양으로 내려가더라구. 그래서 같이 내려와 가지구 집에 와서 보니까. 가족이 끓으미 먹으미 여기 있어요. 그 데리고 저 속 초 가서 한 2년 있었어요. 한 2년 동안 숯도 굵고 낭구 장사도 하고 그러구 있다가. 11사단 HID에서 살던 사람들 3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집에다 빨래도 걸고 이렇게 하면 인민군 패잔 된 거. 이런 것들이 가다가 저 민간이 있으니까 저 집에 밥이라도 얻어먹는다고 들어오면 이제 아군들이 붙잡을라고. 그러니까 첩자지. HID 고정 첩자지. 그 생활을 계속했어요.

\_그럼 다시 여기 와서요. 속초 갔다가 2년 있다가 여기 와서요.

속초 가서 피난을 하는데 군인이 11사단 HID 군인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군인이 여기 데려다 놓고. 그분들 하라는 대로 심부름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 뭐 노임 같은 거 이런 건 안 주고. 저 면에 가서 그때 여긴 수복 안 됐으니까. 저 양양 가서 천현면(?)에 가서 배급 잡곡 이런 거 타다가 직접 먹고 죽지 않을 만큼. 그땐 뭐 다 어려워. 군인도 풍족하지 못하고 배고파서 그랬는데. 뭐 민간이야 뭐 더 할 말 있나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애들도 크고 그 다음에...

\_그럼 양양서 첩자 노릇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_여기에서

여기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여태 그 다음에는 아주 안 나갔어요. 여 고향에 들어가면 산 지리도 알고 그러니까 그 패잔병 같은 것이 혹시 어디 있다가 들어오면 그래서.... 그래 여태 이렇게 사는 거야

\_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여기서 하고 나서 그 뭐냐 아군 첩자를 2년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엔 저거 정전 됐잖아요. 휴전 됐잖아요. 휴전. 그러니 아군은 부대로 다 가고 군인들. 그러니 우리끼리 여기서 팽이로 다다 기구가 없으니까 땅으로 그 전에 있던 거 파서 감자도 심고 뭐. 그래도 차차 차차 이렇게 피난 갔던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자꾸 들어와. 그렇게 사는 게 여태 여기서 살고 있지.

\_그럼 1.4후퇴 때도 안 갔다 왔어요.

응

\_ 1.4후퇴 때도 피난 안 갔다 왔어요. 피난 안 가고 여기서 생활한 거예요.

응 후퇴하고 그럴 때 이제 깊이 들어가고 그래야 하는데. 첫 번째 들어갔다가 정말 아주 못 살겠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뭐 그래 아군만 따라 다녔지 안 갔어요.

\_ 아 그럼 어디까지 잡혀 갔다 왔어요.

저 서화 저 이포리란데 가서.

\_ 아 서화 이포리 거기서 얼마 있었어요.

거기 뭐 한 20일 있다가 나왔어요. 그냥 산으로 해서 산을 아니까 여기 살아서.

\_ 아 그럼 같이 할머니랑 같이요.

야, 그래서 내가 어딜 가면. 여자는 불쌍한 거 같아. 장인영감이 돌아가셨지만 너무 귀하게 키우고 그러든 게. 이젠 내가 가면 이 여자는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여자는 살려야겠다는 걸 생각하고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참 그러구. 또 그 HID 거기 소속하고 있으니까 군인 가라는 말도 안하고 그냥 그제... 그때 우리 동갑이 군인 많이 갔어요. 그런데 HID 소속으로 있으니까 뭐 면에서나 군에서 군인가라는 말도 없고 그래서 이 나이 먹도록 그냥 가족을 데리고 살다가.

\_ 그럼 HID를 따라 다닌 게 몇 년 동안이었어요.

몇 년 동안 인지 잊어 버렸어요. 지금 HID 들어와서 들어오던 해... 낳은 아이가 지금 64이예요.

\_ 예

64가 됐어요. 처음에 들어와서 낳은 아이가.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니까 정전 되었어도 군인가라는 소리도 안하고.

\_ 인민 통치 때 무슨 세포위원 이런 것도 있었지요.

그런 거 있었지요.

\_ 그건 뭐예요.

세포위원은 당인데, 당 위원장 가는 사람을 세포위원장이라고 그러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리 이장은 그건 인민위원장이라 그러고. 그러구 노동하는 데는 증명위원장이고.

\_ 증명위원장

증명위원장이라고 그러면서 그 책임자.

\_ 그 사람들이 행세를 많이 했죠.

그럼요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죽고 사니까 꼼짝도 못 했죠.

\_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일도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산판을 가면 넌 오늘 낭구를 톱으로 베서 몇 살 해야 한다. 그걸 못하면 그 책임을 못하면 배급을 거기서 깎아 줘요. 그 잘난 걸 배급 조금 주는 걸 그러니 더 배고프잖아요. 괜히 그거라도 타 먹고 살라고 그저 애를 쓰고 하고

\_ 아 산판을 시켰어요.

산판에서 일도 많이 했어요. 그 산에서.

\_ 또 어떤 일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 산판 할 적에 산판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6.25 나니까 거둬 치우고 다 들어가고.

\_ 여기 있는 사람 데리고 가지는 않았어요.

거기 간 사람도 많지요. 데리고 간 사람. 거기 참 많이 저거 한 사람들 은 그 사람들 따라가고 강제로 데려간 사람도 있고.

\_ 그 지방 빨갱이들 많았죠.

지방 빨갱이라는 건 뭐 별로 여 쪼끔한 동네니까. 그러다가 지방 빨갱이라는 건 뭐. 그 사람들 편만 들고 그러던 사람들 벌써 다 알고 그러던데. 아군들 들어와서 다 치치하고 데리고 가는 거만 봤지 뭐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_ 지방 빨갱이 때문에 동네에 무슨 피해 같은 거 입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런 거는 뭐 별로 모르겠어요. 무식해서 우리 같으면 뭘 책임을 지키지 못하고. 뭐 국문이라도 좀 알아야 책임을 지키지. 아주 모르는 걸 그저 일만 죽도록 시키지. 뭐 다른 거는.

\_ 그때 뭐 해바라기도 그렇게 많이 심었다면서요. 학생들한테.

몰라 해바라기라는 건 몰라.

\_ 폭격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아이 그럼요. 비행기 폭격 하고.

\_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로 폭격 많이 했지요. 그래서 산에도 하고 들에도 하고.

\_ 지나가면서요.

그럼요. 여기 비행기 폭격해서 죽은 사람들 몇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다 100살 이상이 다 넘었어요.

\_ 아 살아계시면

\_ 어르신 6.25 같은 경우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아이 그럼요. 아이구 우리 같은 건 다 죽게 돼서 그렇지만. 6.25 같은 거 나 가지고 그 아주 애들 그 불쌍한 애들. 나도 증손주 기르고 많지만... 그래도 그때 그 고생한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요새 뭐라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

\_ 그때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 예요.

6.25때 그때 들어갔다 나갔다 전투하고 그럴 적에. 피난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

\_ 그때 전투했던 얘기 전투했던 상황 있잖아요.

전투한 거 그건 우리 군인도 아니고 하니까. 그 대대장이 아저씨 나가면 총에 맞아 죽으니까 꼭 부대 안에 있으라고 그러고 때가 되면 항구 가져가서 밥 퍼다가 대장 주고 그 다음에 아저씨 배부르도록 잡쉬요. 그래 그 집에 가족 생각이 나서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면. 아저

씨 집으로 보내야 하는데 집으로 보낼라니 가다 잡히면 아주 까딱하다 죽지 않으면 더 고생하니 그래서 못 보낸다고 그 대장이 그래요. 그 분 때문에 그 분은 처음에는 좀 알았는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름도 다 잊어 먹고. 그래서 HID 나 데리고 있던 분은 최항모 씨라고 그 양반만 이름을 잊어 먹지 않았지. 그 후로는 다 모르겠어요.

\_여기 마을에서는 전투가 없었어요.

이 마을에는 전투를 좀 했는데, 그 인민군이 많이 죽었지요. 저 안에서 저쪽 바안개라고

\_방개 아니오니쪽에, 아니오니쪽에요

바안개라고 요 저 안에서 전투했지

\_아 그럼 백담사 올라가는 입구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민군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만큼 전투하고 아군들은 저리로 넘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만 알지 뭐.

\_여기서는 후퇴하고 막 할 때 여기서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때는 전쟁을 해야 우리 같은 건 모르지요. 뭐.

\_아 아군 따라가 있어가지고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전투하는 거는 뭐. 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모르지 뭐.

\_니중에 군인들 따라다니고 그런 거 국가에서 무슨 보장 같은 거 해 줬어요.

군인들 HID 군인들.

\_아니요. 어르신요.

여때 없어 그래서 육군 본부에 내 명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한 달 전에 젊은이가 와서 뭐 명단이 있다고 그러면서. 거 왜 그래요. 그러니깐. 아 HID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보상이 없어서 그 보상문제 때문에 와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모르지 뭐. 그냥 그것만 알지 내가 뭐 들여다봐야 모르고.

\_ 그럼 HID 왔을 때는 그 일만 계속 하셨어요. HID 따라 다닐 때.

그~ 그 사람들 군인들이 같이 부대에 있으니까. 우리 독단적으로 살지 않고. 군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가족과 군인들 파견 나와 가지고 와 있는데. 그때 나랑 같이 있던 직속 대장은 최항모 씨라고 아까 얘기한 그분하고 그 다음에 홍창식이라고 잘 모르겠는데 특무상사인 가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시키고.

\_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요. 어디 같이 가고. 우리끼리는 가질 못 하게 해요. 데리고 다니면서 골짜기 이름도 다 알고 그러다. 놀러 여기서 사는 게 HID하며 놀러 휴전 돼 가지고. 군인들은 부대 다 들어가고. 그 다음 나 우리 그 사람들이랑 떨어져 가지고 저 집에 와서 이렇게 사는 게. 그 집들은 나이가 많아 다 돌아가고. 나 혼자 여태 살아서. 가족이 없었는데 그때서부터 가족이 생겼는데 그 가족이 여태 살고 있지요.

\_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말씀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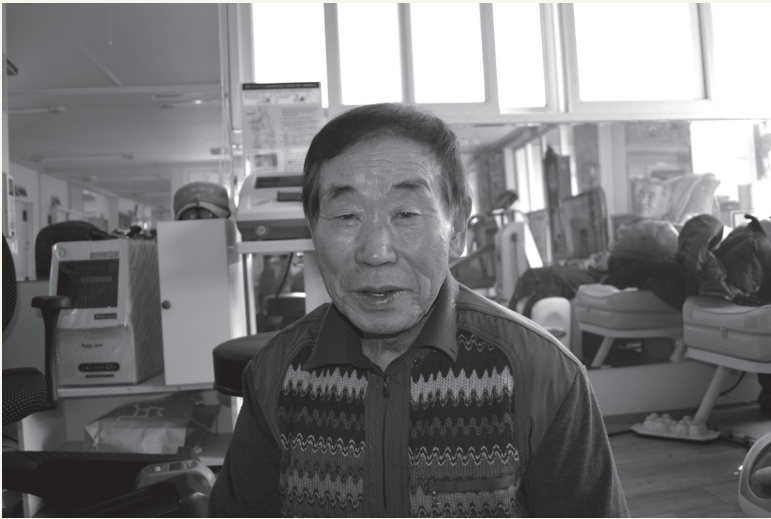
뭘 몰라서 정신이 없어서 몰라서.

\_ 감사합니다.



# 2

## 피난통에 아버지를 잃다



구술자	김경배
구술자 나이	77세(1938년)
면담 주제	6.25전후의 용대3리와 구술자의 삶
면담 일자	2014. 12. 14
면담 장소	용대3리 노인회관
면담자	이학주

김경배 제보자는 두 번에 걸쳐서 만났다. 처음은 용대리 황태식당에서 만났는데, 일을 하는 중이라서 다음 날을 약속했다. 약속한 날에 노인회관에서 만나서 전국노래자랑을 함께 감상하였다. 노래자랑이 끝난 후 면담을 했는데,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자꾸 개입을 해서 면담이 수월치는 않았다.

김경배 제보자는 용대리3리의 토박이다. 현재 노인회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아직도 생업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겨울이면 용대리는 황태덕장을 많이 하는데, 이곳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

6.25전쟁이 났을 때 김경배 씨는 13살이었다. 당시 용대리는 인민통치를 받고 있었다. 그 때문에 학교에 다니면서 어린 시절 전쟁을 몸으로 겪어야 했다. 나이 어린 탓에 전쟁의 전반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자신이 겪었던 일은 모두 기억할 수 있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또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라 당시를 회상하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덤덤했다. 서화면으로 피난을 갔다가 아버지가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동생과 생이별을 해야 했다. 전쟁이 끝나고 한참 후 동생은 양양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아 데리고 왔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정말 어려웠다고 말을 이었다. 마을은 폭격으로 인해서 집이 모두 불타고, 폭격을 피해서 마을에 있는 굴속에 들어가기도 했다.

## “피난통에 아버지를 잃다”

- \_ 오늘은 2014년 12월 14일입니다.  
6.25를 제가 겪었는데 별 큰 일은 없고. 전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
- \_ 그냥 겪은 일만 얘기 해 주시면 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경배.
- \_ 지금 연세는  
시방 77입니다.
- \_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인제군 북면 용대 3리.
- \_ 6.25 당시에 어디 계셨어요.  
여기 살았죠. 바로 요 근래.
- \_ 요 옥수골  
아니 요 다리 건너.
- \_ 다리 건너 거기 지명이 어떻게  
다리 건너 용대 3리 3반. 지금 시방은 길이 다 나고 그래서 절로 건너  
갔거든.
- \_ 그때 6.25 났을 때가 몇 살이에요.  
그때 17살
- \_ 그럼 잘 아시겠네요.  
17 가만 있어봐 17이 아니지 11살인가 12살 13살 13살이 되나.

\_ 6.25 나기 전에 상황은 어땠어요.

전에 상황은 이북이 정치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농사지어가지고 먹고 살았으니까 계속. 그 당시에는 현물세라고 해서 나오는 대로 받쳐야 되니까.

\_ 현물세는 어떻게 했어요.

현물세는 나락을 나와서 자기네들이 세요. 포기수를 세가지고 얼마 나온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결정을 해서 내 보내거든. 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나오는 대로 해서 보내야 돼 공출을 해야 돼. 그 당시 현물세라고 해 가지고 이북 정치 때는.

\_ 그럼 세금을 어느 정도 물었어요.

그러니까 논 붙이는 데 대해서 몇 가마. 이렇게 하게 되면 그대로 물어야지 뭐

\_ 퍼센트는

퍼센트를 모르지요 뭐. 몇 가마 이렇게 해서 몇 가마하면 몇 가마 보내고.

\_ 현물세 말고 조직 같은 건 뭐 어떤 게 있었어요.

조직 같은 건 그 당시에 내가 어렸으니까 그런데 가담을 할 수가 없지 뭐.

\_ 학교 다니셨어요.

그럼 그때 용대 여기 2리에 인민학교라고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왜 정 말년에 끝나고 해방되고선 놀러 1학년 들어갔지. 왜정 땐 학교 안 다니고.

\_ 학교 못 다니고 인민독재 되면서

그러니까 1학년에 들어가 가지고선 4학년까지 배우다가 4학년 돼서 6.25가 났어요.

\_ 학교 다닐 때는 인민통치 받을 때 무슨 뭐 다른 거 안 하셨어요.

다른 거 안 했지요. 뭐

\_ 뭐 소년단 같은 거 있었잖아요.

소년단 같은 거는 학교 다닐 때 소년단이라고 학교서 소집 돼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겪었지.

\_ 소년단은 어떤 거예요.

학생들이 단체적으로 뭐 그 당시는. 우리도 학교 다닐 적에 한 사람이 잘못 하면 거기 나가 비판하는 거예요. 어찌 됐던 잘 하라는 거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 못 했다고.

\_ 소년단은 단장이 따로 있었어요.

아이 그건 몰라요. 단장이 있는지 없는지 소년단이라 해서 같이 휩쓸러 다니고 그랬지 뭐. 몰라 난 단장은 단장이 있겠지 뭐 급장이라고 했지 급장.

\_ 급장이라고 그랬어요.

급장이라고 했지 그때는 다 학생들이라.

\_ 그다음에 다른 조직 같은 경우는 무슨 세포 조직 이런 거.

세포조직은 어른들이니까. 그런 건 모르지 뭐. 그 당시는 인민위원장이 있고, 세포위원장 있고, 부가조직이 있지 동네에 그런 건 내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확실히 몰라요. 모르고. 동네에서 즉 말하자면 인민위원장이라는 건 이장하고 똑 같지. 세포위원장이라는 건 빨갱이. 빨갱이 조직에서 하는 세포위원장이라고 하고. 그 두 조직 밖에 없어요.

\_ 그때 집안에서 피해 보시고 그런 거 있어요.

피해본 건 없지요. 뭐 피해 본건 피난 가다가 아버지 총살당하고.

\_ 피난은 어디 가셨어요.

이북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들어가다가 아군을 만나가지고 아버지랑 돌아가시고.

\_ 어디서 그러 셴어요.

저 저쪽 서화.

\_서화까지.

예 서화까지 들어가다가 아군이 딱 막아가지고 총질들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산비탈로 내려 뛰면서 비켜 가겠다고 뛰는데 거기 가니까 딱 막혀가지고. 총을 쏘니까 그때 돌아가시고. 그때 거기가 붙잡혀가지고 모여 있다가 도로 넘어온 거지.

\_그러면 민간인인데도 총을 쏘요.

민간인이고 뭐고 막 내려 뛰니까.

\_아 모르고 그냥.

모두 뛰니까 아군들이 그때 아군들이 쏜 거야. 아군들이 포위를 해서 길을 딱 막았는데. 보니까 산비탈로 내리 뛰니까 총질을 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붙잡아 다 싹 포위를 해가지고 막아서는데 붙잡힐 수밖에. 여 와서 붙잡혀 가지고 거 와서 한 이틀 밤 자고선 도로 동네로 온 거야.

\_도로 놔줬어요. 그때.

그럼 그때 아군이 점령을 했을 떄데 아군이. 여기 오니까 동네에도 딱 찾지 뭐. 아군들이 다 점령을 했어.

\_아 그럼 벌써 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럼 밀고 올라와가지고 우리는 넘어가다 거가서 붙잡혀 가지고 도로 넘어 온거지. 뭐.

\_그때 아버지하고 누가 다치셨어요.

아버지만 거기서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내 동생은 거기서 잊어 버렸어. 내 뒤에다 잊어버렸는데. 아군들이 데리고 제대하는 사람이 데리고 제대를 했어. 저기 저 양양 가서 찾았어.

\_동생을 요 그때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려 가지고 잊어버린 게 제대하는 사람이 야를 데리고 아들이

없다고 애를 데리고 간 거야. 거기 가서 학교 다니는 걸 데리고 왔어요.

\_ 데리고 간지 어떻게 아셨어요.

거기서 넘어왔지. 넘어오고 나서. 야는 붙잡혀 가지고 아군이 제대를 하면서 데려 간 거지. 나중에 알았지. 저 나중에 상봉댄가 하조댄가 어머니가 거기서 찾는 바람에 데리고 간 줄 알았지.

\_ 그럼 거기 가서 학교 다니고 생활한 거예요.

거기 가서 아들이 없으니까. 애를 데려다가 아들 삼아 학교 다니고. 그런 걸 데려 왔어. 어머니가 찾아서 그냥 놔뒀으면 머리도 쓰지 더 잘 댔겠지.

\_ 그건 나중에 일이잖아요. 다시 여기 왔을 때는 상황이 어땠어요.

여 왔을 적에는 아군이 들어와서 아군의 정치를 받아야 하니까. 그때 부터는 순탄 했지요. 뭐 학교도 계속 다니고.

\_ 학교도 계속 다니시고.

응.

\_ 그 당시 인민 통치를 받다가 아군이 왔으니까.

치안조직이라고 해서 치안대 조직 밖에 없었어요. 아군이 들어와 가지고는 젊은 청년들 치안 조직을 해가지고 빨갱이들 잡고 그랬잖아.

\_ 그대 동네 상황은 어땠어요.

동네 상황은 뭐 집들이 작는데 뭐 아군 들어 와 가지고 정치 받으니까 뭐 그걸로 계속 유지한 거지.

\_ 여기는 뭐 전쟁 같은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쟁은.

\_ 용대 2리에는 전쟁이 많았다고 하던데

용대 2리는 그 당시 백골부대라고 아군이 그 당시에는 이북 정치 때 야 이북 정치. 저 여 설악산으로 해서 백골부대라고 들어와 가지고

거서 교전이 돼 가지고 백담사에서 입구 암자골이라고 하는데서 교전을 해 가지고 다 죽었을 거야. 아마 백골부대 들어 왔을 적에 암자골이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이니까 저쪽 인민군들 패들이 많지 뭐. 그러니까 배기나 그냥 몰살 했어.

\_ 그럼 여기 비석이 선 게 그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미시령가서 전투해 가지고 그것도 있구.

\_ 미시령에서는 어떤 전투예요.

미시령 줄기에서 전에도 그 사람들일 거야 백골부대. 그 사람들이 줄기를 타고 들어오면서 전투가 됐을 거야.

\_ 아 직접 보지는 못하셨어요.

못 했지. 몰랐지 뭐. 여금에 비석에 거 새겨져 있으니까 알지 뭐.

\_ 직접 보지는 못하시고.

그때는 백골부대라고 했어 백골부대 그 사람들이 미시령 줄기로 다 왔잖아.

\_ 그 당시 전쟁하는 거 본 거 없었어요.

전쟁하는 거 못 봤지 뭐.

\_ 못 봤어요. 직접 눈으로 보신 건 없구요. 그럼 피난 다니시고.

피난 갔다가 그때 들어 와 가지고 남한 정치가 들어오니까 그때는 그냥 아주 여기 살았는 거지.

\_ 1.4후퇴 때는 어땠어요.

1.4후퇴 때는 이북으로 가다가 붙잡혔다니까.

\_ 아 그럼 아까 붙잡힌 게 1.4후퇴 때 예요.

그럼 6.25나고.

\_ 그전에는 여기 인민군들이 있었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지. 뭐 그전에는 공산주의니까 평범하게 농사짓고 그렇게 살았



다가 6.25나면서 서화로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글로.

\_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갔죠. 붙잡혀서 인민군들이 주로 후퇴할 때.

후퇴할 적에 뭐 그때는 밤 낮 없이 이 길로 올라갔으니까 뭐 모르지요.  
우리들은, 들어갈 적에 막 들어 간 거지 뭐. 나올 때도 막 나오고.

\_ 여기 마을 피해는 없고요.

예 마을에 전투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_ 없었어요. 그럼 상당히 조용하게 지나갔네요. 이 마을에서는.

그럼. 공산주의 때 그때는 폭격이 심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  
가지고 그래. 폭격 때문에 비행기로 와 가지고 그냥 공습하고 집에  
다 그냥 불 지르고.

\_ 미군이 폭격을 한 거 아니에요.

미군이겠지 그때야 없을 때이고 호주기 그게 넘어와 가지고.

\_ 호주기?

그게 뱅뱅 돌면서 포탄을 내리 떨어뜨리고 그래서 집이 다 터지고. 이 동  
네가 한 열 집이 있었는데 열 집이 그 바람에 다 타버렸어.

\_ 그때 태울 때 잘 타게 하는 검은 걸 막 떨어뜨렸다고 해서요.

그런 건 몰라요 그냥 기관총으로 냅다 쏘면 조명탄에서 불이 나거든.  
그게 왜냐하면 초가집이거든 그때. 그걸 조명탄을 쏘면 거기서 연기  
가 부을 불 나다가 옆으로 나는 걸.

\_ 조명탄 때문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초가집이니까.

\_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집이 없어서.

제 그저 새로 길 넘어 갔다 와 가지고 여기 살다 또 아군들이 들어온  
다음에 속초로 피난가라고 해서 글로 넘어가 가지고 살다가 수복 돼  
가지고 도로 들어 온 거지.

\_ 속초는 언제 가셨어요.

속초는 6.25가 나고 서화로 넘어가다 붙잡혀 가지고 와서 아군들한테 같이 있다가 아군들이 가라고 속초로 넘어가라고 해서 갔지.

\_ 그 당시에 미시령으로 넘어 간거예요.

그럼 미시령으로.

\_ 속초 가서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그땐 내가 어렸고 어머니가 보따리장사 해가지고 땡기면서 먹고 살고.

\_ 속초 가서는 어디 계셨는데요.

물치도 있었고, 저기 저 낙산사도 있었고.

\_ 아 양양이요.

그 다음에 오남리 라는데 고성군 바로 요 녀에 오남리 라는데 가서 계속 거 가서 살았어.

\_ 오남리요

예 오남리. 도문은 뭐 도문도가 있었고.

\_ 도문동에 그 설악산 밑에요.

설악산 밑에.

\_ 예 왜 거기서 자꾸 옮겨 다니셨어요.

그니까 그때는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거지.

\_ 언제 이쪽으로 다시 또 오셨어요.

수복되고 내가 군인 나가서 제대 하니 와 있더구만. 내 동생하고 어머니 하고 와서. 군인 갈 적에는 보자 여기 와서 농사를 넘어와서 농사를 짓고.

\_ 그럼 속초 가서 상당히 오래 있다가 오셨네요.

와서 10년은 넘게 살았는지.

\_ 아 10년 넘게.

오남서도 뭐 10년도 넘게 살았는데 수복되고 넘어 와서 1년 농사를 짓다가 내가 군댈 갔구나. 그래 가지구 군인에 갔다 와 가지고 바로 이 집에서 계속 살았거든. 바로 요게 넘어서 살다가. 길 나는 바람에 보상을 받아 가지구 저 옥수골에다 시방 집을 짓고 살지.

\_그당시 그 인민 통치되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마을 간에 갈등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이 정치 들어오면 이 정치에 그대로 받고 살았으니까 이 정치가 바로 들어오면서도 아군 정치가 되면서 무고한 사람들도 밤으로 와서 사람들이 붙잡아가다 죽이고 그랬었어요.

\_아 밤으로.

그 빨갱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로 남한 정치가 된 게 아니었어요.

\_그얘기 좀 해 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저기 가 가지고 붙잡혔다가 넘어 와 가지고 그때 아군이 주도를 해 가지고 저기 옥수골이라는데 집이 있어 가지고 거 가 살았어요. 사는데 저녁이면 빨갱이들이 산속에 있다가 먹을 것 때문에 내려오는 거야. 먹을 것 달라고. 그럼 아군들이 지키고 있다가 총 쏘고 싸우는 거지. 그럼 저그들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인민군들이 배기나. 그러니까 쫓겨가고 쫓겨가고 저녁마다 몇 번이고 그렇게 했어요.

\_그럼 다 아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군이 주도를 하고. 낮에는 아군들이 다니고. 밤에는 인민군들이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 구하려 내려오는 거야. 그럼 아군들이 지키고 있다가 총을 쏘서 가끔씩 전투가 벌어지고 그랬어.

\_낮에 조용했나요.

낮에는 조용하지 낮에는 못 내려오지요.

\_밤만 되면 그래요.

에 밤에 되면 그것도 뭐 몇 번이야 몇 번. 한 서너 댓 번밖에 안 그랬어요.

\_ 그때 뭐 다치고 그런 분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_ 여기는.

다치고 그런 사람은 없고.

\_ 아 군인들끼리 만

군인들끼리 싸우고 이래 했으니까. 민간인들은 길게 관련 안 돼서.

\_ 그때 군인은 안 죽었어요.

군인들도 죽은 일 없어요. 인민군이 달아나면 말고 말고 했으니까.

\_ 그럼 직접 본건 없네요.

그럼요.

\_ 보지는 못 하고.

에 보지는 못 하고 그저 밖으로 그냥 밤으로 우린 들어 앉아 있으면 아군들이 지키고 서 있다가 인민군들 내려오면 썩 가지고 그래도 죽은 놈은 없어요.

\_ 전쟁을 했는데 사람이.

내 빼면 그만 이니까 뭐. 그러니 죽을 놈도 없고 그렇게 하다 말구 말구 한 몇 번 그러다 말았어요.

(제보자의 동생)가끔 가다가 폭격에 민간인들이 죽었지요.

\_ 아 폭격에

(제보자의 동생)용대리 집 밑에 피난 갔다가 집에 와 가지고 불타 죽은 안 사람 집에다 데려다 놓고 며칠 있다가 그 사람들도 막 죽었는데 내가 데려가서 그랬는데 몰라요. 그거 몰라 난.

(제보자의 동생)용대리 지키고 있던 동부사도 길옆에 있다가 숨었는데 비행기가 그걸 보고 거다 막 해가지고 거서 두 명이 죽고.

그때야 공산주의 때지 뭐 공산주의 때지 뭐

(제보자의 동생)거이 지금 전쟁이 나서 죽고 비행기 돌아다닐 때 집이 타지 않았겠냐 그걸 기록에 남겼겠구만.

산에도 전체 폭격을 해가지고 산이 다 타고.

\_아나무가다 타고.

다 타 버렸어요. 나무 하나 없었어. 그 때 집이 거의 다 타고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저기 저 굴에 들어가서 살고.

(제보자의 동생)거기도 들어가서도 살고 저 위에도 굴이 또 있어요. 그 굴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_요 굴은 어디 매바위 있는 데요.

매바위에 굴이 하나 있어요.

\_굴이 커요.

아이 조금만 해요. 사람이 몇 명 들어가서 있을 만한 그 당시에는 인민군이 있을 적에 인민군 있으니까 폭격을 한다 말이야. 폭격을 하니 까 굴에 들어 갈 수밖에 민간인들도 굴에 들어가서 밥 해 먹고 살고 그랬지. 그이 뭐 낮하고 없으니까

\_아 낮밤이 달라졌구나.

그럼 그러니까 그 굴에 피난을 하는 거지.

\_중공군들도 왔었죠.

중공군이 온건 못 봤어요.

\_못 봤어요.

이 사람은 뭐 신남에서 그걸 겪었는지?

\_아 신남에서. 그럼 그때 상황 기억에 꼭 나는 거.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뭐 한 13살도 안 됐잖아요.)

아이 이 사람한테 얘기해 봐요. 이 사람은 신남에서 겪은 이야기.

\_ 그리고 수복 되고 나서는 그대로 계속.

수복 되고 나서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농사지으면서 집에서 계속 이렇게 사는걸 뭐.

\_ 예 말씀 고맙습니다.

# 3

## 형제를 잃은 슬픔



구술자	허근
구술자 나이	78세(1937년)
면담 주제	6.25전후의 한계1리와 구술자의 삶
면담 일자	2014. 12. 14
면담 장소	한계1리 허근 구술자의 집
면담자	이학주

한계리의 허근 제보자는 2010년도에 인제군 마을제사조사를 하면서 이미 안면을 튼 상태라 스스럼없이 이야기가 주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두들 허근 제보자에게 가보라고 하였다.

집 앞에 차를 대고 들어가 인사를 하고 6.25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 마을은 아주 조용히 지나갔다고 했다.

다만 당시 돌림병이 돌아서 가족을 잃었으며, 피난을 갔다가 고생을 하였다. 긴박했던 6.25전쟁을 몸소 겪었지만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흐른 터라 그 당시 상황을 거의 잊었다고 하였다.

한계리 앞 강가에 가면 시체가 물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사람 사는 것이 말이 아니라고 했다.



## “형제를 잃은 슬픔”

\_안녕하세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허근 외자예요.

\_예 연세는요?

지금 78이에요.

\_그러면 여기 주소가 정확히?

한계 1리 2반 북면.

\_아 어르신 6.25때는 그럼 몇 살이셨어요?

열~ 열네 살인가?

\_그쵸. 그럼 어르신 1930 몇 년이예요?

37년생이요.

\_그럼 그 6.25전에 보편은 38선이 여기 갈렸잖아요. 그때도 여기 계셨어요?

그럼요.

\_그때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떠셨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38 이북이잖아요. 한참 그래 학교를 왜정 때 원통국 민학교를 다녀서 해방되면서 이제 지역 한계국민학교 내가 한계리 주민이니까 원통 못 가고 한계리에 가서 한계국민학교 가서 한계국 민학생하고 원통-국민학생하고 한계리 한계국민학교 다니고 이게 분리 시켜 놔서 한계국민학교를 나왔지요.

\_아 그럼 그때 한계국민학교를 다닌 거예요?

예

\_어 그때 이복이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때 학교 다니 신거예요?

예 인공치하에서.

\_그때 인공치하에서 다닐 때 학교 상황이 어떠셨어요?

그 인공치하에서 해방 되고 그러니까 원통국민학교 왜정 때 다니다가 해방이 되고 나니까. 여기 한계리 국민학교로 편입되어서 여기서 그러니까 딱 그냥 연령 저거 없어요.

\_아 연령이 없어.

네 그거 18살 먹은 사람이랑 13살 먹은 사람이랑 한 학년이 되고 개판이죠 뭐. 그런데 해방 되고 2년 후부터 국민학교 소년단생을 조직해요. 그 소년단을 조직해 가지고. 뭐 단장 분단장이고 감투들이 수두룩하고 뭐 그래서 학생들이 교내에서 잘 못 된 게 있잖아요. 그럼 소년단에서 자아비판을 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 못 했다.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런 자아비판을 한다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땐 그 애들은 6학년 졸업이 아니라 5학년 졸업을 이거든.

\_아예

그래 3학년부터 나무로 다가 목총을 깎아 가지고 군사 훈련을 시켰어요. 옛날에.

\_어떤 식으로요?

그리고 나선 졸업하고 원통에 중학교가 있었는데 중학교에 가서 다니다가 6.25가 났지요.

\_소년단 훈련 시킬 때 어떻게 시켰어요?

그냥 뭐 총 쏘는 연습도 하고. 이제 커서 군대 갔다 와 보니. 아~ 이게 제식훈련 같은 것 그런 것도 가르치고.

\_아 제식훈련이요. 그 다음에 소년단 말고 있었죠?

소년단 말고는 기억이 없는데요.

\_내무서 이런 거요?

내무서는 그건 경찰 계통이죠.

\_아 그래요. 그건 어떤 건가요?

그건 저 이럴테면 내무서는 경찰이에요. 그들은

\_그들 경찰이에요?

예 그들 경찰이죠.

\_내무서에서 피해 보고 그런건 없었어요?

우리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 못 느꼈죠. 어른들이야 그런 걸 아셨겠지만. 우린 그때 애들이니까 뭐 그런 데서는.

\_학교만 다니고 소년단.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소년단.

그렇지요. 학생이면 다.

\_이렇게 시험보고 그런 건 없어요?

없지요. 거 간부들 뽑고 그런 조직식이죠 뭐. 그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마음 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뭐 했다간 고발하면 당하니까.

\_아 그럼 자아비판 하구요.

그렇지요.

\_무슨 세포조직이라는 것도 있었다면서요?

세포조직이라는 건 어른들 꺼지. 그러니까 여성동맹, 세포, 청년단 거 다 어른들 꺼지요.

\_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뭐 어렸으니까?

\_6.25 전쟁 날 때 상황이 어땠어요?

6.25가 25일날 났잖아요. 그러니까 6.25 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이 개들 군인 차하고 말 이런 게 어두리라고 이 밑에 골짜기가 있어요. 어두리라고 원통을 못 가서 거기가 깊어요. 있는 골짜기 가지고 어두리라고 원통 못 미쳐서. 거기 새밭에서 올라가면 거의가 2킬로 5백이

넘을 거야. 거가 집결지였어요.

\_ 집결지군요?

거기서 집결돼 가지고 있다가 6.25날 아침에 내리 밧은 거지.

\_ 여기는 그날 아침의 상황이 어땠어요?

6.25때 여기는 가들이 밧고 내려가니까 여기는 아무 피해도 없었지. 근데 그게 반전돼서 이렇게 치고 올라올 적에 인민군애들이 저 후퇴 해서 들어와서 이리로 해서 이주를 해서 서화쪽으로 전부 들어갔지. 그러니 여기가 인민군들 후퇴하는 이렇게 노선이었어요. 여기 와서 서화로 이렇게 들어간. 그때 뭐 여기 사람들은 그게 저 하니까. 인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인제 세포단 애들은 가들은 간부들 총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 세포조직원들. 그래 막 몰고 들어가니까. 민간인들도 몰고 들어가는 거지.

\_ 북쪽으로요?

예, 북쪽으로요. 뭐 우리도 서화 이포리까지 갔었어요. 서화 이포리 갔다가 선 인제 갔다가 도로 인제 저 아군들이 후퇴했잖아요. 그 지역에 도로 나와 가지고 여기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인제 아군들 들어와서 원주로 미군들이 실어 내갔지.

\_ 아 그럼 서화리로 갔다가 다시 한계리로 왔다가 실어내 간 건가요?

와 가지고 다시 인제 총을 들이대면서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식구가 그때 할머니 아버지 하고 내 저 형하고 동생하고 또 여동생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전염병을 다 앓고 우리 아버지만 안 앓았다 말이야. 그러니 그 사람을 모두 혼자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도 떨어졌다가 아군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도 피난 가고 그랬지.

\_ 아 그러면 전염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만 피난을 간 거예요?

아닌 사람이던 뭐든 다 걸리면 죽는 거지. 총 앞에서 배기나.

\_ 그럼 걸렸던 안 걸렸던 다 가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으면 다 데리고 가야지. 필요 없는 사람만 남겨놓고.

\_ 그럼 원주로 가실 때는 누구랑 같이 갔어요?

원주 갔을 때는 아버지가 먼저 저기 이. 피난을 나갔었었어요. 아버지가 식구를 찾겠다고 저기 뭐야 원주서 걸어서 와 가지고. 그러니까 기린 저 원대리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응골 저리로 해서 오다가는. 인제 들어와 가지고선 아버지가 보따리를 싸 가지고선. 그 때 여기 강고개라고 헌병대 있는 강고개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가 가지고 군인차 타고 그냥 원주로 피난 나갔지.

\_ 그럼 가족이 다같이 간 거예요?

그때는 인제 둘째 형은 죽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몇 개월 동안에 그런데 밑에 동생 또 전염병에 죽고 또 여동생 하고 나하고 어머니 하고 서이 있었지. 그런데 아버지가 오셔서 아버지 따라서 원주로 갔지.

\_ 그러면 차 타고 간 거네요?

그러니 인제 군용차 타고.

\_ 군용차 타고.

그러니 여개 강고개 헌병초소가 있었어요.

\_ 그럼 강고개에서 군용차 타고 원주로 갔잖아요. 원주에서는 어떻게 생활 했어요?

원주 거 저. 이젠 하도 오래되어서 그 동네 이름도 잊어버렸네. 원주에 피란민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러니 거기 가서 한 두어 달 있다가는 아버지가 원주 시내에다가 이렇게 돌로다 쌓아가지고 집을. 그러니 내 땅도 아니지. 막 그때만 해도 원주에 공터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집을 짓고 살다가 여기 수복되는 바람에 들어와서 여기서 살게 되었지.

\_ 수복되고 나서요. 그러면 6.25를 원주에서 거의 다 겪었네요?

6.25사변이야 여기서 다 겪었지. 그러니까 원주 나가서는 아군들이 들어가며 그때는 계속 전쟁이 되었지.

\_ 그때 뭐 특별히 활동 같은 것은 안 하셨어요?

나이가 어린 데 뭐 활동을 해. 뭐 활동을 할 나이가 안 되잖아요.

\_ 그럼 아버지도 그때 연세가 젊었을 건대요?

그치요.

\_ 수복되고 오니까 여기가 어땠어요?

수복되고 들어오니까. 여기 뭐 막 쭉대받이지요 뭐. 그땐 나는 수복 될 때 같이 안 들어오고 난 나 혼자 거 원주 씨비스공장에서 취직해 가지고 거기서 차 고치고 하는 데서 있다가 인제 철이 들어 커 가지고 군대생활 끝나치고 나서부터 여기 와서 정착했어요. 아버지는 그 전에 오고.

\_ 그럼 피난갔다가 바로 들어오지 않았네요?

저는 이 고향에 들어온 지는 제대하고 들어왔어요. 어른들은 먼저 들어와서 있었고.

\_ 거 서화리 갔을 때는 어땠어요?

이포리요.

\_ 예 이포리요?

이포리 피난갔을 적에야 뭐. 그냥 뭐 우선 이부자리하고 먹을 것 몇 되박하고 짊어지고 가는대로 가들이 이포리 가 가지고 움막을 쳐놓고서 한~ 내가 기억으로는 한 달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_ 거기 상황이 어땠어요?

그때 거기도 맨 그냥 폭격하고. 거기도 원주민은 또 이북으로 들어가 고.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도중에 인제 후퇴다 하나까. 다시 여기로 왔지요. 여기 와 있다 다시 아군들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나까. 여기 떨어졌던 사람들은 이남으로 군인들이 싣고 나가서 원주 나갔었고.

\_ 그때 여기 인민통치 받을 때요, 여기가 막 바뀌었잖아요. 그때 지방 빨갱이 뭐 이런 것 있었잖아요?

그러니 여기가 이 고원통리는 동네가. 다른 부락은 더러 사람들이 상해도요. 여기는 그게 없었어요. 요 동네 요 안에는요.

\_여기 자연마을 이름이 뭐예요?

게 언제든지 그래요. 지금도 우리 고원통 한계1리 고원통 마을에서는 남을 밀고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자기한테 직접적인 해가 없으면, 거 그렇게 안 해요.

\_아 그러면 무난히 넘어갔네요?

그러니 여기서는 참 뭐 6.25때도 사람 안 다치고 무난히 잘 넘어 갔어요. 다른 동네에서는 지방 빨갱이 서로 밀고해 가지고 죽고 총살당하고 그랬다는데. 여기 이 동네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_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없어요?

다른 사건이란 게 뭐 있나요. 없어요.

\_달리 저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뭐 있나요. 원래 어려서 가지고.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여기 6.25때는 전쟁을 해가지고 강에 나가면 더러 송장도 텅텅 불어서 이렇게 떠다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 뭐 사람 사는 것도 아니지 뭐.

\_그래 싸우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어요?

싸우는 것은 직접 보지 못 했어요.

\_무난히 다행히 넘어갔네요.

여기는 저 그렇게 나쁜 사람들도 없었고 그래서 지방에 뭐 누가 끌려가서 죽었느니 그런 거 하나 없었어요. 이 고원통만은요. 저 재내나 관별 같은 데는 더러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_감사합니다.





## 4

## 그냥 뛰었다



구술자	위남섭
구술자 나이	82세(1933년)
면담 주제	6.25전후의 어론리와 구술자의 삶
면담 일자	1차 2008. 11. 30, 2차 2014. 12. 10
면담 장소	어론리 위남섭 구술자의 집
면담자	이학주

6.25전쟁 전후 어론리의 상황을 이야기해 줄 사람으로 어론리의 위남섭씨를 인터뷰 하게 된 것은 이 지역 구술자들 중 가장 사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이다. 그를 만나 1차 2008년 11월 30일, 2차 2014년 12월 10일에 다시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

위남섭 씨는 고향이 함경도로 할아버지가 가족을 이끌고 내려와서 양구 남면에 살다가 현재 살고 있는 인제 어론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6.25전쟁 당시 위남섭 씨는 18살이었으며, 살기 위해서 총을 피해 그냥 뛰어 다녔다. 수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다행히 가족들은 모두 무사하였다.

위남섭 씨는 그 당시의 실제 상황을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내무서 습격사건 같은 굵직한 사건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위남섭 씨의 제보는 어론리에 있었던 6.25전쟁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좋은 구술 자료이다.

## “그냥 뛰었다”

\_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나라 위자 우리 회성인데, 남쪽 남자 빛날 섭자 그래서 위남섭.

\_ 연세는요?

우리 나이로 일흔 여섯이지.

\_ 생년월일은요?

33년 8월 11일.

\_ 주소가?

인제 남면 어론리.

\_ 몇 반이요?

7반.

\_ 예. 그 76세면 6.25때...

6.25때 열여덟 살.



▷ 제보자 할아버지 환갑잔치

\_ 그때 보셨던 것 훤히 아시겠네요?

대략 다 알지 뭐. 이 동네에서 저만큼 아는 사람도 없어. 웬만한 분은 다 돌아가시고.

\_ 부모님들이 이 동네 사셨어요?

응.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함경도서 함경남도 저 개마고원 장진이라는데서 왜정 때 일

본놈들이 와서 하류에 있었는데 우리 조부님이 남쪽 강원도 이상 남쪽으로 나가야 후손들이 산다 그래서 우리 조부님이 71세 해방 한 10년 전에 한 4년 전에 계획하고 다 지형을 돌아보시고, 우리 할아버지는 한학자신데 그 뭐야 벼슬하려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예요. 머리가 아주 지금 말하면 검판사 하실 분인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인데 함경도에서 흥경래가 난을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나라 이조 왕께서 함경도를 벼슬을 중지시켰잖아요. 그 바람에 벼슬을 못하시고 지리학 이런 걸 연구하시다가 할아버지 지금으로 보면 예언가지요. 남쪽으로 나가야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3형제 다 내려오고 왜정 말년 때 나왔으니까 해방 3년 전에 여기 나왔다고 여기 나왔다가 정착을 했는데 38선이 여기 4키로밖에 안돼요. 휴전 되니까 내가 여기가 38선 될 줄 알았으면 충청도 쪽으로 더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충청도 목적이 거긴데 여기 지대가 높은 고산지대이거든. 여기서 함경도는 낮은데도 평안북도하고 함경북도하고 백두산도 얼마나 멀지 않고 그래서 나왔는데 충청도를 목표로 했는데 여기서 임시 정착 하시다가 가신다 그랬었는데 6.25사변 나니까 그냥 여기서 그렇게 됐어 해방 되고 나니까 할아버님이 말씀하시길 여기가 휴전이 될 것 같으면 남쪽으로 더 나갈 건데 할아버지 생각과 견해는 통천이라는데 정주영 씨가 살던 거기가 거기쯤 이제 영원한 경계가 될 터인데 여기가 될 리 없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6.25나고 이제 김일성이가 밀려들어가는 바람에 여기가 지금 그 휴전선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할아버지가 아시는 분이예요 선견지명이 있었지 그 우리 아버지나 3형제 연령이 높으셔서 우리 할아버지는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88세 그 그다음 우리 어머니는 93세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작은아버지는 다 80넘게 돌아가시고 제가 그중에 제일 장손이 됐어요. 제가. 지금 나이 76세가 제일 많고 동생들도 서울 나가있고 사촌들이 다 살고 있고.

—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3형제인데 동생들이 두 사람 다 서울에 있어요. 우리 큰아들 안



▷ 제보자의 결혼사진

산 나가 있고 둘째가 나가서 강릉 가서 직장 다니다가 농토도 많고 그래갖고 데려와서 좀 아버지 거들고 있지.

\_ 자손들도 많겠네요?

예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안 낳으니까 뭐 내가 2남 2녀 4남매를 낳았는데 아들 둘이 손주들이 큰아들 작은아들 하나씩

낳으니까 2남2녀 4남매 둘이서 낳으니까 그렇게 됐지.

\_ 요즘엔 다 들씩 낳고 그러니까 예전만큼 많이 낳지 않고.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여기 나왔었어.

\_ 그당시 여기 오셨을 때 마을 분위기는 어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그 한학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왜정 때 지 동네 이장들도 아 훌륭한 분 오셨다고 할아버지를 존경하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텃세가 있어 해방 2년 전에 나오니까 여기 나오니까 그 그때 한창 보급대 했는데 우리 아버님은 우리 제가 이제 작은아버지 두 분을 데리고 나왔는데 거기 내가 아버지 다음에 나온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할아버지 따라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보급대를 우리 삼촌이 보급대에 붙잡혔어요. 그것도 남 대신 춘천 와서 도망갔어요. 도망을 해가지고 우린 간줄 알았죠. 가신 줄 알았는데 일주일만에 오셨어 지금 말하면 한 여덟시나 일곱 시 됐는데 한 두 시간 있으니까 동네 정보가 어떻게 됐는지 그 그때 왜정 때 순사지 총대를 하나 메고 와서 붙잡아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밤에 와서 이제 도망갔으니까 하더니 그때도 이제 일본가는 그게 기수가 있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일주일씩 막 거길 우리 시켜갖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나오는데 두 분이 아 여기 가운데 보따리 대라고. 할아버지하고 우리만 남겨놓고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뭐

이제 아들들이 성장하니까 일을 안 하셨는데 71세부터 농사일을 해방 될 때까지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해방되고서 도로 다 나오셨어요. 작은아버지 둘 다 그다음에 해방이 되던 해지 그 해 이제 할아버지 생신이 뭐야 2월8일 날이거든요. 3형제가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맏이니까. 뭐야 아버지하고 식구들 할아버지 생신에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하고서 동네 왜정 때 이장인지 동네사람인지 그때 마침 그 보급대 붙잡아가는 그때 요 앞에 반장 보는 사람이 자기가 가게 됐는데 도망간 사람 형이 왔다고 그래갖고 붙잡혀 끌려갔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는 일본까지 갔다왔어요. 해방되던 해 2월 지금 말하면 3월이지. 음력 2월 8일이 우리 조부님 생신인데 그때 끌려가서 3월 달에 갔다가 해방되고. 뭐야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아버님이 아주 장골이시고 아주 미남형이고. 그때 거기에는 이북놈들이 나와서 이북을 먼저 이렇게 개명을 시켰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 입고 온 옷이 11호 양복이라고 지금 말하면 일류지 동네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촌사람들 바지저고리 입던 사람인데 우리아버지 그거 입고 나와서 붙잡혀 있는데, 남면에 관대리 거기 가니까 인물이 훗하고 그러니까 책임자를 시킨거야. 그래갖고 춘천 갔다가 부산 내려가니까. 뭐야 전라도 사람들이 200명이나 보급대 붙잡혀 갔더라고. 거기 총 책임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일본에 건너갔는데 거기서 이제 북해도 이쪽에 아오리라는데. 거기 회사에 갔는데 그때 갈 때까지 동경 폭격을 맞아갔고 연기 훌훌 나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 가니까 총 책임을 맡기더라고. 그래갖다가 해방되고 나오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뭐했냐면 북해도서 나오는 석탄 그거를 이제 배로 싣고 나오길



▷ 1970년대 탈곡장면



▷ 6.25전쟁 직 후 닭사육

래 거기서 하차하는 그걸 말  
기더래요. 그런데 거기 가니  
까 폭격이 오는데 대단하더래  
요. 북해도하고 쏘는데 일본  
놈들도 고사포를 쏘는데. 그  
러니까 거기서도 그 당시에 미  
군 포로가 있더래요. 우리 아  
버지 사무실 옥상 꼭대기에다  
가 미군들을 갖다놓으니까 폭격  
을 안 당하더래요. 그래서 사

셨는데 해방되고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 일본 북해도 갔던 일본 갔  
던 한국군들이 나오니까 노무자들은 일본 군대갔다는 사람한테 밀려  
가지고 배를 예약을 하고 날짜를 정했는데 그 사람들이 뺏어갔어. 그  
래서 뺏겼는데 그 배가 군인들이 먼저 타고 나오는데 일본군인 같은  
사람들이 그 해안에다 미군들이 교라인가 그거 일본말로 교라이라고  
그랬는데. 포탄 아마 많이 진압로부터 그런 걸 많이 아마 집어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붙어갖고 썩가고서 배가 몇 키로 못나가고서 침  
몰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실 분들이니까.

\_ 어뢰라 그러죠.

그래요 일본말로 교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주 그다음에 12월 달  
에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30년 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책임자로  
있고 여기서 아버님이 대표로 책임자니까 여기서 지금 말해서 사무  
장 시키고 반장 다 여기 사람 시키고 여기 사람들 편히 됐다고 많이  
도움 좀 받았죠. 그래갖고 이렇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여기 가던 사  
람들 다 우리 집으로 데려오셨더라고. 다 이렇게 보내고 그랬어요.  
요새 그 징용 간 사람들 강제 징용 간 사람들 조사하는데 여기 몇 분  
을 내가 서류해 드렸는데 그분이 한분 사셨는데 엇그저께 내려오니  
까 돌아가셨더라고.

\_ 좋은 일 하셨네요.

그분을 보증하니까 이게 서류해 드린 게 심사가 빨리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산증인이 있으니까 그거 다 알지.

\_ 보급대가 정확히 뭐였어요?

징용이라 그러지.

\_ 일본 군인들은 아니고.

아니고 노무자 그 무보수로 가서 석탄 그 여기서 대개 석탄 판 사람들 이북 저 거기 가서 다 노무자들이 봤는데 항구니까 배에서 내리는 하역작업을 한 거지. 그래서 다행히 폭격하는 게 그 일본 포로병들 갖다 옥상에 갖다 올려놓으니까 그 폭격만 하면 그때 폭격하는 데는 그 지름을 일본 군인들이 그러고서 폭탄 몇 방 던지면 불이 타니까 폭격 했다하면 어디로 도망도 안가고 그 담요 쓰고 불에 탈까봐 그렇게 많이 그랬대요.

\_ 그 6.25때는 어땠어요?

6.25때는 여기 있다가 6.25날 아침에 안개가 무지하게 많이 끼었고. 우린 여기서 다른 군대들이 도망을 가니까 여기서 면사무소 거기 갔다가 한 지금 말하면 오후 한 세 시 쯤 해서 소나기가 막 쏟아지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인민군이 나오니까 그걸 자꾸 넘어가고 압수해가지고 원주에서 문막까지 갔다가 원주 조금 지나서 문막가면 저쪽 무슨 강이야 달랫강 그 하류 비두리있는 데 가니까 아 벌써 인민군이 저쪽에 달랫강을 건넜다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한 10일 걸리더라고.

\_ 갔다가 오신 거죠?

응 10일 만에 도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당시 인민군들이 와서 하나도 건드린 거 없어요. 또 사람들이 다 갖다 일찍이 들어온 사람도 있고 우린 돼지 새끼 낳고 들어오는데 등 뒤에 갖다가 한가득 해갖고 갔다 왔는데 살아있더라 그 당시 인민군들이 나와서 통치할라고 그랬는지 뭐 부인들 있고 집안사람들 다 하나도 안 건드리고 6.25때는 깨끗이 들어갔지 들어가면서도 들어갈 때 깨끗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자꾸 패잔병들 하나둘 들어가는 거 붙잡아 죽이고 막 이리다가 놓친 사람들이더라고 이 패잔병이 들어가 멍쳐가지고서 그 10월 달 부터 습격을 받아 많이 붙잡혔지.

\_ 그 50년 10월 달에.

응 음력 10월 11월에 습격 받아서 그래서 많이 죽었는데. 아 그때 나도 6.25때는 의용군 붙잡아갖고 가잖아요. 우리 육촌은 이제 우리가 나올 때 해방되고서 5촌 아저씨 큰집에 아버지 사촌이 우리 나온 대로 이북서 이쪽에 나왔어. 해방되고 나니까 아들을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그분이 나와서 생일이 빨랐어. 형뻘되니까.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와서 한해 여름 살고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5촌이 그 래갖고 우리 6촌하고 있었는데 인민군이 와서 이제 의용군으로 붙잡아 간다고. 근데 이북서 따로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나보다 두 살 어린 사람이 거 그때 스무살이니까 민천인가 거기서 오라고 그래서 벌써 인민군한테 와서 그걸 했던 거야. 그 사람은 거기서 사무 보니까 인민군 붙잡아 갈 염려가 없잖아. 그래 근데 조카가 나보다 한 살 어린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있다가 여기 몇 분이 뭐야 붙잡으러 왔으니까 어디 피하라고 피했는데 며칠 있다 나니까 도망가면 부모네를 혼내킨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6촌은 자기 부모 아버지 없으니까 그까짓 거 뭐야 도망가긴 뭘 도망 가냐. 산에다 숨으면 되지 그런데 나는 도망가면 우리 부모님 혼난다니까. 우리 부모네가 40살인데 겁이 나잖아. 여기다 논초 뿌리 할미꽃 뿌리 있잖아요. 그게 독약 이에요. 그거를 두드려 놓고서 우리 동생들이 뭐 한 10살 11살 왔다 갔다 하는데. 작은아버지하고 둘 다 아무도 모르게 작은아버지가 우리가 붙잡혀 갔다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서 여기다 이 밭목에다 뿌리를 붙히고 침을 애들 하는데 침놓고서 이제 피가 조금 나올 거 아냐 애들 뛰노는데 소문나라고 뱀한테 물렸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약 한다고 논초뿌리를 싸맬지 싸매고서 그때는 여름 더울 때니까. 잠 들었다 깨니까 이게 후끈후끈 해지는데 빼보니까 가죽이 벗겨지고 뒀어요. 아 그래서 진물이 나오는데 이게 썩는데 그러다가 이 동네

뱀이 물렸다고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뻘하지 이게 붓는데 이게 썩어나는데 약도 뭐 있어요. 구르마에다 바르는 송진 같은 걸 갖다 주더라고. 아파서 그게 이제 썩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기름기가 있어야 되는 데. 때면 앞으로 하는데. 아 그다음 내가 울면서 차라리 인민군한테 죽는 게 낫겠다고 울면서 어머니한테 했어요. 그래갖고 모면했지. 그래갖고 인민군 후퇴할 때 그때 낫더라고. 그래갖고 1.4후퇴 때도 절룩절룩하고 다녔는데. 폐잔병이라고 대한 청년단 조직하고 그러더니 보초 서라는 바람에 10월 달부터 나가서 보초를 썼어요. 그래 이거 말이지 도로가에 가서 저녁에 몇이 나갔냐면 작은아버지 두 분하고 육촌하고 넷이 나가고. 우리 아버지는 대한청년단 건설과장이라 그래서 저녁에 보초는 안서고. 면단위니까 대한청년단 단장 밑에 건설과장 뭐 우리아버지 건설과장에 감찰과장 몇 분이 있더라고. 우리 교대로 다 작은아버지 두 분하고 육촌하고 보초를 서는데 썼는데 음력으로 10월 10월 보름인가 그래요. 아니 서고서 방에 들어와서 잠들었다 깨니까. 보초 선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도로가에 집이 하나있는데 울타리 겹겹이 세워놓는데 거기 갖다 숯불을 피워놓고 창 그런 거 하나하고 수류탄 하나하고 들고서 두 명씩 보초 서는 거예요. 한 시간 서다가 죽을 짓이지.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놈들이 가만히 와서 쿡 찌르고 가면 그런 거지. 그런데 몇 명이 왔는데 하나도 없어요. 나 혼자만 있지 그래 그때는 내가 제일 어리고 그 다음 스무 살 삼십 살 이런 분들이 했는데. 나와 보니까 불만 있는 게 있고 하나도 없어. 근데 길가 저쪽에서 썼는데 거긴 우리 작은아버지가 두 분이 같이 가니까. 뭐가 지금 저쪽으로 갔는데 맞은편에 서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미리 연락이 돼가지고 도로가에서 보초서는 줄 아니까 저쪽 개울 건너로 넘어 간 거예요. 그래 거기는 논두렁길이고 달밤에 캄캄한 밤이면 모르는데 달밤에 사람들이 건너다보니까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절로 가는데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한 5\_600미터 됐는데 갔는데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보초망에 갔는데 조금 있더니 팡팡 총소리 나더라고. 우리는 그래서 산으로 뛰어서 갔더니 이제 내촌이라는데 가서

자고 철정이라는 데서 나흘 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경찰 사변 나고서는 이 지역으로 군인이 딴 지역으로 진격했지 여기 군인은 없어요. 경찰만 했지 패잔병만 들어간 거예요. 인민군들이 국군은 진격하는 거 못 봤는데 나흘 만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거기서 보니까 고개 넘어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게 있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면장님 하고 같이 있었는데 면장아들이 총에 맞고 거기다 옥수수짚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옆에다가 덮어놨는데 그걸 면장님이 보더니 울고 그러더라고. 거기 들어갔는데 울면서 갔는데 우리 아버지 다 같이 들어왔는데 보초 서야 된대요. 그래서 대한 청년단 사무실에서 한 20여명 방 한 칸에 모여 있어 가지고 뭐 이쪽저쪽 보초 서는데 서로 잠 잤겠어요. 서로 뜯 밤새고 이렇게 근데 위협사격을 한다. 그러더라고 위협사격이라는 게 곡포를 아무데나 대고 이제 여기 있다는 그 표시겠지. 그 뭐야 침범 못하게 할라고. 그런데 이게 환하게 한 거야. 위협사격이라는 게 날 밝기 전에 어둡기 전에 쏜다는데 날이 밝았는데 뭘 하냐고 그만 두라고. 그래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방안에 있는데 어디서 총소리가 빵빵 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말하면 해가 뜰 때 지금 이맘때지 눈도 오고 조금 뭐 있고 그런 게 그 나갔는데 뛰는 사람 뛰고 못뛰는 사람 못 뛰었어. 근데 순경이 하나 올라오면서 이렇게 뒷걸음치면서 올라오면서 문 닫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렇게 문 닫았죠. 닫아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신준태라고 대한청년단 부단장이라는 분이 개머리 없는 그걸 가지고서는 뒷문을 열면 저쪽 개울 건너가야 논 들판에 우리 사무실은 개울 위쪽에 있고 높은데 있고 거긴 낮은 텐데 거기 인민군이 패잔병이 인민군 패잔병인지 아무튼 10미터마다 한명씩 포위망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포위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총은 몇 방 쏘는지 어쩌다 땅땅 소리 나는데 소리를 아주 지르고 포위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다보니까 들어가서 개울 건너지만 10미터 20미터도 안 돼. 그래가지고 당장 총소리 나니까 옆드려 옆드려 이러는데. 그 양반이 한 두어 방 쏘더니 총이 고장 났는지. 방 안에서 덜그덕덜그덕 하잖아. 안 되겠어. 그걸 보고서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 뛰어야지. 이쪽 문을 여니까 인민

군이 그쪽 문 옆에 왔어요. 그 자세가 인민군이 따발이 총을 이렇게 이렇게 맨 게 아니라. 반대로 매서 방아쇠몽치가 이렇게 올라오고 뿔 뿔 했다고. 이렇게 왔더라고 이 사람이 문 열고 척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도 쏘지 않고 그 아마 저쪽에서 총질했던 모양이야. 바로 직통이니까 부엌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내가 제일 먼저 뛰었지 방안에 몇 명도 있는지도 모르고 뛰었는데. 그다음에 뭐 타타타타 하는데 그 세간에 그 면사무소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에 다 뛰어가서 얼드렸다 이랬다 보니까 그 공간에 사람 하나도 없이 다 갔더라고요. 저쪽에서 가면서 뒤로 도망가면서 이렇게 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그걸 이렇게 내려다가 쏘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내가 뛰는데 뒤로 콩닥콩닥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놈이 총 갖고 나를 붙잡아 오는가보다 숨이 차서 영금영금 기다시피 하는데 나보다 두 살인가 더 먹은 사람인데 돌려보니까 그 사람이야. 우리랑 같이 있던 사람. 그래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있는데 뛰다가 굴 밑으로 들어가더라고. 저 사람이 왜 저 밑으로 들어가나. 그러고서 나는 이제 올라가서 거기 가니까 순경들 더러 있고 결사대도 있고 한 300미터이상 갔어요. 거기 우물 있는데 그 사람들도 뛰다가 숨이 차니까 그냥 가지 못하고 영금영금 하는데 결사대 한분이 총을 여기 맞아가지고 무릎에 맞아서 영금영금 뿔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도로가에 풀 깎아 놓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훌렁 뒤집어쓰고 그 다음에 영금영금 산으로 기었는데 평평한데 올라가면 총을 자꾸 쏠까봐 구석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으로 해서 불과 500미터도 안되는데 넘어가면 안심하고 가는데 구석으로 들어갔으니 거기 산을 넘어야 되잖아요. 한 5부 능선쯤 가니까 그 올라간 꼭대기에서 동무 어찌고 인민군이 둘러쌌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두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이 감찰과장이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거기 들어갔는데 갈 때 보니까 실탄이 땅에 떨어졌는데 픽 소리가 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여기 썩 저기 썩 실탄이 떨어지면 처음에 와서 떨어지다 보니까 픽 하고 처음에 딱 하더니 빙글빙글 눈 위에서 짹 자빠지네. 여기서 썩 저기서 썩 그래도 안 맞더라고 죽을 사람 따로 있는 거야. 그래갖

고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눈이 허연데 거기에서 못가고 있는데 거 인민군이 있으니까 거기서 떨고 있었지. 이맘땀데 뭐 아침이고 뭐 면바지저고리에 고무신 신고 떨고 있다가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 한 30텐데 감찰과장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묵한데 있고 나는 웅달에서 그냥 떨고 그 양반은 우묵한데 앉았다가 그냥 가더라고 올라갔는데 그 양반을 따라가야 되잖아 난 애들이지 뭐 일어섰는데 하루 종일 웅달에서 앉아 있었더니 피지질 않아 이렇게 우물우물 하고 운동을 하고서 걸을라 그러는데 이분이 가더니 올라가더니 능선 위로 올라가는 데에 여기 이렇게 돼있는데 한 10미터 거리인데 여기 그 양반이 인민군 때문에 살살 올라가더니 가보더니 날더러 그 쪽까지 갔는데 나는 거기서 우물우물 하는 거야. 옆에 옆드리라고 옆드려있으니까 이 양반이 이쪽에 있더니 여기 이제 밑으로 돌아서 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눈 속에서 그 양반 잊어먹었으리라 하는데 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가야하겠다고 발이나 움직여서 그 양반 방향으로 나갔잖아요. 가니까 산에 올라가니까 해가 딱 요만큼 있는데 하루 종일 있다가 해를 보니까 거기 그냥 햇빛에 벌렁 자빠진 거예요. 저기 건너다보니까 능선이 있는데 보니까 아군들이 여기 뭐야 제 2선이잖아요. 38선 거기서 아주 새카맣게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밑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뭐 겁이 나서 쑥 들어가 있는데 우리 능선에서 쿵덕쿵덕 하더니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 갔구나. 그래서 이남 갔으니까 이제 있던 데로 가보니까 있다가 다 갔더라고. 그다음에 인제 대충 말해야지. 그 이제 동네로 내려와야 되는데 저놈들이 내려와서 저녁을 먹고 또 저녁 먹고 내려오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교전도 없고 그렇게 간 다음에 밀려갔으니까 뭐 총소리 안 나고 낮에는 조용했거든요. 그 이렇게 산 끄트머리 숲속에 숨어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두 명이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는 거야. 저놈들이 저녁을 먹고서 올라오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거기 이제 장남이라는 데를 도로 뛰어 갔었지. 내려갔다가 이틀 밤을 거기서 잤어요. 거기서 자고서 집으로 밤에 왔는데 밤에 저 산을 돌아서 집으로 왔는데 눈이 그때 조금 왔어요. 조금 와서 발자국이 있는데 무서워서 길로 못 들어

오고 산으로 길 없는 데로 돌아서 이제 오니까 집에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 숨소리는 들리는데 어떻게 뒤편 문을 걸어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싸리나무로 걸어놓은 걸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인민군이 나왔을 적에 우리 집이 그때 스물네 칸 네모지기 집인데 큰집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누이가 나보다 두 살 위인 누이가 20살 먹은 누이가 있었어요. 정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미음자집에 처녀도 있고 군인을 숨겨놓은 그런 집이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듣고 오다보니까 우리 집을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대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는 저기 3기로 올라가면 옛날 집이 거긴데 우리 집에 아군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보통 무서운 분인데 함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놈들 어디 와서 그러느냐고 여기 아무도 없다니까. 이놈의 영감탱이가 혼나볼래 그러고서 인민군들 뭐야 따발이총 말고 아시보총이라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걸로 썩 죽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총을 겨누고서 차마 쏠지 못하고 옆으로 댄 거예요. 갑자기 귀가 잡수신 거예요. 두 방인가 세 방을 쏘고 났는데 총 나가는 소리에 그다음에 말을 하나도 못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놈들이 그러니까 그러고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 뒤로 한 3기로 가면 네모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처음에 군인이 온 걸 뭐야 거기 숨겼다 보냈대요. 그랬는데 그걸 이제 정보를 우리 집인 줄 알고서 와서 우리 할아버지고막이 터졌는지 못 들으시더라고. 밤에 와서 사람들이 깨우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돼야죠. 뭐 못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가 감각으로만 손주가 왔다는 것을 알고 벌벌 떠시고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자꾸 그러니까 너희 작은아버지는 맞아 죽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밑에 아버지 밑에 작은아버지가 총을 네 방을 맞았는데 두 방은 팔을 관통했는데 팔이 이제 절골이 되고 그다음에 살을 뚫고서 바지저고리를 뚫었더라고. 그렇게 네 방을 맞았는데 거기 따발총을 우리 작은아버지 뛰니까 바로 옆에서 뛰었는데 그놈이 쏜 거라고. 내 추측에도 그런 거 같애. 위에 한 2기로 올라가면 거기 집이 몇 집인데 가셨다 그래 그리고 뒤따라 나오면서 총에 맞았

다 그러는데 작은어머니가 그때는 여자들하고 애들은 해코지 안하니까 이제 가서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도망가서 맞지 않고 피난 가신 분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강 건너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거기 사람들도 이제 이게 어떻게 그 얼마나 쫓겨 왔는지 그때 정보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 있다가 언제 아군이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에가 굴을 파고서 거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거길 방향을 아니까. 거기 가니까 파고 놓고 거기가 나무 많으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소 한 마리 끌어다가 산에다 매고 내가 올라갔었는데. 나도 내려가서 소를 산에다 갖다 매놨으니까. 끌어서 피난 간 집에 먹인다고 소 끌러 내려왔는데 이제 해가 넘어가게 됐는데 어디서 총소리 땡땡 나잖아요. 그때만 해도 습격 받고 그럴 때니까. 아 어디서 나는지 알아 뉘 수가 없잖아. 냅다 뛰면 그래갖고 오막살인데 그래서 방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큰일 났을 텐데 펴라 그러다 못 뛰고서 이제 그림 부엌에 나왔는데. 촌에서는 여름에 소나무 가지를 따놔다가 누렇게 되면 겨울에 떼거든요. 이렇게 한 쉼도 안 되게 있는데 부엌에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누이 보고서 저걸 갖다 덮으라고 그래서 덮었지. 덮고서 들어오니까 떨리는데 소나무가 들썩들썩 그때 빨리 왔으면 나도 마음 놓는데 총소리 나고 조용하더라고 장작을 자꾸 없애놓는 거야. 인민군 한 놈이 오더라고 어디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때 한 40대인데 젊은 사람 어디 갔냐니까. 그때 이제 인민군들이 나와서 짐을 많이 지키고 그걸 했거든요. 보급품 나르느라고. 그래서 그때 나가서 짐질하다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놈은 이제 가버리고 뒤로 오는 놈이 와서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더니 방안에도 열어보고 마굿간 꼭대기도 들러보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다 이렇게 야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러는데 그렇게 애들 것이 왜 이렇게 많냐고. 동네 애들이 와서 논다고. 그게 다 피난 간 애들인데 변명 하더라고. 가니까 조용하더라고. 그렇게 해가 넘어올라 그러는 게. 그다음에 소문난 게 그 동네 사람 두 명이 만나서 있는 거 집 그 골짜기 근처에 가서 싸 죽였다고 한 사람은 거기서 엽병을 앓다가 그 30대 사람인데 동생네가 토끼 잡았

다고 아마 염병을 앓다가 좀 낳았나봐 토끼고기 먹으라고 해서 마당에 딱 나와 섰는데 그놈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놈들이 어디 가서 작전이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공포를 쏜다고 그러더만. 공포를 쏘는데 놀래갔고 그 사람이 똥 거야. 뛰니까 이제 그냥 그 염병을 한사람이 얼마나 뛰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또 처갓집에 38선 부근에 있다가 처갓집에 피난 왔다 보니까 그 사람도 뛰었는데 뛰지 못하고 맞아죽었어요. 그리고 그 총 쏜 놈들이 죽인 놈들이 나한테와 있는데 왔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산위에 올라가서 짚을 짚어지고 올라가서 3일을 못 내려오고선 있었는데 아군들이 내려와서 피난 나갔었죠. 그 뒤로 알고 보니까 거기서 희생당한 사람이 우리나라 같이 보초 서던 사람이 이광석이라는 분이 현장에서 그 자리 현장에서 맞아죽고 내 뒤로 따라오다가 앞에 간 사람은 그 자리 가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 김영기인가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부단장이란 인물 좋고 신준태란 분은 그 칼빈 개머리 없던 사람은 산 밑에 가서 나중에 공격당하고 들어와 보니까 그 자리에서 죽고 그다음에 우리 작은아버지 총에 맞았고 그 사람이름이 바우 총에 한번 맞은 분은 임성남인데 임성남 씨가 바우라는 양반인데 그분은 여기 총을 맞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해서 맞힌 분을 보니까 이기준이 아버지 이광섭인데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현장에서 맞아 죽고 그 양반은 뒤에 가서 사망하고 그 이제 세 사람이 현장에서 맞아 죽고 그다음에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두 분은 부상을 당해서 도로 살아서 생존해계시다가 나이 많아갔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제 그냥 보니까 난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게 나만 두 명만 있었다면 나까지 맞았을 건데 내가 먼저 뛰니까 이분들이 내 뒤로 뛰니까 그나 이제 먼저 뛰었으니까 뒤에 나온 사람은 막 그 한다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은 그 따발이총 52발인가 나가는 게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나머지 두 분은 나가서 그러고 그다음에 나중 분들은 설맞고 그러니까 따발이총이 나중에 총열이 열이 많이 되면 멀리 못가고서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위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맞으신 분들은 이런데 맞아갔고 안 돌아가시고. 처음에 똥 분들이 아주 진통 맞아갔고 세분



이 사망하고 나까지 여섯이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사람만 안 맞았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중에 뛰었으면 다 맞았다고 죽었든 살았든 난 내가 먼저 뛰자니 뒷사람이 나오니까 가까운 것부터 먼저 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앞에 뛰었는데 안 맞고 살았어요.

\_ 그렇죠. 사실 분은 살아야죠. 그 당시 임성남이라는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분은 우리 작은아버지가 총에 손을 맞은 분이 그 당시에 서른여덟 되시고 그분은 그 밑에 서른 넷 인가 한 한 살 아랫가 그랬어요. 작은 아버지하고 친구고 부단장이란 사람은 그때 아마 40대 되고 신준태 씨가 그렇게 됐었어요.

\_ 임성남이라는 분은 결혼도 하셨겠네요?  
그 당시에 결혼한 분이죠. 자식이 지금 여기 안 살고 나가있고 그 집 이제 돌아가신 그 부인되신 분은 지금 여기 실버홈에 가있는데 거동도 못하고 실버홈에 살아요.

\_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복순이 이복순이 할머니가 배우야 임성남이.

\_ 그럼 할머니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고생 많았지 혼자 돼가지고 그때 보상도 없고 혼자 애들 키우느라고 애들이 그 때 살 데 없으니까 객지에 나가서 살지 다리 관절 때문에.

\_ 자식은 많았어요?  
자식은 한 서넛 됐는지.  
구술자(할머니): 자식들이 잘 됐었어요. 지금도 괜찮게 살아요.

\_ 그때 다치신 분들 그때 같은 해.  
한 날이지 한 날 지금 말하면 여덟시 반이나 일곱 시 해뜰 무렵인데 뭐.

\_ 10월 30일 날요?  
하여튼 그 정도 되죠. 한 날 한 시지 뭐. 10월 22일 날이라. 그러던 거 같던데.

- 음력으로요?

구술자(할머니): 음력이지.

하여튼 그 22날인가 그 아들이 그 뭐야 광섬 씨 아들은 두 살이나 서너 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군에서 조사 나와도 내용도 모르고 아버지 죽었다는 걸. 그래서 내가 알고선 광섬 씨 자제분한테 나도 그걸 몰라서 그분들 사촌들도 있고 그랬으니까 죽은 건 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제삿날이 언제나 물으니까 대답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같이 뛰었는데 나는 앞에 뛰었는데 너 아버지는 뒤에서 내 뒤를 따라오다가 맞아죽었다고 내가 얘기했지. 얘기 했는데 군청에서 조사 나온 걸 내가 알지 못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 그럼 이분들이 다 대한청년단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럼요

- 그럼 결사대는 뭐예요?

결사대라는 건 인민군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인민군이 버리고 간 총아군들이 버리고 간 총 주워서 모아갖고 무기 수류탄 와갖고 패잔병들이 드문드문 가니까 우리 지방을 지키자 해갖고 군인은 나가버리고 없고 경찰도 다 나가버렸으니까. 이 공간에서 그냥 그때 그놈들 와서 경계하고 있던 걸 내무소라고 했거든. 여기 와서 치안하던 놈들 그놈들 죽이려고 여기 와서 조직했던 사람들이지. 그랬는데 그 사람들 여기 오더니 아주 청년들 똑똑하고 우리보다 두 살이나 많은 거기 대학생도 한명 있고 중학생도 한명 있고 그 사람들 10여명이 붙잡혀가서 죽었지.

- 그때 그 최기종이라는 분도.

최기종라는 분도 집에 있다가 왜냐면 목수일 하던 사람인데 그냥 자다가 붙잡혀 나와서 군 그때 한 40대 됐는데 갔다 들어오니까 그 이렇게 전화 줄에 뒤편해서 죽였더라고. 그때는 나보다 그 뒤로 이제 처음에 6.25때 나올 적에는 거침없이 나왔는데 그 뒤로 들어오는 걸 자꾸 패잔병 들어오는 거 죽이다가 살아서 간 사람들도 있고. 이쪽에서

빨갱이질 하면 다 죽이고 그러니까 민간인하고도 반감이 생겨갖고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사람들도 여기서 붙잡히다가 죽었어요.

\_ 그 사람 이름은 뭔데요?

민영훈인가 그래요 영자는 맞는데.

\_ 인민군한테 잡혔어요?

응 잡혀갔다가 죽었지.

\_ 결사대 열 명 정도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성함은 생각나세요?

내가 아는 사람은 김성열이라고 외아들 김성열이가 외아들이고 그 사람이랑 사촌간인가 김... 탁골집 아들 지금 그쪽 집에 하고 황수만이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박상열이 형인데 그 사람이름은 몰라 하여튼 동네 청년 중에 제일 용감한 사람들만 죽었어요. 공작하다가 지하 공작을 했는데 이제 한 3일이면 대학생이 여기 김진만이 형인데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다녔는데 그 사람이 대장을 하고 이제 황수만이라 이런 사람이 조직을 해가지고 맨날 연습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중에 가입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는데 누나가 있었는데 처형인가 누나가 있었는데 인민군 밥해주는 여자였는데 가정에서 그 집안에 싸움이 나가지고 했던 거야. 그래갖고 누나랑 공작하는걸 알았는데 싸우다보니까 틀어지니까 이놈새끼들 가서 이른 거야 그래갖고 지하공작한 게 탄로 난 거 아니야 그대로 묶여가서 묶여갔는데 홍천 쪽으로 나갔는데 그놈들 내무소 홍천에 있잖아요. 가서 이제 후퇴해갈 때 다 죽인 거 같애.

\_ 열 명 다요?

에 다 몽땅 죽었어요.

\_ 결사대 하던 사람들을 지하공작 한다. 그랬어요?

에 결사대를 그러고도 그 뒤로는 이제 6.25때 후퇴해 들어가고서 10월 달 이제 아군들이 안 들어오고 1.4후퇴까지 그 기간에 총을 주워다가 조직해갖고 저놈들이 저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

방에서 지방 치안을 하느라 결사대를 조직했지. 저놈들이 습격을 하면 여기서 습격 갔다 저쪽 조직했던 사람들이 산에서 공격 하고 상수 내리 사람들 결사대 조직을 했지. 거기 사람들 아군이 여기 오니까 가는 걸 공격 하고 그렇게 했지. 결사대라고 각 리에 다 조직을 해 갖고 굉장했었죠.

- 숙부님은 다리 다치셨잖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힘드시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지 여기가 굴러 있다가 그때 그러고 난 숙부님은 이제 여기 와서 바로 습격당했다가 아군이 들어오니까 흥천 나가서 병원에 모시고 나가서 내가 간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방을 얻은 데가 아군들이 저 그때당시는 저쪽으로 해서 북진했다가 중공군이 후퇴해 왔잖아요. 연대본부 식당을 만들었더라고 그랬는데. 사물아치고개에서 공비 이놈들이 그때 산에 숨어있던 공비들이 와서 길을 차단하고 습격을 해버렸어요. 사물아치고개라고 거기서 전투가 있으니까 춘천서 후퇴해 나오고 이쪽에서 후퇴해 나오던 사람들이 흥천에 와서 몰려있고 피난민이 아주 꽉 차 있었지. 그랬는데 3일간 교전하다가 터지니까 거기서 치료하다가 그냥 나갔지. 나갔더니 충청도까지 피난 가니까 여기서 부서진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는 양약이라는 게 사람의 몸에 면역이 안 생겨갖고 마이신이라는 거 그걸 가져다 촌에서 주사 맞고 그러는데 낫더라고. 아물어 붙었지 팔이 부러졌던 게. 이렇게 꼬부랑이 왼손 쓰지 못해 지금만 하면 그런 분들이 지금 보상 탈 텐데 그때 그거 지방에서 총에 맞은 거 누가 뭐 우리나라 형편도 그랬고.

- 숙부님은 그럼 돌아가셨죠?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 넘으셨지. 그 정도 됐는데 나보다 24살 위니까 지금 내가 76이니까 100세가 되셨겠네. 88세에 돌아가셨어. 우리 사촌들 다 살고 있는데.

- 그 뭐야 먼저 말씀하신 김영일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예요?

그분들 다 결사대 조직했던 사람들

\_ 김사일이라는 분도?

아 김사일이란 분은 뭐야 거기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 염병 토끼잡고 그때 죽은 사람이 김사일이고.

\_ 김사일이란 분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한 뭐 7,8살 아래였었어요. 그런 분이고 그 한분 맞아 죽은 건 뭐야 피난 와서 치갓집 와서 죽은 사람은 김명섭이 아버지예요.

\_ 이름은 정확히 모르시고?

에 정확히 모르고 김명섭이 아버지인데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 말고 김명섭이는 상당히 똑똑하고 부평이란 곳에서 이장도 했는데 그 실버홈에 가보니까 거기서 뭐 아주 망지불사더라구요. 사람도 알아 못 보고 우리보다 10여년 아랜데 지금 60대인데.

\_ 숙부님 성함이 위자 정자 학자이죠?

네

\_ 이종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그 사람도 결사대 조직했다가 몽땅 그날 공작하던 사람들 어떻게 빠져졌어요. 거기 가지 않아서 붙잡히지 않고 저기 골짜기 가서 숨어있는데 누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기 와서 한 골짜기에 있는데 거기 가서 그놈 정보 알아갖고서 빨갱이 있으니까 어떤 집에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서 내무서에 누가 비밀을 제공해가지고 거기 붙잡혀갔고 거기 같이 있던 주인도 붙잡혀갔고 죽었어요. 인민군들이 그때 갖다 내무서에다 갖다 왔다가 제일 처음 붙잡힌 사람을 본부로 내보냈는데. 그 사람들 붙잡혀 있다가 후퇴하니까 그냥 가다 여기 저기 가서 장수바위에 있는데 그 옆에 갖다가 도로가에서 썩 죽이고 갔어요.

\_ 두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서 두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붙잡혀 간 사람이 8명이야. 거기 가서 죽은 사람은 여덟 명 상수내리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 나가고 처 고모부인가 그 사람도 거기서 그렇게 붙잡혀갔고 죽고.

\_ 처 고모부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할머니): 이름이 뭐라그러더라.....

\_ 이여수라는 분은 누구였죠?

그 이여수라는 사람이 이종수를 갖다가 저기 독거촌에 가서 있던 그 사람 주인이지. 그래서 이여수란 사람이 밥 먹여주고 숨겨줬는데 그 숨긴 죄로다가 같이 붙잡혀갔고 같이 한군데다 총 맞아갔고 죽었어요.

\_ 어디에서 죽었어요?

진두루라는 데 거기서 약수터 있는 그 옆에서 뚝에 갖다 세워놓고 인민군놈들이 후퇴해가면서 한군데에 묶어갔고 총을 쏘고서 가서 맞았는데 서로 맞고 일어나서 다시 죽이고 그렇게 썰죽이고서 갔는데 그 중에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이 그냥 쓰러져 있다가 한명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_ 일곱 분은 다 죽고.

다 죽고 상수내리 사람이 한명 살아갔어요. 그래 이제 이 동네에서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때 모두 장사했지. 그 분들 갖다가 이종수라는 분은 저 건너에도 아직도 있어요. 자녀들도 없고 아내는 딴 데로 가고 후손도 없고.

\_ 그럼 이여수라는 분은 그 당시 연세가?

그 종수라는 분보다 한 5살 정도 위일 거예요.

\_ 한 40정도 그럼 이종수라는 분은 한 30정도 되시고요?

응.

\_ 똑같이 그렇게 그 해 그때 비슷하게 돌아가셨네요?

아니 그건 한 달도 전이지. 인민군 바로 후퇴해갈 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부산까지 갔다가 후퇴해 들어갈 때니까. 그때는 8월 9월인가 그렇게 됐을 거야.

- 그 대한청년단은 어떻게 결성됐어요?

그때 왜 이 대통령 때 그 6.25사변 전에 대한청년단을 조직을 시켜 놨잖아요. 6.25사변이후에 조직한 게 아니고, 그전에 벌써 대한청년 단들 조직해갖고 대한청년단에 가입한 사람들은 훈련을 계속 받고 뭐 36계 뭐 그때 훈련 앞으로가 뒤로가 36계 있잖아요. 그걸 다 잘하고 그랬어요. 총 쏘는 연습도 하고 지방에서 38선이 가까우니까 그래 가지고 대한청년단이 활동이 막강했죠.

- 주로 활동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내가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훈련받고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여기 면단위니까 전방에 군인들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대한청년 단이 그때.

잠깐 얘기 그만하고 그 이름만 알고..(할머니와 대화)

- 청방이란 것도 있었어요?

청방은 거기서 뽑아갖고 특수한 사람들이지. 대한청년단에서 나와 갖고 훈련받고 나오면 그 사람 소위 한 달이나 두 달 받고 오면 청방 소위이라고 시켜줬어요. 청방 소위들이 나와서 현지 입대한 다음에 한 분은 6.25때 돌아가시고 한분은 현지 입대해갖고 소령 제대해갖고 여기 와서 면장도 했어요.

- 청방은 그럼 군인이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 그러니까 대한청년단, 청방, 결사대...

결사대는 이제 6.25사변 후에 후퇴당시에 조직한 사람들이고 6.25 나와서 자꾸 남쪽으로 나갈 적에 지방에서 치안하는 내무서 요원들을 죽이라고 한 게 결사대고. 우리가 죽으나 사나 그 명칭이 그렇잖아요. 죽으나 사나 그놈들 부시자는 의미에서 결사대지.

- 수산리에 먼저 박0수라는 좌익이 있었다면서요. 그거 얘기해주세요.

구술자(할머니): 이0만이래요. 고모부가 41살이었고 애들 4남매 두

고 심0도 씨 아들인데. 그 이름이 뭐지. 그 사람이 다리를 한 방 같이 맞았었는데 그이는 다리 한 방 맞았는데 안 죽었는데 우리 고모부가 탁 맞았는데 별떡 일어나니까 이 새끼 안 죽었다고 다시 한방 쏜 게 그 뒤로 가만히 었드려 있다가 정신차려갖고 숨어 있다가 살아서 이 모부가 살았다 그러더라.

박0수는 수산리라는 데 물푸레골이라는데 촌에는 한 집도 있고 그 런데 있었는데. 이제 그 상수내리라는데 38선이 가까운데 1개 소대 병력이 가서 여기가 중대본부 있고 파견 나가서 전방을 보초서고 있었거든. 그게 동네에 빠라가 떨어지고 그러더라. 거기다가 이제 그 박0수 살고 38선 너머에 양구하고가 교통이 지금 말하면 간첩 통로 망이 됐던 모양이야. 군인들은 여기 있으니까 이쪽 너머에서 넘어와서 보다가 그뎨 공중에서 날라 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동네에다 갖다 뿌리고 그래서 그 이제 빨갱이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6.25사변 나니까 그분들이 활동을 한 거야. 지방에서도 그 사람이 빨갱이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랬는데. 동네에서 지금 말하면 결사대 조직했는데 그 박0수라는 사람이 그거 정보를 제공해주 가지고 고모부 붙잡혀서 붙잡혀가서 여기 와서 이종수랑 저 뭐야 여수랑 거기서 한군데 묶어다가 거기서 여덟 명이 죽었어. 그 사건이 거길 같이 연루된 거예요.

\_ 그럼 수산리에서 붙잡혀갖고 여기까지 온 거네요?

그럼 다 거기 넘어와서 본부가 인민군 저기 내무서 지서가 여기 밖에 없었으니까 거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붙잡혀갖고 죽었지.

\_ 여기가 내무서원도 있었고 또.

인민 민청 그 본부랑 여기 면사무소 있었으니까. 그놈들 그 이북에 기관이 다 여기 와서 조직했었지. 농지위원도 있었고 농지위원은 뭐 했냐며는 벼 알갱이 세고 이렇게 했었지.

\_ 착취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착취야지. 매상 거두어들이려고 생산량을 땅이 얼마면



생산이 얼마난다는 걸 그놈들이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뭐야 우리가 농사지은 걸 그놈들한테 공출을 한 거지. 도로 들어오니까.

- 그럼 여기서 얼마정도 있었어요? 인민군들이?

3개월이지 3개월 정도 있었지 북진할 때는 물러갔으니까 여기서 농사짓고 타작할 무렵에 쫓겨 갔어.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러다 나갔고.

- 3개월 동안 그렇게 내무서원도 있었고.

민청 조직하고 여자 뭐 이런 게 다 조직됐고 하여튼 노동당 위원장이 여기다가 면장 위원장이 있었어요. 위원장도 다 조직해놓고 그 면에 가서 근무하던 사람도 다 있었지.

- 그 위원장은 현지인이 하나요. 아니면.

여기 사람이 했었어요. 김0희라는 분이 신흥리 사람인데 그 양반이 와서 했지. 신흥리 분이 와서 했는데. 그분은 그러고 와서 학식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 놓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방에 대해서 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위원회 한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여기서 그렇게 사형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일 보는 사람 박0일이라는 사람은 그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살아난 게 뭐냐면 결사대 조직할 때 연락병 있었던가 봐요. 지하 공작한 사람 그 사람이 산속에서 조직하라고 연락을 간 사이에 여기서 딱 붙잡혀 갔거든요. 거기 정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붙잡으러 갔는데 거기 연락이 가니까 붙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숨었느냐 박0희라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은 그 골짜구니 거기 가서 숨어있었어요. 박0희네 집에 가서 박0희네 아버지가 숨겨줬어요. 먹여 살리고 그 이제 우린 다 알지만 집안사람 몰랐지만 그 집하고 내통은 다 있었지. 그래갖고 아버지가 살려줬거든. 그 사람은 면회 다니고 그 사람이 빨갱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불려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0일이란 사람이 인민군이 들어가도 아군이 다 여기서 도로 동네하고 경찰들이 들어왔을 적에 그 사람을

죽인다고 붙잡아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종욱이예요. 그 양반이 나타나서 내가 이집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사람 절대 빨갱이가 아니다 그 뭐 지하공작하던 사람이 살렸으니 진짜잖아요. 만약 빨갱이 짓을 했다면 연락을 해서 그 사람 붙잡으라고 근데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살려준 사람은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종욱씨 때문에 그 사람이 살리는 바람에 그 사람도 빨갱이로 몰리지 않고 살았어요.

\_ 그럼 그 이름이 박0일.

그 사람은 이제 빨갱이 가서 한테 가서 일을 했지 면위원장한테 가서 일을 했으니까 총무과장이라고 하고서는 했겠지. 그 사람도 우리 작은아버지 나이 또래예요 한 서른 댓 살 먹었지.

\_ 결혼 하셨고?

그렇죠. 6.25 1.4후퇴 이후에 춘성군 북산면에 들어가서 산다 그러는데 별초하리는 들어왔다는데 모르지 못 봤어요.

\_ 어론리 살았어요?

8반 우린 7반인데 8반.

\_ 춘천 어디 가서 사는지 연락처는 모르죠?

모르지요 뭐 와서 별초한다는 건 알았는데 후손들이 살겠지요.

\_ 사건이 난때가 1950년.

1.4후퇴 들어갈 때니까 9월 달 그 정도지 그때 아군들이 들어가서 그때 위원장하고 빨갱이하고 악하게 들어가서 다 붙잡아 죽일 때고 그럴 적인데 그 사람도 거기에 함께 어울려서 거기가 인민 위원회지 위원회고 위원장있고. 그다음에 붙잡혀있고 죽일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붙잡혀 죽일라고 갔는데 그 집에 가서 살려준 사람이 그 사람이 빨갱이 아니다 해서 살아났지.

\_ 예 그때가 50년 그럼 50년 9월정도 9월 정도에...

후퇴해 들어가고 여기서 아군이 들어왔을 적에

- 여기 살려준 곳은 어론리네요?

응 어론리.

- 그럼 이분은 돌아가셨겠네요?

응 돌아갔지 박0수란 사람은 빨갱이질 하다가 동네에 저 장귀동이라고 있었는데 장영찬이지. 그 사람들이 결사대를 조직해갖고 그놈이 빨갱이 동네 의용군도 뽑아 보내고 그 동네를 망치니까 그놈을 때려 죽이자 해갖고 집을 둘러싼 거예요. 숨어 있다가 집을 들어간 걸 보고서 집에다가 불 싸놓고 지킨 거예요. 지키니까 지붕 꼭대기 거기서 똑 떨어져서 산으로 도망갔지. 이북으로 도망간 줄 알고서 그렇게만 알았었지요. 그랬었는데 어디서 보안대에서 정보가 오기를 우리 집 사람이 박순녀거든요. 우리 집에 전부 그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거 상수리에서 이사 오고 그 사람 동생이 박순녀다 보니까 우리 집을 오는데 거기서 정보제공 해갖고 오는 건 그런 내용이 맞지 않잖아 그 사람이 동생이 박0레고 우리 처는 박순녀 계집녀자인데 그 당시 보안대에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보안대예요 보안대라고 있는데 조사하다보니까 이게 이상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안사람 되는 사람이 박남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이다 그 사람 동생 우리 동네 와서 살아요. 박0레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름도 맞지 않고 우리 처남은 박흥진인데 그 사람 박0순하고 이름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맞다 하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니까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있었냐면 그 집에 이제 동생네 집에 가서 거기서 지붕에서 공중 뛰어서 넘어 와서 십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집에 와서 고무락 속에다 올려놓고 박을 올려주고 여동생 그때 몇 살인가 하면 나보다 한 살 아래이니까 17살이잖아요. 그런데 이집으로 정식 결혼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민며느리가 있잖아요. 이집에서 데려다 키우는데 동생네 집에 와서 이집 그 고무락에 올려다놓고 요강을 올려 보내고 하다보니까 시아버지가 우리가 모두 몰살한다고 굉장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도망간 게 충청도로 혼자 도망을 가버렸죠. 박0수란 사람이 혼자 가서 거기 가

서 어디서 왔다고 했는지 거기서 장가들고서 한 거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정보가 와가지고선.

구술자(할머니): 아니 박0레가 자기 오빠가 충청도에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4~5년 됐어. 이제 장사 보러 갔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정보가 왔는데 돌아가신 건 며칠 안 됐죠. 그래갖고 우리가 가르쳐줘서 진상이 해명됐지. 그러잖아 우리가 자꾸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때 같이 살았으니까 우리 처보다 두 살 위인가 그래서 이름이 박0레고 하니까 그래갖고 박0수 내용을 아니까 이제 그게 해명이 돼가지고 이복으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남쪽에 가서 그래 자기고 몇 년 살다가 숨어 살다가 몇 년 전에 사망 했어요.

\_ 그럼 그때 수산리 사셨어요?

예 그래갖고 모를 걸 신원조회가 자꾸 오는데 대상이 우리가 돼가지고 해명을 해가지고 알았죠. 그렇지 않음 잘 모르지.

구술자(할머니) 장귀동이는 그거를 몰라. 여기서 이 사람이 살았는 걸 몰라. 우린 나도 알면서 우리 고모인데 고모 언니들 동생들 얘기를 안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가슴에 세네 살 먹은 것들을 두고 고모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걸 왜하냐고.

원수의 동생이잖아 아버지 죽인 그.

구술자(할머니): 그거 알면 또 살인날까봐 그러잖아. 그거 찾지 못해 그랬는데 남자 동생 2,3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_ 이제 다 지나갔는데요 뭐.

구술자(할머니): 이제 나한테 그걸 그때 왜 얘기 안 해줬냐. 살인할라고 왜 알려줘.

그때 가르쳐줬으면 거기 저 박0레 그 동생한테서 큰 싸움 났겠지.

구술자(할머니): 싸움이 아니라 붙잡혀 그때는 빨갱이 그런 사람들

출세 못할 때잖아. 그래서 숨겨줘 버렸어 사람이.

그래도 정보는 박0례가 빨갱이 동생이라는 게 다 그게 정보가 다 리스트에 올라 있지. 그래서 그런 애들 공무원시험을 못 봤지 봤다 떨어지고 지금 농협에 다니지만.

구술자(할머니): 그래도 전방에서는 38선 부근에서는 그래도 민간인들이 철저했는데 후방에서 난리 쳤다는 거 보면 전방에서는 도리어 잘 지켰어요. 결사대도 있었고.

우리 문막 갔다 돌아오는데 피난 갔다가 그 아침하고 나가는데 해먹을 것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감자를 얻어다가 여기서 버리는 감자를 얻어다가 식전에 그걸 까서 쌀 좀 얻어서 식사하고서 있는데 보도연맹이라고 옛날에 조직이 있었죠.

\_ 아 여기 있었어요. 보도연맹이요?

여기도 여기까지 안 들어왔는데 두촌면까지 보도연맹을 조직해 있어서 그걸 이제 지금 여강원도는 원주 문막이 본부래요. 보도연맹이 그래 거기사람들 붙잡아다가 춘천 경찰서에다가 집어넣었었는데 그 사람들 죽이지 않고 다 내놓은 거예요. 내놓으니까 지방에 대번 나가서 활동한다 하고서 우리가 그걸 뭐야 6.25나서 거기까지 갔는데 지방에 간걸 여기서 특명을 내려서 다시 잡아두리라. 해가지고서 묶어다가 동네 골자기 있는데 가다가 죽었어요. 보도연맹들 여기서 경찰 춘천경찰서 내놔서 지방에 갔을 거 아니에요. 6.25 사변 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경찰이 원주 춘천은 늦게 갔지만 늦게 후퇴했잖아요. 그새 간 걸 다시 붙잡아갔고 마침 경찰들이 후퇴하면서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피난을 원주 문막에서 비두리라는데 갔는데 이북쪽 나갈라고 나가는데 아 그게 겁나더라고 마침 죽은 사람들이 단가에다 매고 오면서 어머니 마누라들 따라오면서 해방이 돼서 조금만 며칠 있으면 사는 건데 붙잡혀서 죽었다고 아 그러는데 몸서리 치더라고 거 보니까 빨갱이잖아요. 그리고 막 울고 들어오는데 그 막 거기로 가는 걸 봤죠.

- 그럼 여기는 보도연맹이 안 들어왔고?

여기까지는 조직이 안됐고.

- 흥천 어디까지?

흥천 두촌면까지 그때는 조직에서 두촌면 면장 하던 사람이 보도연맹에 가입 되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붙잡혀 들어갔던 다행히 주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분이 두촌면 면장 하다가 군수 하다가 화천군수까지 했는데요. 가입했던 사람이 그것도 그때 모르고 보도연맹이 뭔지 모르고 했는데 우두머리 공산당이었으니까 뭐도 모르고 한사람들이 있었고 그랬었지.

- 그래서 보도연맹들 다 경찰서에서 잡혀서 죽었다고요?

예 아주 거기서 아주 이 뭐야 거기 그렇게 많이 죽은걸 송장을 단가에 갔다가 하면서. 피난 나가는데 빨갱이 가족이구나 하는 게 대번 오잖아요. 그러니까 피난 가는 길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나절 돼서 도로 집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그 뒤로 알고 보니까 원주 문막에 보도연맹 본부가 있었어요. 그걸 알죠.

- 그래도 여기는 상당히 깨끗하게 보냈네요.

그럼요. 그래도 여기 동네사람도 빨갱이 내무서 요원 인민위원회 가입한 사람들 한 몇 명 죽었어요. 이 지방 사람도 몇 명 여자도 죽고.

- 어떻게 죽었는데요?

그 거기 인민위원회 조직했잖아요. 지금 말하면 충성한 사람들 뭐도 모르고 내무서 요원들 밥해주던 여자 골수분자들 형식적으로 가서 올라니까 할 수 없이 위원장 같은 사람들 껍데기로 있던 사람들은 살아나고 거기서 진짜 주모자들 이래라 저래라 일한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들어와서 동네사람들이.

- 동네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였어요?

들어와서 그때 손가락질 하면 저 새끼 빨갱이다 하면서 죽였으니까. 그렇게 여기서 대 여섯 명 죽었어요.

- 그건 누가 죽인 거예요?

들어와서 들어오게 되면 지방에서 이제 그 경찰서에다가 저놈이 빨갱이 동네에서 나쁜 빨갱이질 했다 그래서 붙잡아다가 그냥 너 일했지 하면 일했지 하면 빨갱이로 몰려서 다 우리 동창 친구의 작은아버지도 그렇게 죽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과부가 아주머니가 그것도 밥을 해줬단 말이야. 과부인데 붙잡혀서 죽었잖아. 거기다가 왜 과부들을 갖다가 봤을까.

구술자(할머니): 장0선이네 작은아버지들도 그걸로 죽었나?

아니야 그 사람들은 군인들한테 죽었어. 군인들한테 세 사람인가 죽었는데.

- 그럼 내무서원에 밥해주던 사람 다섯 명은 골수분자였네요.

골수분자지. 그 역할이 여자남자 한 다섯 명 됐지.

구술자(할머니): 6.25때 나오니까 해방 됐다고 아무것도 마음에도 없던 것들이 괜히 나와서 나중에 나대던 거 같애.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실 뻔 했는데 지방에서 대한 청년단 건설과장을 하니까. 그전에 여기 38선이 있었고 인제경찰서라고 두촌에 나와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여기 38선 위에 도로 인제가 생겼으니까 인제경찰서가 그리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랑은 이 옷이라고 인제경찰서가 들어가는데 뭐야 안 들어갈 수가 없냐고 그래서 그걸 따라 들어가셨어요. 그전에 지금 소양 댐 저쪽에 옛날 길이 저쪽으로 돌아갔어요. 글로 이게 뭐야 경찰 있고. 뭐 실탄 실고서 그전에 사발이 무슨 놓는 거 이런 거 하고 돌아가는 게 그 패잔병들 놈들이 산에서 오는 줄 알고 습격을 한 거야. 습격을 하니까 그제 일부는 차가 못 올라가니까 뒤따라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리아버지는 차 타셨대. 그런데 차가 이제 습격을 하고 들어가다 총 쏘니까 그제 어디로 가겠어요. 운전석에서 뛰어내려보니까 차가 굴렀지. 그러니까 짐차는 쏘아지니까 이제 두 바퀴 돌아가지고 현장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로리라는데 거기 물찬데 거기 글로 이제 막 건너뛰어서 그때 부상자가 한 30명 났나봐요. 그래갖고 그날따라 습격해서 연락이 왔다 이려고 해서 보니까 한 20리 되니까 우리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 돌아가신 줄 알았죠. 거 우리 작은아버지랑 모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찾으러 간다고.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가 신평리라는데 부대 있는 데로 내려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우차에 타고 오시는데 우르르해서 옷도 다 없어지고 아랫도리만 걸치고서 우차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도 안 맞았는데 그러다 마중 간 사람들은 그때 얘기해줬는데. 우리 작은아버지랑 거기서 오는 사람들 물에 빠지고 뭐 환자들 단가에다 메고 면사무소로 가느라 혼났어요. 비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다행히 부상도 안당하고 안 다치고. 그냥 물로 건너오는데 실탄이 막 쏘더라고. 그런데도 안 맞고 오셨어요. 그때 아마 죽은 사람도 불과 한 모르지만 한 10여명 되고 30명이 부상당했죠. 차에서 구르고 맞고 그런 사람들.

\_ 누가 죽은 줄은 모르죠?

경찰이 주로 많이 죽었지

\_ 결국은 인제 경찰도 못 들어온 거네요?

못 들어가고 도로 후퇴해갖고 최전방에 있었어요. 지서가 그냥 어론리에 지서 있고 두촌면엔 경찰서가 있고.

\_ 홍천군인데 인제 경찰서가 명목상.

명목상 경찰서가 두촌면에 주둔하고 있다가 6.25때 도로 들어간 거예요.

\_ 그 남면 면사무소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지금 115공병대대인가 거기 가면 지금 이제 국도가 다 났으니까. 그 도로가 면사무소지 위병소 바로 앞 그 부분 거기가 면소재지 지서가 있고 그래 거 지금 위병소 있는 데서부터 그 위로.

\_ 얼마나 있었어요?



20호가 더러 있었어요.

\_ 기간은?

거기 뭐야 6.25사변 전에 남면에 있었고 6.25후에는 여기보다 저 아래 신남거기가 좀 넓잖아요. 면소재지 수복되면서 거기가 이제 도로 그 지금 남면자리가 신남면이라고 홍천 남면이 있으니까 이쪽도 전부 속했잖아요. 그래 면이 생겨서 생길 때 신남리라고 그전에 인제군 남면이 있었는데 홍천군 신남면 그렇게 됐었지. 그랬다가 인제가 수복되니까 인제군 남면.

\_ 뭐 특별히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그리고 뭐 우리가 참 저 우리 할아버지가 앞에서 말씀한대로 선견지명이 계셔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제 6.25사변 후에도 거기는 해방되고 못나왔으면 뭐 할아버지가 그런 뭐 학식이 없었으면 거기서 그냥 밀림지대 여기보다 이제 버덩이 넓은데 거기는 개마고원이라고 평평한데 그런데 농토도 상당히 많죠. 곡식도 잘되는데 농사꾼이 거기서 인민군을 하다가 죽을지 모르는 데 그 당시 우리 뭐 18살 인민군을 다 나올 건데 할아버지가 다 정착해서 우리가 할아버지 때문에 여기 와서 잘 살고 있고. 우리 아내가 우리는 옛날에는 거 할아버지가 한학자고 그러니까 6.25 나도 6.25 그게 상당히 농후하죠. 처녀 때부터 있다가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집에 옴으로 해서 신앙을 바쳐서.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지금은 며느리들도 손주까지 예수를 믿게 돼서 우리는 다 아주 어려움 없이 자녀들이 어디 나가있어도 요새 애들 불량애들 있어갖고 뭐 부모님한테 지서에 오라 가라. 우리 조카 때문에 애들 가서 상당히 뭐 조카 좀 봐달라고 몇 번 불려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직속 애들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가족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 하죠.

\_ 고맙습니다.



## 5

## 구만리의 악몽



구술자	최광필
구술자 나이	82세(1926년생)
면담 주제	6.25전후의 인제 구만리와 구술자의 삶
면담 일자	2008. 12. 27
면담 장소	신남리 구술자의 집
면담자	이학주

구술자 최광필은 현재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정하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닐 뿐이다. 가을에 구술자를 만나서 민간인 피해조사를 하였다. 조사 당시 상당히 적극적이며, 한청으로 있을 당시의 개인적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었다. 구술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반갑게 맞았다.

한국전쟁전후 구만리(부평리)의 상황과 구술자가 알고 있는 민간인 피해 현황 및 한청원으로 군속이 되어 활동한 것에 대한 구술을 해주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구술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다. 6.25전쟁 전 러시아병사들과 미군병사의 상황, 그리고 우리 국군의 상황부터 1950년 6.25전쟁 전에 이미 남북이 작은 전투를 벌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런 전쟁의 틈바구니와 긴장 속에서 민간인이 살아온 내력도 알 수 있었고, 민간인의 피해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6.25전쟁이 나고 나서 한청으로 활동한 내력 및 군속으로 겪었던 삶의 모습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다시는 6.25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절실하게 느꼈다.

## “구만리의 악몽”

\_ 건강은, 병원 갔다 오셨다더니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허리가 아파서.

\_ 허리가요.

\_ 어르신 성함이 최자 광자 필자 되시지요?

예, 최광필이에요. 최광필.

\_ 본관은 어디세요?

전주예요.

\_ 아 전주, 전주 최씨.

\_ 그 집안은 옛날 대대로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아 원래 여기 토박인데 뭐. 8대조가 여기 사셨는데요.

\_ 여기서 8대조가요.

여기 구만리라는데 산소가 있어요.

\_ 구만리요. 거기가 관대리 구만리인가요.

관대리는 이북이고. 관대리라는 데가 그전에 관대리가 옛날에는 그 초등학교가 있고 지서가 있고 거 면소재지가 있었어요. 거 구만리라는 데가 관대리 건너에 있는 곳이에요. 관대리는 전부 소련이 인민군들이 다니고 소양강이 이렇게 돼서 소양강 있잖아 거기에 우리네가 살고 그랬지요.

\_ 아. 거기가 바로 38선 경계로 두고.

아 그럼 아주 경계지요. 구만리 한 집은 아랫방은 이북이고 윗방은

이남이었어. 뒷마루를 이렇게 두고.

\_ 그러면 그곳에서 대대로 살았어요. 8대를.

아주 그럼요.

\_ 부모님은 뭐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야 농사꾼이지요. 농사지었어요.

\_ 그럼 학교는 부모님은 어디 다니셨어요.

우리 아버지 학교는 어디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관대리 그때 국민학교지 그래 2학년 다니다가 말았지 뭐.

\_ 아버지 성품은 좋으셨지요.

예, 그럼요. 다 좋아요. 우리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아 뭐.

\_ 형제들은 어떻게 되세요.

형제는 6남매예요.

\_ 그럼 몇 남 몇 녀.

우리가 3남 3녀예요. 그러니 서이 서이야. 그 중에 내가 제일 맏인데 지금 그냥 다 살아 있어요.

\_ 그렇지요. 요 앞에 계신 그.

광운이.

\_ 최광운 씨.

내 남동생.

\_ 형제들은 학교에 어떻게 다니셨어요.

학교는, 광운이는 못 다니고, 광천이라고 그저 대항리에 관립이라고 있어요. 관립. 대항리에 관립이 있거든요. 내 막내 동생은 부평국민 학교 졸업했지요.

\_ 예, 부평국민학교요. 그 전에 부평리까지는 멀지 않았어요.

아이 그때는 전체가 여기 사람이 관대리 국민학교 다니고, 어론 관립

에 또 학교가 있었어. 어른.

\_ 어른리에요.

아 어른리에. 그리고 신월리가 신월리 관렵이 있었고.

\_ 아 신월리에도요. 예. 다들 결혼 하셔서 이제 잘 살고 계시지요.

아 그럼요.

\_ 그때 사실 때 가정형편은 어떠셨어요.

우리요. 가정이야 뭐, 농사꾼인데 그렇지요. 그저 밥이나 굶지 않을 정도였지요. 내 농토 갖고 농사 지어 먹으니까요.

\_ 그사시면서 뭐 연좌제라던가 이런 거 하고는 상관없이 없으셨지요.

예.

\_ 연좌제. 인민군하고 관련되고 이런 거는 없었지요.

그런 건 없지요. 집을 그러니까는 하여튼 구만리 남쪽으로는 빨갱이라는 것은 없었어. 가들 만날 허구 다니는 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 없었어요.

\_ 그러면 어르신은 관대리에 사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관대리에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만리에 살았는데 관대리가 이북인데 일정 때 관대리 국민학교에 다녔다는 이거야. 관대리가 저저저 자울 앞으로 배를 지나 다녔어. 배를. 배를, 차를, 그러니까 왜정 때 아침에 한 대 낮에 한 대 저녁에 한 대 밖에 안 다녔어 배차 배차.

\_ 아 배차가요.

차에 다니는 그 차배는 또 달라요. 차는 차배로 다니고, 사람은 사람 배로 다니고.

\_ 거기 정확한 마을 명칭이 뭐예요.

아 어디가.

- \_ 거 구만리라는 곳ियो. 무슨 리였어요.  
그냥 리지. 구만리.
- \_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럼 물바다지. 지금은.
- \_ 물바다가 됐구나.  
아이 전부 물에 잠겼어요.
- \_ 구만리가.  
구만리 하고요 아래 큰지라고 거기도 천석지기가 있었어. 들이 넓어  
요. 다 물 찼지요. 그래 가지고 여느 고개로 안 넘어가고 여기로 내가  
왔지.
- \_ 그럼 여기로 이사를 온 지가 그럼 소양강댐이 되면서.  
여기 이사 온 지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우리 큰 아들 가를 여기  
서 낳아서 와서 우리 손주가 지금 서른넷인가 그럴 거예요. 증손주도  
있고 뭐. 내 아들은 춘천 살아요. 여기 온 지도 오래됐지요 뭐.
- \_ 그때 그 마을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그 구만리에.  
아주 좋았지요. 45가구가 한 곳에 살았어요.
- \_ 45가구가.  
그렇지요. 꼭 마흔다섯 집이 살았는데, 아주 동그랗게 뭉쳐서 아래윗  
집이. 참 좋았지요. 아주 인심도 좋고.
- \_ 그때 지주도 있고, 그 땅 가진 사람.  
아, 그런 건 없지요.
- \_ 다 자기 땅으로.  
한 그저 천 평 이천 평 그렇게 갖고. 구만리가 일부는 이북 땅이고 일  
부는 이남 땅이거든. 그런데 로스키(러시아)놈들이 거기를 오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놈들이 처음에 거기 천왕봉이러는데 올라가서  
지키고 그러더니 구만리로 점령해서 들어왔어요.



\_ 그 로스키. 러시아 사람들이.

그럼요. 로스키가 그 로스키 한테도 몇 번 붙잡혀 갔다 왔어 내가. 아 이 농사지으려고 이쪽에 건너갔다 건너오면 붙잡아. 그 왜 붙잡나 하면 술 얻어먹으려고 붙잡아.

\_ 아하.

무슨 사상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고.

\_ 술 얻어먹으려고.

그럼. 저 신월리 신월리지 신월리 강대구네 집이라고 집이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 로스키놈들의 중대본부야. 거기에 가서 하룻밤씩 자면. 놀래 붙잡혀만 가면 동네 사람들이 막걸리 한 닷 되씩 주고 사정을 하면 같이 넘어와.

\_ 아 막걸리 얻어먹으려고, 러시아놈들이 잡아 가고 그랬군요.

그리고 미군들은요. 우리 그저 애들이 아니요. 뭐 참 곁에 가면 아주 곁에도 못 있게 하고 가라고 막 내리 밀고 이랬어요. 로스키는 그러지 않아. 아이들이 가면 총도 쏘보라고 그러고 따발총을 쏘보라고 그래요.

\_ 그러면 거기 38선을 기점으로 이북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있었고, 이남에는 미군들이 있었고.

그렇지요. 이남에는 미군놈들이 곤제또(함석으로 만든 둥그런 막사)를 크게 쳐놓고 거기 와 있었지요.

\_ 막사를 크게 지어 놓고요.

곤제또. 곤제또. 함석으로 이렇게 둥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세 동인가.

\_ 아 곤제또를 세 동이나 쳐놓고요. 무슨 행패 같은 것은 부리지 않았어요. 마을에 아니요.

\_ 행패가 없었어요.

뭐 우리가 아프면 약 갖다 주고.

- \_ 약 갖다 주고 그랬어요.  
가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을 곁을 안 쫓아.
- \_ 정을 안 줬구나.  
그럼. 그래 우리 구만리 앞에 베횃가소라고 있어요. 가들이 여름철에  
는 목욕을 해요. 미군들이.
- \_ 그럼 그 물가에서.  
그렇지요. 베횃가소라고 물이 깊어요.
- \_ 베횃가소요.  
베횃가소.
- \_ 아 베횃가소.  
아 검둥이하고 흰둥이 하고 목욕을 하는데, 아주머니들은 거 얼씬도  
못하지 뭐.
- \_ 발가벗고.  
발가벗고 한테 어울려서 해요. 우리도 거기서 나가 참 많이 보고 그  
랬지요. 그리고 그놈들 아이 그 사람들도 다 그래요.
- \_ 구만리에는 어떤 성씨가 많이 살았어요.  
전부 각성바지가 많이 살았지요.
- \_ 아 다 각성바지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 씨네 몇 집 살고 우리네랑 두 집이 살고 김 씨네도 살  
고 뭐 박 씨도 살고 이 씨도 살고 다 각성바지가 살았어요. 그래 인심  
이 좋았어요.
- \_ 일제 때는 어땠어요.  
일제 때 왜정 때부터 살았어요. 왜정 때. 나는 거기서 나서 거기서 살  
았어요. 여기가 원칙이 바릿고개야 여기가 원칙이 신남이 아니야. 여  
기 그 전에 전부 밭인데 밭에 나무가 이런 게 있고 맨 이런 게 돌 같  
은 게 있고 그랬어. 그래 관대리 면소재지가 관대리 있다가 면소재지

가 지금 신남이니까 남면 소재지가 없어졌잖아요. 어른으로 갔었어.

\_ 어른으로요.

어른으로 갔다가.

\_ 그럼 관대리 있다가 어른으로 갔네요.

그렇지요. 어른으로 갔다가 너무 외지다 이래가지고 열로 온 거예요.  
신남으로.

\_ 아 그래 다시 신남으로 온 거예요. 그럼 어른으로 갔을 때는 언제였어요.

그게 6.25사변 전에 갔었지요.

\_ 전에 갔다가.

관대리가 38선이 막히고 면소재지가 없어지니까.

\_ 아 38선이 막혀서.

관대리도 내 다 알지 뭐. 제일 첫머리에 양조장 그 다음에 내려와서  
면사무소 그 다음에 내려와서 주재소 이렇게 내 그리래도 다 그래.  
우리 그 살았을 때 배만 타면 건너갔다 왔는데 뭐. 한 십 리 되지. 우  
리 사는 데서.

\_ 그동안 여기 징용 끌려가고 그런 사람 없었어요.

아이고 왜요 많이 있었지요.

\_ 어떤 분들이 징용 끌려갔어요.

그 사람들 갔다가 못 온 사람도 많아요.

\_ 못 온 사람도요.

거 뭐 남양군도도 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군인 누구는  
일본군인 갔다 온 사람이거든. 그때에 일본 연성소라는 데가 있었어.  
학교에. 그 총 목총 깎아가지고서는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서는.

\_ 아 연금소요.

연성소.

\_ 아 연성소.

예 연성소.

\_ 연성소가 정확히 어떤 곳인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학교 다니기가 좀 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서는 군사훈련을 가리켰어요.

\_ 아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켰다고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데려갔지. 군인으로 보냈지.

\_ 아 그래서 징용으로 끌고 갔어요.

징용이 아니라 군인으로 갔지. 군인 한 사람 갔다 왔지 여기. 근해라고 장근해라고.

\_ 일본군인으로요.

그렇지요. 근해 성 근희라고 그 양반은 보급대로 잡혀가서 저 남양군도까지 갔었어요.

\_ 아 보급대로. 보급대는 어떤 건데요.

보급대는 그러니까. 가서 무슨 그러니까 군인들 뒤 봐주는 거지.

\_ 아 군인들 뒤 봐주는 거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탄광 같은데 가서 탄 캐다 주고 그저. 아 일정 때 왜 전부 아이 성까지 다 갈았는데 뭐. 말해 뭐해. 여기 일본놈이 갔지. 아이 말해 뭘 하우.

\_ 그 해방직후에는 이렇게 38선을 경계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38선을 왔다갔다하고 그랬나요.

못했지요. 어떻게 해요. 저 관대리나 그때 뭐 일가가 있어도 그저 몰래 저 소양강이 물이 많아요. 물이 지금은 전부 소양강댐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고 옛날엔 거 우렁바위께 물 어울려서 내려가는 데 다 있거든 뭐. 글로다가 인제 제 일가친척이 밤이면 거 그때는 인민군이

아니고 자위대인가 그럴 거야.

\_ 자위대요.

예 자위대. 그러니 경찰이나 한가지지. 아무튼 눈에만 띄면 붙잡혀 가는 거예요. 혼나지.

\_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때는 뭐냐 하면 증거가 없어요. 저쪽 이북 사람들 증거가 없고. 그러니 넘어가면 그 사람들 눈에만 안 띄면 그야 거기 사람이나 똑 같은 사람인데 뭘 아냐. 그러니 넘어가서 인제 친척집에서 며칠 놀다가 넘어올 적에나 넘어갈 적에나 그때나 안 붙잡히면 관련을 안 받지요. 나는 뭐 넘어가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했구먼.

\_ 거 나중에 전쟁이 막 이렇게 붙잖아요. 전쟁이 붙을 때 인민군이 밀고 넘어오기도 했었지요.

6.25때가 여기가 관대리 뒷산이고, 앞에는 소양강이 요렇게 흘러가고 관대리 뒷산이 높아요. 관대리 산이. 그리고 600고지라고 있는 데가 말이 600고지지 않아요. 거기가 우리 산이에요. 거기에 인제 제일 처음에는 경찰이 와 있었어.

\_ 경찰이 600고지에.

600고지에. 경찰이 한 닷새 와 있었고, 가네들도 자위대가 뭐 무슨 거기야. 그러니깐 여기 681고지 거기는 춘천 7연대가 와 있었고.

\_ 681고지에.

그리고 600고지하고 704고지에는 8연대가 와 있었고 그래요.

\_ 8연대. 국군 8연대.

그럼요. 그래 와 있으면서 거기 밤낮 여기 한창들 참 무섭게 군인네들 다 쫓아요. 밥 저 올려주고 아침에 저 올려주고 거기 가서 밤에 또 군인들과 같이 보초서고 웬만한 사람은 총 못 쏘는 사람들이 없었어. 그래서 무기 심부름까지 다 했지. 아이고 여기 사람들 큰 고생 했어요.

- 그러면 마을에는 빨갱이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없지요. 전부 경찰들이 와서 있잖아. 우리가 그땐 전부 이런 게 꺼먼 옷이 베적삼이나 겨울이면 바지저고리에 물을 들여 새까맣게 물을 들여 가지고 목총을 깎아가지고 군인들이 나가서 보초 서라는 거야. 그러니 마을에 38선 38선이 강이야 강 여기다 갖다 막아서 무슨 의지 하고 이렇게 있다가 뭘 쥐가 바스락하면 막 경찰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 우리들이 목숨 내걸었지요. 그러면 와서 저기 버석버석하고 그랬다면 아이 경찰이 M1총이나 딱콩총이나 그랬을 거야. 거 구구식. 구구식 갖고 한 두 방 펑펑 쏘다가 “아무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그러니 경찰이 한 두 사람도 무서워서 저런 너머에 와서 숨어 있는 거지. 아이 동네 한청들만 나가서 보초를 선거지. 그때는.

- 한청은 어떻게 보초를 섰어요.

한청에도 한청 단장이 있고 거기도 감찰계가 있고 다 있었어요. 그래 조직을 해가지고.

- 그러면 구만리의 단장은 누구였어요.

구만리의 단장은 김해성이라고.

- 김해성.

김해성이라고 단장이었는데. 그 사람도 이젠 나이가 많아서 다 죽었어요.

- 그당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요.

아 해성이가 살았으면 지금 팔십 여덟이나 아홉 똬을 거예요. 아이고 그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 한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청들이 모자라잖아 그럼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는 몇 사람 안 되어 모자라면 그러면 저 흥천에서 막 불러들여요. 그래 와 보초 서지.

- 아 한청이 모자라면 흥천에 있는 사람들을 막 불러들여가지고 보초 서게 했어요.

그럼 막 불러들여서 보초 서게 하지요.

\_ 보초만 썼어요.

밥 저 올리고. 군인들 밥 저 올려 줘야지. 취사반은 마을에 있어서 아 침저녁으로 밥을 저 올려 줘야 해요.

\_ 어르신도 한청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난 감찰계에 있었어요.

\_ 감찰계. 한청 감찰계. 아 그러면 한청도 나뉘져 있었나요.

그러니까 감찰계가 한청을 지시하는 거지.

\_ 아 감찰계가 한청을 지시하는 곳이에요. 거 정확한 역할이 어떻게 되었어요. 감찰계가. 뭐 그렇게 있다가. 6.25나던 날 아침에는 관대리 뒷산에서 이런 불덩 이가 건너와요. 모르지 처음 봤을 때는 그런 걸. 그 불덩이를 처음 봤 으니까. 불덩이가 동이 덩이 같은 게 이렇게 건너와요. 거 600고지 앞에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이상하다고. 그게 뭐 새벽에 났잖아요. 새벽에. 구만리라는 데가 거 여기서 내려가면 구렁이 이렇게 돼 있는 데 나빠요. 피란 나오기가. 그래 비력가소라는 데를 마구 나왔지요. 막. 안개가 그냥 꼭 내리쬘어. 안개가 뭐 꼭 내려서 곁에 사람도 몰라. 깜깜해서.

\_ 거 6.25 당일 날.

6.25날 아침에. 그래 사뭇 놀래 뛰었는데 뭐. 인민군하고 같이 나간 거지 뭐. 인민군들 하고 같이. 그래 저 어디야 건너고개를 나갔나 장 남으로 내려갔어. 그래 인민군들이 어디 가냐고 그러면. 피난 간다고 그러고. 막 나가는 거야. 막. 무슨 말 구르마 하고, 말 구루마에다 포 같은 것을 막 끌고 가고 그랬어요.

\_ 인민군들이.

그래 막 뛰어 밀고 나갔지. 뭐. 군인들은 어디로 내 뺏는지 군인들이 야 뭐 구경이나 했나.

\_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후퇴해서 나갔지 뭐. 아이고 그래 가지고 전쟁 내내 군인들 따라 다녔어. 좌우간에.

\_ 6.25전에도 전쟁을 하지 않았나요.

했지요. 했어요.

\_ 언제요.

했는데, 큰 전쟁은 아니지요. 그저 자들이 고지서 소리를 지르고 해. 뭐 밥 먹었냐 하면 이러면 밥 먹었다고 하고. 다 들리지요 뭐. 그러니 단지 강을 하나 사이에 뒀으니깐요. 그러다가 총을 뽕뽕 쏘고 이러지 뭐. 우리 할아버지가 낚시질을 좋아해요. 그래 이 피딩머리라는데 그 아랫목하고 윗목하고 이렇게 비슷한데. 홍구 할아버지랑 그 양반 이랑 둘이 나란히 앉아서 낚시질을 하다가 그래 무단히 여느 때는 안 그랬는데. 무단히 총을 내리 쏘대요.

\_ 낚시요.

이래 내리 쏘대요. 두 명 앞에다가. 그래서 홍구 할아버지는 여기 허리를 관통했어.

\_ 할아버지가요.

그럼요. 여기 관통해서 눌러 넘어졌잖아요. 거 거둬 총을 내리 쏘니까는 아주 인제 기어가지고 옥시기 밭으로 해가지고 집으로 왔다고. 여 노인네가 뭐 물에 다리가 빠져 건지려다가 그 담에 죽었어요. 가들이 이놈의 새끼들이 번쩍하면 낮이고 아침이고 총을 내리 쏘요. 밤에 그 집 손주들이 밤에 가서 시체를 가지고 와서 갖다가 저 구렁이도 못하고 소탕이 소탕이에 갖다가 집을 또 짓지도 못하고 로스키놈들 때문에 소탕이다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슬꺼정 해놓고 쫓겨나갔지요. 7월달 사변에.

\_ 소탕이라는 곳에.

소탕이는 동네예요.



- \_ 소텡이라는 동네에다가.  
예.
- \_ 그럼 가매장을 한 거예요.  
지금은 다 물에 차서 지금 뭐.
- \_ 가매장을 해서.  
그래 거기다 해 놓았다가.
- \_ 그럼 거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응규 씨네.
- \_ 아김 자응자규자.  
예. 김응규 씨.
- \_ 그당시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 많지요 뭐. 많아요. 우리 할아버지 나이는 됐는데. 많아요.
- \_ 그럼 예순 일흔 예순 정도.  
그때 한 칠십 정도 됐어요.
- \_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소텡이에 갔다가 7월달 사변 끝난 다음에 와서 끌어다 묻었지.
- \_ 아 농사지셨고.  
농사꾼이에요.
- \_ 자손들도 많았겠네요.  
아 그때는 많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다 사망되고 뭐.
- \_ 그당시 자손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는 창륙이, 창병이 형제가 여러 형젠데 많아요. 그러니 낮에는 꿈쩍 못하고 밤에 가서 지 아버지 끌어다가 구만리는 못 들어오고 완전히 또 못 들어가요. 그때는 전부 다 소텡이에 갔다가 이렇게 나

무 우리를 꾸리고.

\_ 음막처럼 지었어요.

그러니 집은 구만리 좋게 해놓고. 거기 뭐 전부 소련놈들이 와 주둔하고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여기 사는데 여기 뭐.

\_ 그러면 6.25전에 거 사건으로 왔다 갔다한 것이 있었고, 낚시하는 사람 총으로 쫓고, 그 정도 밖에 없었어요.

그러고는 뭐 심심하면 서로 총질하고 막 총질하고 그랬지요.

\_ 여기 신남에는 7월 사변이라고 해서 유명한 것이 있었다면서요. 신남에요.

7월 달에. 7월 달에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_ 7월 달 사변은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러니 제일 첫 번에 구만리 사람들은 이런 꺼먼 걸 입고 못 땡겼어. 들어갈 적에, 저런 허연 바지저고리 같은 것을 입고 있으면 가들이 총을 안 쏘요. 소련놈들은 총을 쏜다고 우리를 뭐. 그래 뭐 구만리라는 동네가 집은 이렇게 있어도 소는 이쪽 건네 있거든 이쪽 건네로.

\_ 농토가.

그래서 왔다갔다 건네 다녔지요. 소련군을 건너보고. 나중에는 하얗게 있으면 안 쏘. 나중에 시커먼 옷을 입으면 막 쏘요. 그래서 구만리 들어가지 못하고 소텡이에 살았지요.

\_ 그 소텡이라는 곳은 구만리 바로 옆이었어요.

아이 요 앞에 요 아래 골짜구니.

\_ 아 올라와 가지고.

골짜구니가 집도 없었는데 개울창으로 내려오면서 전부 마을이 됐지 뭐.

\_ 한청 말고도 다른 단체가 있었지요.

결사대라고 있었지요.

\_ 결사대는 어떻게 조직 됐어요.

모르지 나는 결사대에 들지 않아서.

\_ 들지 않아서요.

한청 감찰계에 있어가지고. 여기 사람들은 아주 뭐 군인이나 똑같이 살았어요.

\_ 감찰계는 주로 어떤 일을 했나요.

그러니까 한청들 같이 밥 지고 가는데 같이 다니고, 그 사람들 여기 사정을 잘 모르거든 그러니 길 가리켜 주고.

\_ 아길 가리켜 주고.

저 뭐 7연대 춘천도 같이 가주고.

\_ 그러면 감찰계는 군인은 아니었고요.

아니지 그냥 다 같은 한청원이야.

\_ 아 같은 한청원인데 인제 그런 역할을 했군요.

그러니까 말로 감찰을 한다고 그래 해놓고 그랬지요.

\_ 그럼 결사대 있었고 한청이 있었고.

그것 밖에 없었지요.

\_ 아 그것 밖에 없었어요.

나 알기에는 그것 밖에 없었어. 결사대는 하여튼 아주 복장을 해 입고 막 전투를 했어. 그 사람들은.

\_ 해방직후 이 마을에 이름 난 사람은 어떤 분이 있었어요. 마을을 이끌어 가던 사람. 없어요. 다 똑 같았지.

\_ 그당시 다 똑 같았어요.

그럼요. 아주 뭐 참 좋았어요. 구만리 사람들이. 마을 바깥에 이렇게 버드나무가 뽕 둘러쳐져 있고 아주 먼데서는 잘 보이지를 않지요. 마을이. 아 참 좋았어. 구만리.

\_ 그게 다 물에 잠겨 버렸어요.

그럼요. 소양강댐 막는 바람에.

\_ 그러면 동네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주 다 없어졌어. 싹없어 졌어. 그 위에까지 물이 찾는데.

\_ 지명도 다 없어지고 말았네요.

있겠지요. 거 뭐 구룡마을이니 무슨.

\_ 물속에.

우리 같은 사람은 다 물속에 있으니까는 뭐 젊은 사람은 모르지요 뭐.  
관대리 무슨 신월리 무슨 신월리도 일부 남아있으니까. 물이 차고 그  
렇지요.

\_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없나요.

아 글썤 호병이 같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지.

\_ 김호병요.

김호병.

\_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82이지요.

\_ 스물넷정도.

예. 저 김인순이도 그렇고.

\_ 남자였고 결혼하셨지요.

그럼요. 딸 하나씩 다 낳았어요.

\_ 딸이 하나씩 있었어요.

다 둘 다.

\_ 그럼 딸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이 뭐 딸은 남의 집에 갔지 뭐.

\_ 그럼 누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인순이는 제 큰집에서 컸고, 호병이는 아 호병이 딸은 누가 키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어머니가 데리고 다니다가 제 어머니가 시집갔어요.

\_ 아제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시집갔군요.

제 어머니가 시집갔으니까.

\_ 그럼 딸은 놔두고.

딸을 데려갔지.

\_ 아 딸을 데리고 갔어요.

아 그럼 거 누가 키워. 딸을. 호병이도 딸 하나 있었는데 딸이.

\_ 살던 곳은 호병 씨는 부평리라고 그랬나요.

부평리 모르박 질퓏거리라는 데예요. 그 동네가.

\_ 모르박 질퓏거리. 괴비덕이라는 곳은.

괴비덕이는 그 앞에 산.

\_ 그 앞에 산이라고요.

그 앞에 산인데 거 올라가면 세 집이 살았는데 넓어요. 거기도. 거기 넘어 아홉구비라는데 거기 넘어가 피란하다가 내려 온 거야.

\_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지요.

인민군한테 붙잡혀 갔다니까.

\_ 아 인민군요.

아이고 내가 본걸 뭐. 내가 내 눈으로

\_ 아 보셨어요.

그럼요.

\_ 그럼 목격을 하셨네요.

그럼요. 인순이하고 다 같이 그랬는데 뭐.

\_ 잡혀 갈 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상황이 그렇지 뭐. 그때도 우리네도 총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 한청원들도 총을 가지고 있었어. 다. 자들을 조준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다리를 맞았어. 이 다리를 관통을 했는데. 그래 우리는 다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가는 붙잡혔지.

\_ 아 총에 다리를 맞는 바람에 도망을 못가고 잡혀 버렸어요.

붙잡혀 갔는데 다 죽었겠지 뭐. 살았겠어요.

\_ 그럼 누구 총에 맞은 거예요.

그 인민군 아들 총에.

\_ 아 인민군 총예요.

아주 뭐 새카맣게 때를 지어서 내려오는데 뭐.

\_ 인민군이요. 그럼 한청에 소속되어 있다가 거 보초를 서는데 인민군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았는데 붙잡혀 갔다고요.

그렇지요 뭐.

\_ 붙잡혀 가고 나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나요.

모르지 뭐. 우리는 몰라. 아마 데려가서 죽였겠지 뭐. 그래가지고는 부평에. 아이고 년도가 하도 오래돼서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 우리 아군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는 솔문(소나무를 베어서 문을 만든 것을 말한다. 환영의 뜻을 나타냄.)을 해 세웠어. 우리가 신작로 주변에다가. 솔문을 이렇게 세웠는데.

\_ 솔문을.

예 솔문을.

\_ 소나무를 갖고 이렇게 만든 것을.

예 이제 환영한다고. 환영한다고. 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보초를 세웠는데. 남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무섭지 이북에서는 나오지도 않거든. 인민군들이 전부 나갔다 후퇴해 들어가는 것을. 아 그런데 여

기 시커멓게 내려오는 거야. 아 모두 그래 숨었다가 신작로 옆에 납작 엎드렸지. 아 그런데 야들이 후퇴해 가는데 막가요. 아 술문을 해 세웠는데도 막 가더군. 그러니 어려운데도 보초를 썼어. 보초를 서는데. 인민군 하나를 붙잡았어요. 그걸 누가 붙잡았나 하면 최종규야가 이름이.

\_ 최종규라는 사람이 인민군을 잡은 거죠.

나하고 둘이 나가 서는데. 딱 데로 안서고 이젠 이제 이런 집이. 스무날이 아이고 10월 달이면 추워요. 음력 10월 달이면. 화로를 그 집에서 달라고 해서 화롯불을 이렇게 놓고서는 아이 이래가지고 불을 쪼는데 한 사람은 이래 앉아서 옆드리고 여 앉았는데 뭐 이상한 기분이 이상해 이렇게 보니까 그래 옆드려있는데 총을 번쩍 들고 들어와 그래서 인민군이 가는 것을 총을 들이대고 붙잡았지. 이 구두를 벗어서 양쪽 주머니에다 넣고 여기만 지나가면 살거든. 아 이제 뭐야 사방구리 거 뭐 38선만 넘어가면 살아 가들은. 붙잡아 가지고서는 인민군 장총을 가지고 총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놈을 그 사람이 한 오십 살 되겠더라고 새까매 가지고. 그리고 수류탄 한 발도 있고. 붙잡아다가 한창 집무실에 와서. 그때만 해도 참 미련해. 그 감찰계장이 야 이놈 죽여 버린다고. 강원도 안변이예요. 안변도 강원도잖아요. 안변 강원도 안변 사람인데. 나는 한 번도 싸워 보지도 못하고 저 낙동강까지 갔다가 그냥 군인들 구경도 못하고 여기로 들어오는 길이라고. 그래 말이 옳지 뭐 그게 줄병이 뭐를 알아. 아 그래 붙잡아 가지고서는 이제 거 어른에 있는 경찰관서가 있었거든. 어른. 그때 붙잡아 가지고 거기를 데려가 가지고. 발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른에. 발골에 가서 총살시키겠구나.

\_ 아 인민군을.

예. 총살시켜요. 가들이. 아주 막 사람 죽는 것은 그저 강아지 새끼 죽이는 것 같아요.

\_ 경찰이 인민군을 죽인 거예요.

그럼 경찰이지. 아 그러면 경찰관이. 이 우리 집은 산 밑이야. 아 그 쪽에다 대고 자꾸 소리를 질러. 그러면서 건너오라고. 그때 안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건너갔지. 건너가니까 경찰관들이 서라고 하고는 삼을 하나씩 주더라고.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지. 그리고 따라 오라고 해. 따라 그 계양봉대라고 있어요. 계양봉대. 거기 나가니까 여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전부 인민군이야 아래위로 그저 의용군으로 붙잡혀 갔다가 오고 무슨 그 여자도 거 뭐 이북에 들어갔다 오는 것을 붙잡 았대. 그래서 줄리리(한 줄로) 이렇게 세워 가지고 가들 보고서 땅 구 덩이를 파라고 해. 지 땅 구덩이를 지가 이렇게 파지. 이렇게 세워놓 고 한 줄로다가 내리 썼어요. 한 줄로다가.

\_ 어디서 그랬어요.

여 모래밭에서 그랬지 뭐.

\_ 모래밭에서. 인민군을 죽인 거예요.

인민군이 아니라. 그땐 의용군이지.

\_ 의용군. 누가 죽였어요.

경찰들이지.

\_ 경찰들이. 잡아가지고.

그럼.

\_ 땅 구덩이 파라 해 놓고.

땅 구덩이 파라 해놓고 냅다 싸 죽인 거지. 그대로 막 고꾸라지는 거 지. 그러면 죽인 놈을 우리가 끌어 물어준 거지.

\_ 아 끌어 물어줬다고.

그런데 그게 전부 개울에 들어가 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서 흘렁 파 나갔어.

\_ 아 물이 흘러가서 다 파갔구나.

아니 빠다귀나 마나 다 아주 그대로 흘렁 파 가지고 갔지.



-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6.25사변 전이지. 7월 달 그 난리에 그랬으니.
- 아 1949년 7월 달 사변이라고요.  
예 7월 달.
- 의용군들 잡아가지고 경찰들이 구덩이를 파고.  
총으로다가. 하여튼 묻었어. 내가 직접으로다가 파묻었다고. 삽을 들고 파묻었다고. 아이고.
- 그때 몇 명이나 죽었어요. 의용군이.  
한 여섯 명.
- 여섯 명요.  
여자가 둘인가 되고. 아이고 참.
- 여자가 두 명이고 나머지는 네 명은 남자고.  
예. 거 뭐 밤이니까. 총으로 쏘 죽이니.
- 밤에.  
밤에 그랬지. 밤에.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그랬지. 그 이듬해인가 물이 개락이 나서 다 쓸려갔지.
- 여름이겠네. 물이 개락이 나가지고.  
예. 아이고 뭐 사람 죽은 거 말도 말아요. 내가 18연대 백골부대 따라 다녔거든. 그때 여 위에 라학배하고 1년 반을 따라 다녔어요. 군속으로.
- 그 라학배 할아버지 하고 둘이서 어느 부대를 따라 다녔어요.  
백골부대 18연대 2대대 8중대. 거 70mm 박격포 실탄을 지고 다녔지.
- 아 실탄을 지고 다녔어요.  
양구의 해안고지 같은데 아이고 내가 무지무지 했어요. 거기서 하고. 그러다가 경상도 안중 거 춘양으로 가서 춘양에서 다니다가 (?) 거기 가서 사뭇 전진하라고 백골부대. 아이고 그래 가지고는 보내주었어

요. 보내더라고 집으로 그래 와가지고는 놀래 군인 가라고 해서 군인 갔다 왔지.

\_ 아 그러면 한청에 있으면서.

한청이나마나 그저 군속이지.

\_ 군속으로.

군속이지. 그때 현역 입대하라고 하더라고요. 입대 시켜주겠다고. 현역 입대하면 금방 죽는 걸 해. 그 한청으로 따라 다니는 것이 낫지. 그래 가지고선 집으로 보내 주기에 집에 와서 군에 들어가서 제주도 가서 훈련 받고 2사단에 떨어져 가지고는 고생을 했지.

\_ 그건 전쟁이 끝났을 때지요.

끝났지요. 2사단에 있다가 3군단에 와서 제대를 했지. 내가 재수가 좋아서 아는 사람이 저기 저 병사들 있는 것을 그 사람이 3군단에 끌어줘 가지고서 거기서 제대를 했지.

\_ 거 김인순이라는 분은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나하고 동갑이지.

\_ 그 당시 24살쯤 됐고. 역시 결혼했는데 딸이 하나 있고. 그 딸은 누가 키웠다고요.

큰집에서 키웠지. 부평 큰집에서.

\_ 큰집에서요. 아.

\_ 그럼 그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시집갔지 뭐. 개가를 해서.

\_ 아 개가를 해서요. 거 김인순이란 사람은 어떻게 행방불명 됐어요.

그때 같이 있었지요. 포탄지고 같이 다니다가 중공군이 덮치는 바람에.

\_ 한청에 소속돼 가지고.

아니지 한청이 아니라 군속이지 군속. 같이 이렇게 있다가 우린 중공군이 덮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붙잡혀 갔지요.

\_ 중공군이 많이 왔어요.

아이고 엄청나게 들어왔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저 경상도 춘양까지 나갔다가 그래 막 전진할 때 들어왔어요. 원주 문막으로 해 가지고 원주 치악산으로 그리고 오대산 월정사 그리로 오대산으로 해서 아이고.

\_ 그러면 김인순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중공군한테 잡혀 갔어요.

여기 머구네미. 여기. 머구네미야 머구네미.

\_ 정자리.

정자리 머구네미.

\_ 그때가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6.25나고 저 함경도인가 들어갔다가 후퇴해 나왔어요. 나오면서 붙잡혀 들어갔거든.

\_ 그러면 6.25나고 그 이듬해.

6.25나고 그 이듬해지.

\_ 몇 월 달이에요.

그해 그러니 나올 적에 그때 11월이에요. 나는 이제 넘어가야 한다니까. 군인들이 다 넘어갔지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또 넘어 갔지요. 아이고 넘어가는데 사무라치고개에 사람이 그냥 인민군들이 뭐 소하고 말하고 같이 자빠져 죽었는데 논바닥에. 아이고. 많이 죽었어요.

\_ 삼마치 고개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에 많이 죽었어요. 거서. 논바닥에서.

\_ 논바닥에서.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니 막 전쟁을 하다가. 막 저 뭐야 미군들이 폭탄을 내려 뜨려서.

\_ 미군들이 폭격을 가해 가지고.

사람 많은 데는 또 시신이. 우리 전쟁을 할 때 저 귀뚫.

- 귀둔.

귀둔. 아이고 거기서 참 많이 죽었어. 그래 올라가 보니까는 인민군의 신발이 엄청나다 말이야. 아이고 이북 신발이 좋지 뭐. 그래 논바닥에 벗단 묶어 놓 것 마냥 쓰러져 있었어. 그때는 우리가 신발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군인들이 솜신, 솜신 그걸 신고 다녔는데, (?) 신발이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하니까. 그래 솜신은 또 얼마나 발이 시려. 그래 인민군이 죽어 있으니까. 그때가 겨울이야. 여 같이 발을 이렇게 재 보고는 적당하면은, 가들은 양말을 안 신어 반발을 치지. 반발을 딱 치고 신발을 신지. 그 신을 하나 벗겨서 신고서는 한 다섯 달이나 신고 다녔어요.

- 아 인민군 신발이요.

아주 떨어지지도 않아요.

-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신발이 아주. 아이고 어찌면 참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양구 해안 근무할 때 가칠봉서 참 사람 많이 죽었어요. 양구 해안에서. 거서 우리 사단이 어찌해서 처음엔 우리 다 졌어요. 가들은 밤이면 움직이고 했어요. 라학배하고 나하고 나와서 집으로 왔지요. 집으로 와 가지고 놀래 그때 군인에 입대했으면 괜찮았을 걸 그냥 있다가 또 오라고 해서 가도 제주도 갔다 오고 나도 제주도 갔다 오고.

- 제주도까지 갔다 왔어요.

제주도에서 훈련소에서 받았지요. 그때는 군인을 강아지 취급했어요.

- 예.

강아지 취급을 했다고.

- 아 강아지 취급을.

우리가 춘천 보충대에 가니까. 그래서 거 자고서는 기차타고 부산까

지 갔어. 부산 거길 가서 보충대도 거기서도 뭐 사람이고 뭐고. 지금  
군인들은 군인도 아니야. 이거 뭐뭐 아이고 난. 지금 저 고성 전망대  
있잖아요. 거 고성서 전망대 더 들어갔었어요. 거 남강이라는데 갔어.  
남강. 낮에는 남강을 아군이 건너가요. 우리가 박격포를 가지고 있으  
니까 최전방이 아니거든 박격포라는 게 여기다 놓고 이래 조준해서  
쏴요. 직사화기가 아니니까.

\_ 곡사포니까.

예, 곡사포니까. 그래서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죽었어요. 남강 건너갔다.  
건너갔다. 낮이면 우리가 건너가고 밤이면 후퇴해서 나와 있고.

\_ 그러면 남강 건넜던 데가 선녀와 나무꾼 그얘기 있는 데예요.

남강이 고성 전망대 있잖아요. 거 전망대 앞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  
야 해요. 조금 더 들어가서. 거기서 교전을 거기 가서 많이 했어요.  
그때는 수도사단.

\_ 거기는 왜 가셨어요.

군속으로 따라 다녔지.

\_ 군인들 따라서.

그래 아 사뭇 똑같이 군대와 똑같이 전쟁을 했다고. 그래 그때 수도  
사단 그 호랑이 그림 그 사람들하고 작전도 하고 같이 전투를 하고  
그랬지요.

\_ 그백골부대는 정확히 몇 사단이었어요.

3사단이었던니까.

\_ 3사단.

3사단 18연대.

\_ 3사단 18연대.

2대대 8중대.

\_ 2대대 8중대.

그거야 알지 뭐. 거 3사단에 근무하던 애들이 저 아래 방주천이라고 한 사람 있어.

\_ 아 방주천.

예, 그 사람이 이북 사람이예요. 함경도 사람인데. 가가 그 지고 따라다니다가 현역 입대했어요. 그러니 훈련소 마치고 시간되니 우리도 해야겠다고. 그래 학배랑 나랑 아이 그거 안 한다고. 그때 입대하면 금방 죽어요. 금방. 그러니 뭐 우리는 포탄이나 지면서 뒤통무니 따라다니는 것이 낫지. 여기 있을 때도 우리 구만리 여기 북한이었을 때도 우리 소탕이라는 데가 704고지, 681고지 681고지는 저기 산 있는 데가 거기야. 그리고 600고지는 저 건너. 그러니 여기 사람들은 주로 704고지와 600고지에 밥을 많이 저 날랐지요. 밥은 이런 밖에서 취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분배를 했지.

\_ 밥을.

그럼 우리가 했지요. 우리 말고 할 사람이 있나.

\_ 고지에서 못 해먹으니까 밑에서 해가지고 전부.

전부, 밥 지게에 저 가지고, 국이나 밥이나 전부 지고 올라갔지요. 물도 저 올렸는데 뭐 말하면 뭐해.

\_ 물도저 올렸어요.

차라리 그 고지에 앉아서 총 쏘고 있는 게 낫지 그건 못해요. 참 그거 뭐 길이나 좋아요. 식판 같은 것 짊어지고 올라가려면 아이고. 차라리 군인만 못해요.

\_ 여기는 뭐 집단희생 사건 같은 없나요. 집단학살이나 이런 것.

그런 거는 몰라요. 나는 군인 가서.

\_ 군속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때는 그런 걸 많이 봤지요. 죽은 사람 같은 걸. 금방 이래 있는 걸 쏘면 발랑 자빠져요. 발랑 자빠져서 이려고 하다가 엎어져서 죽는다고. 그런 건 많이 봤죠. 아이고 내가 죽는 것 많이 보고 죽은 것도 많

이 보고. 하여튼 어떤 날 저녁에는 고지에 올라가면 잠을 못자니까 신발이고 뭐고 한번 신으면 다 떨어져야 벗어놓고.

- 갈아신을 새가 없어서.

갈아 신을 새가 있어. 없어. 그냥. 밤낮 그냥 입은 채로 가다가 자지. 천막을 치는 데 우비 있잖아 우비 우비로 이렇게 있어. 그거 한 장이면 그러니까 두 장을 이래 잇는다고 그래 분대가 자요. 이래 쳐놓고. (2008년 11월 29일)

- 여기 한국전쟁 일어나기 전에 6.25전에는 그 인민군들이나 이렇게 마을 상황이 어땠어요.

아, 6.25전예요. 그걸 그 얘기를 안했군. 6.25전에는 어떻게냐하면 여기 내려가면 소양강이 있어요. 여기 얼마 안 내려가요. 얼마 안 내려가서 바로 우리 집 앞이에요. 우리 쥘 앞으로 내려갔지요. 거기는 관대리 관대리예요. 관대리 옛날에 왜정 때는 거기 학교가 있었고 여기는 관대리장 관대리장 면소재지이고. 그래 6.25년 다음엔 제일 첫 번에 6.25나던 날은 음력 2월 달이에요. 2월 달에.

- 아, 2월달.

음력 2월 달에. 음력 음력 음력 2월 달이에요. 미군들하고 소련놈들 하고 그래 한 20명이 이렇게 내리겠어. 한 밥사를 따라하는 것처럼. 그래 구만리라는 데가 아래 아랫 강은 이북이고 윗강은 이남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있었어요. 딱 아이고 38선에 살았어요. 그래 내리 재고서는 그래서 그리고 팻말을 갖다가 쏘았어. 그래 인제 38선을 내고 그랬다고 옛날에. 그때 팻말이래야 따른 게 아니라 함석테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뭇테기에다가 세우고서는 그냥 거다가 38선이라고 해가지고 딱허니 해 박았어요. 아이 그래 그제서는 그렇게 한 뒤로 저 짝 건너에 이렇게 왕래를 했어요. 왕래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몰래 여기서 건너가면 증거가 없으니까는 거기 사람이지 뭐. 거기 우리 다 거기 건너가지고 뭐하고 서로 다 가족들이 그저 대소사가 있고 하면 왔다갔다하고 했는데. 그제서는 그제서는 그때 보안대

가 생겼어 보안대 보안대가 생길 적에는 경찰이 있었죠. 경찰이 와가지고서는 서로 인제 구만리라는 데서 이렇게 거 38선에 허 이렇게 물이 딱 흐르는데, 여기는 경찰이 한 명이 한 명이 왔었어요. 좌우지간. 그래 전부다 한청원이 우리네가.

— 경찰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그렇지. 경찰이 한 명이고. 우리네가 바지저고리 바지저고리가 꺼떻게 물을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목총을 깎아가지고 나가다가 여기나 가서 보초를 서는 거야. 그래 뭐 번쩍하면 아이 무서워서 쫓겨 들어가는 거야. 쫓겨 들어가면 아 경찰한테 가면 경찰이 나가서 총 두 번 평평 쏘고는 괜찮다고 나가서 보초를 서라고. 그래 밤낮 나가있으니 밤낮 그렇지 밤낮 쫓겨 갔다가 쫓겨 왔다가 총 쏘고 그렇지. 그러다가는 경찰이 있다가 에 그렇게 되고 경찰이 있다가 나중에 군인들이 왔어. 38선으로 관대리가 면소재지로 있다가 어른리로 갔어요. 어른리. 어른으로 간 뒤로 경찰이 어른으로 갔어요. 그래 면소재지니까 그래 그땐 경찰이 총을 가지고 있었으니깐. 그래 원주 8연대가 여기 들어왔었어요. 여기는 부평은. 그리고 저쪽은 춘천 7연대가 들어와 있었고. 704고지 600고지 681고지이래요. 여기 고지가 이래 저기 내려가미. 그래 마을 사람이 서로 이래 꼴을 이렇게 파고서는 그때는 교통로가 대단히 안 파졌어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여기는 뭐 중대본부다 여기는 뭐 소대본부다 나가면서 해놓고. 그래 민간인이 밥을 했어요. 밥을 해서 저 올렸지요. 전부 다 했지요 뭐. 나도 밥 저 올렸지요. 밥을 군인들과 같이 총을 뭐 같이 근무한 거요. 그래 뭐 총도 다 그땐 M1총이니까. 다 사용 다 할 줄 알지 뭐. 그래 그렇게 하다가는 하루는 6.25날 그래 서로 이제 마커 하나하나 이렇게 해도 떨지 않으니까. 앞에 산 하나 단지 강 하나 이렇게 있어 서로 이렇게 말로 얘기 하길 밥 먹었냐 뭐 잘 잤냐 인제 이렇게 하다가 그래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는데 6.25날 아침에 거기서 동이만한 불이 건너왔어요. 불이 건너와가지고는 그래 600고지에 딱 떨어지더라고. 아 그래 가지고는 뭐 다리를 건넜는지 어떻게 해볼 수 있어야지요. 그 앞에 또 개울



물이 있어요. 구만리라는 동네가 요렇게 돌아 가지고 요렇게 됐는데. 그래 비룩가이라는 데로 해서 요렇게 왔지. 아 올라오니까는 안개가 아주 막 콧 내리쬐요. 아이고 곁에 있는 사람도 몰랐어요. 아이 그래 인민군하고 양덕원까지 같이 갔어요.

- 양덕원요.  
피란을.

- 흥천.

흥천 양덕원. 거나 뭐 말 디디고 인민군들이 막 물리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 들어가라고 빠끔 가라고 대우가 좋아요. 그뎐. 아이 이놈들이 차에다 막 태워가지고 여기서 집에까지. 그러니 겁이 나서 젊은 사람들은 겁이 안 나요. 겁이 나서 아이 늙은이만 태워가고 우리 같은 이는 죽이나 하고 겁이 나서 그러는데. 아이 괜찮다고 아무 걱정 말고 가라고. 또 그래 왔지요. 인민군이. 그리고 군인들이 또 들어왔어요. 또 밀고 쳐들어가서 함경도 어디 함구령으로 들어갔었어요. 밀고 밀고서 저 안으로 그래 재 후퇴를 했다고. 군인들이 재 후퇴할 때 내가 바로 그 백골부대를 따라 간 거예요. 백골부대를 어떻게 따라 나간 거나하면 나는 그때부터도 우리 식구가 내 동생들이 많아요. 야들이 가서 붙잡혀 가는 것보다도 내가 나가서 아주 열심히 하고. 그래 피난을 나가가지고 요 장남이란 데 나가가지고. 원돌 나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원돌 나가서 백골부대 실고 판테루다가 그리고 도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박격포 포탄을 한 발을 해서 짊어지고는 산을 누비며 원주로 해서 흥천으로 해서 사무라치(삼마치)가 막혔어. 또 막혀서 넘어갈 수가 있나. 그리 흥천서 하룻밤 묵고 또 그 산을 뚫어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횡성 아주 소고 무슨 말이고 뭐고 얼마나 비행기 폭격에 맞아서 죽었는지 논바닥에 벼단을 묶어서 집어 내 버린 것 같아요. 야, 사람도 참 많이 죽었구나. 그래 사뭇 원주로 해가지고 영월로 해서 원주로 나가서 영월로 해서 저저 거기가 정선 정선으로 해서 나가서 인제 춘양까지 나갔어 경상도 춘양. 춘양이라는 데 가니까 서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_ 서벽.

서벽. 그래 서벽 거 가서 계속 인제 18연대 따라서 포탄을 한 서너 발씩 짊어지고 계속 따라 다녔는데. 그래 서벽 나가서 인제 그때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경상도 삼불재라는 데가 있어요. 삼불재 거기서 싸웠어요. 싸우다 그래 점령해 들어오는 거예요. 춘양으로 해서 사뭇 전진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원주로 들어오니까는 정월대보름 날이야 그날이 원주로 들어오니까는 그래 원주 치악산 있잖아요. 치악산 올라가는데 아주 눈이 얼마나 왔는지 군인이 앞에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드러누워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 다 올라가는데 아주 다 빠지니까 치악산에 거기 가매봉에 올라가서 자라고해요. 거기서 눈을 이렇게 파고서 뭐 땅을 팔러니 땅이 있어야 파지. 눈을 허겁지겁 파고서 그전에 우비 있잖아요. 개인 우비 모가지 뒤집어쓰는 그 두 장만 퍼면 일개 분대씩 들어가 자요. 거 두 장이 일개 분대가 아홉 명인데 아홉 명씩 들어가 잔다고. 거 두 장 퍼놓고 그리 주루루 깔고 그리고서는 모포 배낭에 항상 짊어지고 다니니까. 그때 신발도 뭘 신 발이냐면 솜신이야 솜신 방한화 처음엔 좋죠. 신으면 아주 폭신한 게 그런데 하루만 신으면 땀이 나서 배길 수가 있나. 막 발이 시려서. 한번 신으면 뱃을 새가 없어. 밤낮 그걸 신고자고 그저 계속 또 자다가 눈만 뜨면 또 가고. 그래 거기서 하룻밤 치악산에서 자고 그 중에 대화 진부로 떨어져 대화 진부 평창 거기로 떨어져서 참 당일로 오대산에 월정사에 갔어요. 월정사로 가니까는 거기 절이 이렇게 있는데 절이 다 타고 거 예비사가 있어서 예비사. 예비사단에 들어가서는 아 거기 말을 잘못했다고 그래. 예비사단이 여기 여기 이 기린 현리 돌아가지고선 월정사로 갔어요. 그래 포위를 해가지고 월정사로 나가니까는 예비사단이 거기서 이런 전하는 데서 전부 이렇게 메서 딱 일루 그냥 나무에다 훌쳐매서 땅도 못 파요 얼어서. 그냥 거기서 대관령으로 올라가니까는 아주 강릉이 다 내려다 보여요. 강릉 그제 인제 대관령 구도로로 꼬불꼬불 올라가니까 거기서 보충을 받았어. 군인 보충을 학도병. 학도병이 그때 학도병이 어떻게 왔냐할 것 같으면 M1총 하나씩 둘러메고 모포, 그러니 하루나 이틀씩 교육 받고 내 보

내는데요 막. 막 전진하고 그러니까. 모포 한 장씩 둘둘 말아서 어깨에다가 퍽 둘러메고 이제 그런 사람을 보충을 받아가지고 강릉으로 내려갔어. 강릉으로 내려가서 그날 저녁에 주문진으로 갔어요. 아주 다리를 건너는데 맨 인민군이야. 여가리에 서서 그냥 걸어가는데 하나도 안 싸워요. 우리 군인들이 총을 안 쏘요. 가들도 그러고요. 그냥 어디로 자꾸 걸어 들어가지.

\_ 아 인민군이.

예, 아주 가뜩 차서 어디로 가요. 그래 차서 막 들어가지. 꼼짝 못하고 포위돼가지고 우리가 있었으니까.

\_ 그러면 인민군 중공군하고 한국군하고 같이 섞여 있었나요.

그렇지. 인민군하고 중공군하고 막 섞여서 들어갔지. 그래 중공군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일개 분대가 나가면 한 일개 소대를 붙잡아서 들어왔어. 중공군을. 아주 말도 못하지 뭐요. 중공군놈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때 건빵이 다섯 봉다리씩 들었는데 큰 배개몽치만 해요. 배개몽치. 그게 들썩 둘러메요. 그러니까 그게 가들 양식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밥도 우리가 뭐 해먹는가 하면 한 되하고 배낭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개인 식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보급 나오면 건빵 그거 먹어요. 그러니 그걸 중공군한테 던져주면 서로 주워 먹으려고 그러지. 막 차안에다가 막 음식을 군인들이 배포해 주면. 그래가지고 저 고성 갔어. 고성. 고성 전망대 위를 들어갔지. 들어가 가지고는. 거기에 수도사단이 있어 수도사단.

\_ 수도사단요.

예 멩호부대라고 호랑이 그림 있는 사단. 그들하고 백골부대하고 같이 이렇게 전쟁을 해서 들어갔어요. 나중에 남강을 건너갔다 밤이면 후퇴해 나왔지 인민군이 와서, 낮이면 저 우리 아군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망대 있는데 거기 있다가 우리가 나왔어요. 그때 우차가 있어 밀어주고 나와서 어디로 갔나하면 석문리라는 데 여기 양양 석문리. 석문리에 와서 예비사단에 있었는데 거기 철광이 있어 철

광 광산에 있다가 양구 해안으로 왔죠. 양구 해안 아이고 양구 해안에서 죽을 뻔 했어요. 그때도 군속이지 뭐. 군속으로 양구 해안으로 들어가서 부대를 따라다녔지 뭐. 양구 해안 가가지고는 그 가칠봉 가 칠봉 있다가 (해독 불가능). 거 유명하니까는 미군들이 와서 전쟁을 하고 가칠봉에서. 아이고 군인들이 모두 머리를 깎았더군. 그러니 인민군인지 아군인지 모르지 뭐. 아주 그냥 말도 못해요. 그래 있다가 미 8사단한테 인수인계하고. 가랑이 양지골에 밤운리라는 데 거 지금은 물이 차서 전부 잠겼지요. 밤운리라는 데 와가지고는 거기 와서 집으로 왔지요. 집에 와서는 있다가 또 군인을 샀어요. 내가. 저 제주도도 제주도 가서 내 아주 군인 생활 툭툭히 했어요.

\_ 여기 미군들 들어와 있었잖아요.

미군들 있었지.

\_ 미군들이 여기 언제 들어왔어요.

아 그러니까 미군이 뭐 난리통에 들어왔지 뭐.

\_ 난리 나고 난 다음에요.

예 난 다음에요. 난 다음에 여기는 미군이 와 있었고 저 쪽에는 로스키가 와 있었고.

\_ 그럼 미군은 여기서 언제 갔어요.

미군 간지는. 아이 자세하게 그건 모르겠는데. 그 뭐 내가 간 것은. 거기다 곤제또 갖다가 여섯 동이나 쳤어요.

\_ 여섯 개나요.

여섯 동. 거기다 곤제또를 여섯 동이나 쳤어요. 구렁말이라는 데다가. 구렁말이라는 데가 동 늪이에요. 아주 커요. 논배미가 있는데 거기다가 전부 치고 그랬죠. 로스키놈들은 관대리. 그래 낮이면 로스키놈들이 건너와요. 건너왔다가 민가에 와서 맛있는 것 얻어먹고 또 건너가고 그랬어.

\_ 서로 교류를 했어요.

아 그렇지요. 그래 인제 미군놈들도 못 오게 하고, 로스키놈들도 오지도 못했죠. 막 싸요. 미군들이 막 싸 죽일려고 하니 못 왔죠. 그놈들이 뭐 나쁘게 했으니 그렇겠지. 아이고 여기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서는 미군들이 글썄 동운이라는 사람이 나와 한동갑인 가가 어떻게 정신이 좋아가지고서는 미국말을 배웠어. 가가. 그래가지고 가가. 우째 한국 사람이 말을 하면 가가 통역을 했어. 마냥 미군부대 있는데 가서 그저 얻어먹고 했지. 아이 이놈아가 구만리에 왔다가 로스키한테 붙잡혀서 갔다가 와서 그 후로는 로스키들 못 건너오게 했지요. 가를 붙잡아 가고 그러니 로스키놈들을 꼼짝을 못하게 했지.

\_ 미군들이 여기서 어떤 일을 했어요.

여기서 밥이나 먹고 매일 목욕이나 하고 여름에는 목욕하고 그랬지요.

\_ 목욕이나 하고.

아무 그저.

\_ 전쟁은 안했어요.

안했어요. 전쟁은 안했어요.

\_ 그러면 여기 나가셨다 들어온 게 전쟁 나고 2년 뒤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아 전쟁 나고, 여기 그러니까 끝나고 들어온 것이 아니죠. 전쟁 중에 들어왔지요. 전쟁 때 들어와 가지고 또 군인을 갖지요.

\_ 그러면 미군들 피해 같은 것은 없었어요.

무슨 피해는. 아주 우리들이 뭐 뱀에 물리고 그러면 약을 갖다가 발라주고 다 그랬어요. 참 뭐 사람이 잘 했어요. 아주 잘 했어요.

\_ 미군 몇 연대인지는 들어보셨어요.

그땐 난 뭐 간섭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뭐 나이가 몇 살 돼야지요. 가면 뭐 곁에 안 뒹요. 막 가라고 그러지. 가라 가라 막 내쫓고 이래요. 그런데 소련놈은 그러지 않아. 구만리라는 데가 한 집이 안방은 이북이고 뒷방은 이남인데 거기가 거기다가 쫓아야 되는데

거 팻말을 쑥 뽑아다가 구만리 이쪽에다가 꼽아놓고 주민들을 못 다니게 해요 주민들도. 이래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아주 꼼짝을 못하게 해요. 그래도 가들은 좋았어요. 로스키놈들이 아주 따발총도 쏘보냈다면 막 주고 그랬어요.

\_ 그럼 러시아 사람들도 그때 들어온 거예요. 미군 들어올 때.

그럼 한데 들어와서 같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가들은 관대리 치구미라는 데 있었어요.

\_ 그러시아 사람들은 언제 갔어요.

모르지. 간 거는 글썄 잘 모르겠다고. 간 거는 뭐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_ 전쟁 터지고 전쟁이 딱 나고 나서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어디로 피난을 가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저 충청도까지 모두 갔다 오고 그랬지요. 많이 갔다 왔지요.

\_ 흥천이나.

여기서는 7월달 사변 때는 여기 장남 넘어갔다 오고. 건니고개 넘어갔다 오고 그랬지요.

\_ 7월달 사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7월달 사변은 뭐 뭐 그냥 집에 있다가 나가 보니 총소리가 막 났지요.

\_ 그럼 7월달 사변이 인민군들이 막 쳐들어 온 거예요.

아니 그냥 총만 쏘다가 말았지.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잠깐 내전.

\_ 사람은 많이 죽었어요. 그때.

뭐 죽지 않았어요. 그땐 죽은 거는 몰라요. 거 부평 청년들이 나가서 낮이면 나가 돌아다니다가 총만 있으면 우리를 갖다 줘요. 그래 우리도 그 총을 가지고 괴비덕이라는데 올라갔다 가들 인민군들을 보면 막 쏘고 서로 대항을 했지요.

- 어르신은 그때 한청에 있었잖아요.  
그때 한청에 있었지요. 우리 한청 단장은 해성이고.
- 김해성.  
예. 거저 감찰계장은 삼룡이고
- 김사명요.  
삼룡이 김삼룡이고.
- 아 김삼룡.  
예. 그리고 감찰대원들이 그 아래로 있었고.
- 인원은 많았어요.  
인원이 꽤 많죠. 그러니까 동네가 한 4개 반이 살았으니까.
- 그러면 몇 명 정도.  
주로 한 30명 됐을 거예요.
- 한청대원이 30명.  
예. 그러니 흥천 이런데서 지원을 많이 받았지.
- 아 흥천에서요.  
그러니 밥을 저 올릴 수가 있어. 그땐 그러니 흥천의 지원을 많이 받았지. 저 흥천으로 동면으로 해서.
- 그러니 그쪽 한청들한테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높은 사람들 단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그때는 군인 말이라면 꿈쩍을 못했어요. 지금은 군인도 아니에요.
- 그러면 한청 지역 단장이 있고 전체 단장은 누구였어요. 전체 대장은.  
전체 대장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어론에 살던 김수영이라던가.
- 김수영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지.

\_ 지령도 받고 그랬어요. 한청 본부에서.

아니 못 받았지요.

\_ 전혀 못 받았어요.

아 그냥 자치서 지방에서 그러니까 싸우고 그런 거지요. 그놈들 쫓아 내지 못하면 우리가 쫓겨나야 하니까 그런 거지 뭐.

\_ 그럼 지역에서 조직한 거예요.

그렇지요 뭐. 우린 부평에서 한 거지요. 어디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괴비덕이하고 치재하고 거기가 제일 괴비덕이라는 데가 제일 아지트죠. 제일 높고 산이 있고 하니까. 괴비덕이가 아홉 구비예요.

\_ 그 작은 전투들이 많았지요.

내전이 많았지. 내전이. 군인들도 여기 와 이쪽에 주로 많이 있었거든. 강물 저 건너 관대리 건너갔다가 어떻게 건너오다가 또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맞아가지고 이 다리가 관통해 가지고 막 치료하고 그랬다고 군인들이.

\_ 작은 전투에서요.

예.

\_ 그러면 여기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7연대라고요.

아 8연대.

\_ 8연대요.

원주 8연대.

\_ 원주 8연대가 들어와 가지고 싸우다가.

7연대는 이쪽 704고지.

\_ 704고지는 7연대가 있었고.

681고지 600고지는 8연대가 있었고.

\_ 언제까지 있었어요.



그러니 그 난리 후퇴해 나갈 때까지 있었지 뭐.

\_ 후퇴하고 나서는 군인들이 없었어요.

후퇴하고 나서는 군인들이 전방에 가 있었지. 여긴 없었지.

\_ 여긴 없고. 그러면 여기는 경찰만 있었어요.

그렇지 경찰만 있었지.

\_ 인민위원회는 없었어요.

그런 건 없어요.

\_ 여긴 인민군 통치를 안 받았어요.

아이고. 그런데 여기는 빨갱이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밤낮으로 가들 하는 행동을 다 봤는데. 이래 기를 해들고 뭐 김일성이 어찌고 하며 만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요. 그걸 보고는 여기는 빨갱이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었지.

\_ 그러면 여기는 인민위원회가 없었겠네요.

없었어요. 우리 동네는 없었어요. 여느 동네는 있었는지 몰라도.

\_ 어론리는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론리는 저 김0흥이라고 그 인간이 죽었지만은 나이가 많아서 죽었지. 그런데 인민위원장을 했다고 하더라고.

\_ 김0흥.

예.

\_ 그러면 김0흥 씨는 전쟁 끝나고도 살아계셨네요.

살아 있었지. 근데 그 양반이 동네서 시킨 거야. 그렇게 해야만 동네를 위할 수 있다고 시킨 거야. 그 양반이 빨갱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동네서 당신이 나가서 이렇게 해라. 말하자면 짜고 한 것이지. 빨갱이 아니에요. 절대 빨갱이는 없어요. 말로는 동네일이 많았다고 하더구먼. 여기는 빨갱이는 없어요. 나 알기로는 없어요.

- \_ 결사대원들은 그러니까 한청대원들은 짐 저 날라주고 포탄 저 날라주고,  
주로 그 일을 했지요. 밥하고. 밥을 그 전에는 가마에다 큰 가마에다  
해서 막 저 올렸지. 이런 실탄통에다 밥을 넣어 짊어지고 올라갔지.
- \_ 6.25전에 49년도나 48년도에 큰 전투가 있었다면서요.  
큰 전투는 뭐 7월 달 사변이겠지 뭐.
- \_ 7월 달 사변뿐이에요.  
예.
- \_ 다른 사건은 없고요.  
다른 사건은 난 모르겠는데. 7월사변이겠지요. 큰 전투라는 것은 말  
고개서 인민군 탱크에 박격포 실탄을 따가지고 신작로에서 있다가  
탱크에 던져 넣으니까 내리굴렀지. 가들 인민군 탱크가 두 대.
- \_ 탱크 위에서 폭탄을 넣은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 도망갔지 뭐.
- \_ 그러니까 폭탄을 넣었어요.  
그렇지요. 탱크가 폭발되면서 내리 굴렀지요. 저 아래 아주 높아요.
- \_ 말고개가 어디 있는데요.  
저기 저 홍천 가는데.
- \_ 거기까지 밀고 내려갔어요. 7월 달 전투가.  
그럼요. 말고개까지 갔어요. 우리는 홍천읍에 있는 학교에서 모두 피  
란 가 있었는데요.
- \_ 아 7월달 전투예요.  
예.
- \_ 그러면 49년도 7월 달에 인민군들이 막 밀고 내려와 가지고 같이 싸운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학교에 거 가족들을 데리고  
학교에 피난했는데. 군인들이 와요. 와 가지고 불려요. 사뭇 쫓아가

는 거예요, 안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무시에 피가 시뻘것지 뭐. 앉는 의자에. 그래 태워 가지고 말고개로 오는 거야. 말 고개. 말고개로 와 가지고 포탄을 지키는 거야. 저기 수산리 물밑골 장등까지 짐을 지켜서 나갔다고. 아이고.

\_ 그럼 7월 전투가 대단했네요.

그럼 컸었지요. 그래서 인민군 같이 죽은 것, 군인 갖다 죽으면 그걸 데려가라 그래요. 죽은 걸 내주겠어. 아무려면 이렇게 가파른데 뭐. 어떻게 끌고 오겠어. 어떻게 해. 까꾸로 들면 안 끌래 사방 걸려서 팔을 잡아서 들이 끌면 내려오지. 이 아래로 신작로까지 내려와서 뭐까지거나 말거나 막 내려 끄는 거야. 태워가지고. 그때 그 주먹밥을 갖다가 놓잖아 주먹밥을 말고개서.

\_ 말고개서.

이런 주먹밥을 한 덩어리씩 주더라고. 쥐어주고 가면 하나씩 먹으면서 포탄 저다가 놓았지.

\_ 그러면 그때 여기를 막았던 군인들은 몇 연대예요.

8연대겠지 뭐. 8연대.

\_ 그러면 8연대가 부상이 상당히 많았겠네요.

많았지요. 8연대 7연대가 여기서 많이 했어.

\_ 많이 죽었다고요.

많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이 했어. 전투를.

\_ 그러면 7월 전투는 그곳까지 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 막 들어갔지. 막 전진해 들어 간 거야. 그때. 그래 들어갔는데 6.25가 또 나온 거야.

\_ 그리고 나서.

그렇지.

\_ 그리고 1년 만에 6.25가 난 거네요.

예 6.25가 났지요.

- \_ 밀고 올라 갈 때는 누구누구 밀고 올라갔어요. 군인하고.  
    군인들하고. 우리는 안 따라갔지.
- \_ 군인들만.  
    예 군인들만 올라갔어요. 저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만 했으면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중공군 때문에 내려 왔다고 하더군요.
- \_ 8연대 7연대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 갔네요.  
    올라갔지요. 올라갔다가 그래 8연대를 추려서 백골부대를 만들었어요. 백골부대.
- \_ 아 8연대를 추려서 백골부대를 만들었다고요.  
    예.
- \_ 그러면 백골부대 인원은 많지 않았겠네요.  
    많았지요. 그래도 아주 무서웠지요.
- \_ 백골부대가요.  
    하여튼 그 보통 상사하고 하사가 하사관들이야 전부.
- \_ 그럼 특수부대네요. 그렇죠. 특수부대네요. 일반부대에서 뽑아서 한 것이니까.  
    뽑아서 한 것인지 뭔지 모르지 뭐. 내가 군속일 때니까 자세히 아나요.
- \_ 백골부대가 싸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싸우다가. 난 뭐 집으로 왔으니까는 모르지 뭐. 어디로 갔는지.
- \_ 어디로 갔는지.  
    그래선 저 훈련 받고서는.(전화가 와서 잠시 끊김) 내가 제주도 훈련 나가가지고는 부산 동래 보충대 거기 가서 고생했어요. 있다가 부산 삼전비라는 데 떨어졌어요. 제일 첫 번째 보직을 좋은데 받았어요. 아 그때는 그때 군인이 무서웠어. 막 기합을 주고 총대로 막 때고 그랬어. 아 자고 일어나니까는 신병이지 금방 제주도에서 건너온 게 뭘

아나. 이래 먼저 군속으로 다녀서 경험은 많지요. 그래 이 뭐 군인들은 잘 보이지도 않았어. 어제 저녁 선임하사가 말하길 모포를 팔아먹었다고. 아 그래서 곤제또 둘레를 뛰키는데 죽겠더라고요. 아이 난 못 뛰겠다고 벌렁 자빠졌지. 아 그놈들이 찬물을 갖다가 뷚요. 동짓달에 아주 여간 추워요. 지금은 따뜻해. 그래 꼼짝 않고 있었더니 의무대로 실어 갔어. 거 가서 멀쩡하니까는 놀래 또 곤제또 있는 대로 왔지 뭐. 진출 보내 달라고. 난 여기 안 있겠다고 가겠다고 재촉을 했지요. 난 전방에 가서 싸우겠다고 여기서는 못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2사단에 떨어졌어. 2사단에. 2사단에 왔더니 정말 죽겠지 뭐. 하 말도 못해요. 배가 고파서 제일. 아주 밥을 속대접 같은데 하나 푸고 물을 항구에다 돌이 이렇게 줘요.

\_ 그당시는 많이 배고팠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말 말아요. 아주 배고팠어요.

\_ 여기서 그러면 경찰들도 같이 싸우고 그랬어요.

경찰들은 여기서 안 싸웠어요. 여 여 저 원대리에 거 보면 표 소령이 이북으로 넘어갈 때에 그때 경찰들이 조금 싸웠다고 그러더구먼. 거기서 싸운 사람들이 몇 죽었어. 그때 죽은 사람들을 난 알아요. 김순익이라고. 거 아주 했다고 하더라고.

\_ 김순익이요.

예 순익이.

\_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어요.

경찰이랑 같이 싸우다가 죽었지 뭐. 복지개봉에서 거기서 죽었어요.

\_ 그 사람도 경찰이었어요.

경찰이지요. 경찰이에요. 거 6.25 난리 전에 7월 달 전투에 그때 하고 6.25때 하고 그때 많이.

\_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막 죽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여러 사람 죽은 것은 이 6.25때 6.25가 아니고 2차 후퇴 때 여기 진술

이 포위 됐을 때 내가 거기 있었거든 그 당시에 18연대 백골부대 그 때 거기 있었는데 많이 죽었지요. 귀둔서. 하여튼 인민군들이 하여튼 고지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죽었는지 여기 이래요 이렇게 막 쌓였어요. 그때 비행기 폭격에 의해서요. 가들은 비행기 못 썼어요. 그땐 비행기 하나도 못 썼어요. 미군들 비행기 하고 썩썩기 하고 막 갖다 퍼부었어요. 아이 이놈의 신발이 다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 볼 수 있어. 뭐 보급이 되나 요 위에 올라가서 죽은 사람의 신발 하나 벗겨 신고서. 사뭇 후퇴할 때도 쫓아 나갔어. 그걸 석 달인가를 신었어. 편해요 발이 인민군들의 신발이. 아주 발병도 안 나 이상하더라고.

\_ 잘 만들었나 봐요.

아이 이게 넓적한 게 이렇게 생겼어요.

\_ 그럼 미군폭격이 심했었나 봐요.

그렇죠. 많이 심했죠.

\_ 그럼 여기 남면에는 미군 폭격이 없었어요.

여기로는 난 여기로는 없었으니까. 주로 여기 기린 방동으로 비행기 폭격 그걸 보급을 받았으니까. 방동서 한번 받고, 거기 어디더라 두 번 받았는데 비행기 보급을. 비행기 보급은 낙하산으로다가 막 던져 포탄이나 먹는 식량을 떨어 주면은 그걸. 가장된 비행기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뒤로 막 던져 줘. 그럼 그 보급 받을 때 전부 떨어져 주면 한청원들이 몰래 가서 쳐다 나르죠. 그리고 낙하산이 좋아요. 낙하산은 또 갖다가 이렇게 마후라를 만들어서 써요.

\_ 이쪽 남면에는 폭격이 떨어진지 모르고 기린 방동 쪽에만 떨어졌다는 거지요.

예, 거긴 많이 하여튼 방동리 귀둔 그쪽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아주 산이 하얗게 홀렁 까졌어요.

\_ 폭격예요.

그래도 올라 가보면 어디서 숨어 있다가 딱쿵 한다고 또 그냥 사람이 있다고 폭격을 내리 치지요.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 그러면 전쟁 전에 38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작은 전투들이 있었잖아요.  
작은 건 단지 그게 그놈들이 조금 나왔을 때 한 거지. 근데 그때는 저  
쪽에 보안대가 그게 있었고 이쪽에는 경찰이 한두 명 있었어요. 아  
전부 목총 깎아가지고 야간에 나가 있으니, 뭐 목총이 총알이 나가  
어쩌나.
- 북한에는 보안대가 있었고, 여기는 경찰들이 한두 명 있으면서 한청하고 보초서고.  
한청하고 같이 있었지요. 그러면 경찰은 저기 있다가 잔다고.
- 경찰은 자고.  
한청이 나가 있다가 뭐가 버석하면 자는 데 쫓아와서 알리지. 아이  
뭐가 왔다. 그러지. 아니 뭐가 왔다고 그러지. 그러면 나가서 총을 두  
어 번 공중을 향해서 쏘고는 아이 아무도 없다고 나가라고. 나가면  
또 쫓겨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지. 여기서는 그런 일을 많이 했  
어요. 그래 가지고는 결국은 내가 3군단에 와서 교대를 했어요. 그래  
저 사람인데 집 나와 가지고는 상사가 됐다고, 3군단 조사관에 있다  
고.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래  
가지고 1군에 들어갔었어. 내가 2사단에 있다가 내가 휴가를 나왔었  
어요. 그때 휴가를 나왔는데 어디에 있냐고 그래서 2사단에 있다고  
하니까. 넉넉잡고 한 보름만 있으라고 하더라고. 보름 있으니까 2사  
단 중중연무가 발령을 내 주더라고.
- 혹시 인민군이나 군인이 인민군을 도와줬다 군인을 도와줬다 이래서 인민군 쪽에서  
민간인들을 괴롭혔다느니 하는 것은 없었어요.  
뭐 도와주기는 뭐뭐.
- 그러니까 왜 마을 주민들이 군인들한테 밥도져 주고 하잖아요.  
아이고. 인민군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가들이 뭐라 여느 사람이 뭐라  
그래.
- 인민군이 7월 사변 때 흥천까지 밀고 나갔다면서요.  
나갔지요. 나갔을 때 인민군의 정치를 받았지요. 받았으니까 그때부

터 목총을 아니 총을 주워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있었어요. 거 부평에 있는 천주교가 있어 천주교, 그 천주교 교장이 함인선인데 함인선. 그 집이 하루 저녁에는 회보러 오라고 해. 그래 가니까는 여자들이 이북에서 나왔는데 다리가 이런데 아주 잘 생긴 여자들만 나왔어. 와서 강연을 하는데 아주 구수하지 뭐요.

\_ 그러면 부평리 천주교 교회에 인민군 여자들이 와 가지고.

아 그러니까 인민군인지 뭔지 이북에서 나왔어요.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인민군에 들어가라고. 그래 나중엔 아니 이놈의 예편네가 의용군으로 나가라는 거야.

\_ 의용군으로.

의용군. 예 안 되겠다싶어. 보따리 싸가지고 놀래 그날 저녁으로 집을 나와 괴비덕이에 올라갔지요.

\_ 괴비덕이에. 총을 들고 보초서고 있고.

그래 아주 그땐 맨주먹이지. 쌀만 집에서 한 덩 되씩 굶어지고 그냥 거기 올라가서 끓여 먹고 있었지요. 저 아홉골로 아홉골이라는 데가 깊어요. 아주 골짜구니가. 거기 가서 지냈지요.

\_ 그러면 인민군 통치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_ 받긴 받아도.

받긴 받아도 우린 안 받았지요. 그래 가지고는 하루 저녁에는 집에 왔어. 어떻게 해가지고 집으로 왔다고 집에 왔는데 가만 생각하니 안 되겠어요. 아버지 보고서는 광 댐이 넓어요 우리 집의. 광 댐의 이곳을 파라고 그 꼭대기를 파고서는 거기다가 나무를 꼭대기에 하고서는 이게 쉬쉬하니까는 광으로 들어갔어. 입구를 막고 대문으로 해서 그래 딱 들어가면 하나가 드리누우면 뭐 보이지 않아 바깥에는 옥시기(옥수수)짚으로 잔뜩 가려놓았지 뭐. 그래 가지고는 내 동생하고 고생 많이 했어. 그래 결국에는 나도 여 정부에서 조금 타 먹어요. (구



술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가 유공자증을 보여줬다.)

\_ 아 국가 유공자증이예요. 6.25참전 유공자.

여기도 있고.(날짜가 다른 유공자증을 보여줬다.)

\_ 그럼 어르신께서 6.25때 한창으로 18연대를 따라다녔다고 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거기 갔다 와 가지고 군인 갔으니까. 란 끝난 다음에 제주도도 군인 갔으니까. 그래 가니까 전부 18연대 있던 군인들이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 훈련받을 때 편하게 받았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는 사람은 봐주잖아요. 그래 훈련할 때 편하게 받았어요. 아 이고 고생 많이 했어요. 내 고생한 얘기는 끝도 없어요. 이 총 안 맞으려고 손을 이렇게 해서 안 맞아요. 총알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그러니 죽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안 죽어요. 호병이도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때까지는 안 죽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총을 맞았어. 인민군 애들한테 그쪽에서 이리다가 그래서 쫓겨 가지 못하고 붙잡혀 갔지. 이북으로 넘어간데 뭐. 가들이 싸 죽이지 데려 갔잖어. 우리도 그때 막 전진할 때 같으면 시시한 거 붙잡으면 그냥 중대장이 권총 탁 쏘면 자빠졌다가 옆드려서 죽어요. 대개 옆어져서 죽어요. 발랑 자빠져서 죽진 않아요. 그래 성가시다고 싸서 죽이는 거야. 그때는 후방으로 후송을 못하고.

\_ 그럼 남면에서는 흥천으로 피난을 갔어요.

6.25난리 때 그랬지요. 우리 식구들은 집으로 오고, 나는 백골부대를 따라 갔죠.

\_ 군속으로 따라 간 것이죠.

그래 우리 식구들은 갈 때도 같이 못 나갔어요. 난. 우리 아버지 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안식구하고만 데리고 갔지요.

\_ 피난 갈 때 원주로 갔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원주로 해서 그리로 갔었지 뭐. 삼마치 고개로 해 가지고 삼마치 고개는 막혔다가 뚫렸어요. 횡성 둔내로 해서 갔지요.

\_ 춘양까지 갔어요.

예. 거 삼마치 고개로 넘어가는데 참 말하고 소하고 얼마나 쓰러져 죽었는지 몰랐어요. 저 뭐야 미군들이 폭격을 해 가지고.

\_ 아 미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아 많았지요. 주로 그 썩썩이 그 꼬부라진 것 이렇게 꼬부라진 것 그게 무서웠어. 아주. 이렇게 돌아서 갈 때 보면 아주 뭐 매가지고 사람이고 뭐고 싹 잘라 버려요. 아주 무서워요. 호주기라 그래요. 일본말로.

\_ 호주기라 그래요.

저 뭐야 이승만 박사 처갓집 나온 데가 호주잖아.

\_ 호주, 호주 아. 호주 비행기.

예. 이승만 박사 처갓집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잖아.

\_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 6

## 부평 모르박의 전쟁 이야기



구 술 자	안 ○ 선
구술자 나이	72세(1936년생)
면 담 주 제	6.25전후의 부평리와 구술자의 삶
면 담 일 자	2008. 11. 23
면 담 장 소	부평리 구술자의 집
면 담 자	이 학 주

구술자 안오선 씨는 6.25전쟁에 대해서 직접 겪은 인물이라 이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6.25전쟁의 역사적 상황까지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6.25전쟁에 대한 남다른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의 전쟁사와 결사대에 대한 증언을 그 누구보다도 잘 말씀하였다. 그야말로 6.25전쟁의 부평리에 대한 산 증인이라 할 것이다.

그 당시 마을의 상황부터 전쟁 중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까지도 나름대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살던 마을은 모두 소양호에 묻혔고, 전쟁의 소용돌이도 다니던 학교도 수장되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 같았다.

## “부평 모르박의 전쟁 이야기”

- \_ 여기가 주소가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7반.
- \_ 자연마을 이름은 뭐예요.  
여기가 원래 옛날에는 지도상에는 우외동이라고 나왔고.
- \_ 우외동.  
우외동이라고 지도상에는 나왔고. 여기서 그제 옛날부터 불러오는  
것은 모르박이라고 해요.
- \_ 아 모르박. 여기가 모르박이었구나.  
여기가 모르박이에요.
- \_ 아 사방 가니까 모르박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여기가 모르박이에요.
- \_ 어르신 성명이 인제 안자 ○자 선자.  
예. 안자 ○자 선자이에요.
- \_ 연세는.  
74세요.
- \_ 생년월일은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35년 ○월 ○일
- \_ 35년 ○월 ○일. 피해자 김종태 씨하고는 이웃이었지요.  
그렇지요. 여기 조그만 동네니까. 그때는 가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요.

- \_ 김종태라는 사람이 그 당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글쎄 그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나보다 한 4~5살 많아야.
- \_ 그럼 지금 살아 계셨으면.  
한 80가차이.
- \_ 80가까이, 그럼 그 당시 한 스물 몇 살 되었겠네요.  
그 당시 내가 6.25 때 아마 21나 22정도 됐겠지. 아니 20대 갓 넘었을 거야.
- \_ 20대 갓 넘었어요.  
스물 하나나 둘 정도.
- \_ 그분은 어떻게 됐나요. 끌려갔던가요. 어디.  
그때 여기는 군인을 그때 소집을 못했어요. 전방지대였기 때문에. 그 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냥 집에 있었지. 스무 살 갓 넘었으면 군대 같 나이인데 소집될 나이인데 여기는 행정적으로 공백 기간이 돼 가지고, 6.25때 인민군이 쳐 내려왔다 올라갔다하는 최전방이 돼 가지고 행정공백기간이라서 행정기관도 없으니까 군 소집도 안 되고 했어요. 군인들이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은 한청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소 집해 가지고 자기네가 필요할 때 썼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듣는 바 에 의하면 아군들이 진격해 들어올 적에 인천상륙해서 중간을 허리 를 끊고 서울 수복하고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들도 패잔해 가지고 계속 들어가더라고. 인민군 들어오는 것은 봐도 아군들 들어오는 것 은 보지 못했어요. 여기 아군들은 흥천을 거쳐서 춘천 화천 철원 그 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은 동해안으로 들어가고 해서 여기는 공란이 예요. 공란이고 지금의 서화리에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인민군 패잔병 이 3개 사단이 집결하고 있었어요. 그때 도로가 안 나서 오지였었거 든요. 자동차도로가 안 나서, 3개 사단의 패잔병이 못 들어가고 아군 들이 평양에 입성하게 되니까 못 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 10

월 달 정도 되니까 살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침범하더라고 공격을 하더라고 밤이면 나와서 먹을 것도 가져가고. 그래 여기는 주로 군인들은 들어오지 않고 인제군 경찰서가 그때는 홍천 두촌에 있을 때였어요. 여기 행정구역이 38선이 갈리면서 원래 인제군 남면인데 홍천군 신남, 그래서 여기가 신남이 된 것이라고, 홍천군에 남면이 두 개가 될 수 없으니까 이곳도 남면이니까 여기를 홍천군 신남이라고 행정구역을 편입한 것이지. 그래 38선이 아군들이 진격을 해 들어가 없어지니까, 인제경찰서가 지금의 인제로 수복을 해 들어갔어요. 수복을 해 들어갔는데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밤이면 자꾸 공비들이 나오니까. 그래 요전에도 얘기 했지만 지방 한청들을 모집해 가지고 결사대라는 것을 모집해 가지고 여기 한 200여명 활동하는 것이 있었다고. 아 그 중의 한 사람이지. 그때 젊은 사람들은 뭐 다 자원을 해 갔다고,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다 젊은 사람들은 저거를 해야 되니까.

\_ 한청을.

예, 완전히 그때 당시 한청은 행정적으로 한청이라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어요.

\_ 아, 국가에서 그랬어요.

국가에서 그랬지요. 한청이라면 어느 지역이나 다 있었지요. 한청이라는 그 조직체가 있었어요. 그래 어차피 그렇게 움직이나 저렇게 움직이나 공비들은 밤에만 계속 침투해 나오고 그러니까 결사대라는 것을 조직해서 한 200여명 활동한 것이 있었는데. 그 무기는 어디서 조달이 안 되니까 그냥 전쟁터에 잃어버린 것을 막 주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총도 가지각색에다가 무슨 피복도 뭐 일정하게 보급 받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자체대로 아무거나 입고 그대로. 그런데 공격 때 어떻게 했는지. 공비들은 밤이면 침투했다가 낮이면 들어가요. 그래 밤이면 쫓겨 나갔다가 아침에 또 들어왔다가 또 밤이면 저쪽에서 넘어오면 쫓겨나가고.

\_ 그러면 그때가 전쟁 전이었지요, 6.25전.

6.25후지. 그런데 수복해 들어오는 것이 그랬지.

\_ 아수복때.

인천상륙하고 벌써 다하고, 벌써 그러니깐 저 역순으로 자동차가 저 함흥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아군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6.25때 인민군이 저 뭐 부산 어디 까지만 남기고 다 쳐 내려 갔는데 아군들이 진격했으니, 거 뭐 듣는 얘기가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 해 가지고 허리를 끊으니까 이게 적군이 맥을 못 추니까 그냥 전부 싹 철수해 들어갔지. 그래 철수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아군들은 해군력이 발달하니까 함흥 거기서 평양으로 입수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패잔병들이 다 못 들어가고 중간에 지킨 거지. 그 병력이 한 10월 달 되니까 1월 4일이 1.4후퇴 아니야. 그래 철수한 게 아니야. 저기 백두산까지 다 들어갔다가. 그래 그네들도 그런 정보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살살 기습을 자꾸 하더라고. 인제경찰서 지금 위치에 원 위치에 치안을 들어가고 38이북인데 인제 아군들이 들어왔으니까 거 수복을 들어갔지. 수복을 들어갔는데 밤이면 자꾸 나와 공비들이 기습을 하고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니까 병력을 그때 경찰이 병력을 가진 게 있다. 경찰은 저거 해가지고 다 저거하고. 그러니 그 결사대라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한 200명 활동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_ 아 그러면 김종태라는 사람이 결사대도 하고 한청도 하고, 처음에 한청하다가 결사대로.

그때 젊은 사람들은 다 한청이에요. 적령기에 있으면 다 한청인데.

\_ 이 지역에서는 따로 결사대를 조직했네요.

저 후방으로는 행정부의 질서가 잡혀 있으니까. 6.25가 나니까 정식적으로 소집을 해서 군대를 다 갔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수복되면서 아직 채 미치지 못했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있었지. 한청들이. 그러니까.

\_ 그때 그 김종태라는 분은 돌아가신 거지요.



잡혀 들어가는 것은 잡혀 갔는데.

\_ 그럼 행방불명 됐겠네요.

그때 공비한테 잡혀 갔는데 죽었겠지 뭐.

\_ 그때 어떻게 붙잡혀 갔어요.

그 인제 다들 철수를 하니까. 다들 철수를 하니까. 여 강이 이렇게 38선 경계가 있잖아.

\_ 600고지 앞에.

그렇지. 600고지라는 게 38경계야. 우리 아군들 고지고 저쪽 강 건너는 저쪽의 고지인데. 인제경찰서가 자꾸 공비가 침투하니까는 일단은 후퇴를 했지. 위험하니까. 후퇴해 가지고 그래 본부는 여기에 두고 앉고 일선 배치를 해야 할 것 아니야. 고지에다가. 그래 거기에 말하자면 일선 배치했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인민군)이 전투경력이 있는 군인들이니까는 이 물줄기를 따라서 강을 건너서 여기를 들어와 친 거야. 기습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방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후방에서 총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때 뭐 무전기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와서 상황을 알아봐야할 것 아니야. 본부에서 막 총소리가 나니까. 그래 연락책으로다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사람은 숨고, 이 사람은 “아니다 여기가 벌써 우리 전방이고 저기는 우리 후방인데 무슨 적군이 있겠냐. 아군이다.”이래가지고. 여기 왔다가 밤을 지새우고 인원소집하고 가다가 마주쳐서 붙들려 갔다고 하는데. 내가 보지는 못하고 들은 얘기는 그런데. 그 사람(같이 있던 동료)이 얘기를 해줬어. 자기는 안 붙들려 가고 저가 붙들려 갔다고. 그래서 붙들려 간 것을 확실히 알지. 두 사람이 연락을 가지고 연락책으로 상황판단을 하러 나오다가 한 사람은 의심스러우니까 숨자 무슨 병력이 오니까. 여기 후방인데 인민군 병력이 대대로 올라가 있겠냐. 그러니까.

\_ 그럼 연락병이었어요. 둘 다.

그땐 뭐 정식으로 그냥 결사대라는 것인데 그런 체계가 있겠어요.

여기 누구누구 가서 연락해 달라고 하면 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거지. 그래 정식으로 군인이 아니니까는. 그런데 자꾸 출몰하니까. 일단은 방어를 해야 되겠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는 결사대라는 것을 명칭을 아주 결사대라고 조직을 해가지고 무기를 수집해서 대항해서 싸운 거지. 동네 사람들이 싸운 거야. 쉽게 말하면.

\_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그 1950년도 6.25사변이 났으니까. 6.25사변이 났으니까 여름 나고 1950년도 그러면 1951년도나 아군들이 일단 들어왔는데 그러면 난 그걸 똑똑히 모르겠는데. 50년도겠네. 1950년도.

\_ 몇 월경.

한 10월 경. 10~11월경이지.

\_ 그럼 여기 모르박에서 그랬나요.

그렇지. 여기지.

\_ 아 여기서. 부평리 모르박에서.

그때 그러니까 인제경찰서가 지금 현 위치까지 들어갔다가 밤에 위험하니까 철수를 했다고. 여기 강이 경계가 좋으니까. 방어가 좋으니까. 일단 철수를 했다고. 공비가 자꾸 출몰하니까. 철수를 해놓고 고지에다 병력을 배치해놓고, 본부는 여기 앉았는데. 애들이 강줄기를 따라 기습을 했다고 그때 애들은 능숙하니까 저 물줄기를 따라 들어오니까 발견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때 무슨 병력이 많아서 철통같은 경계를 했던 것도 아니고. 고지 몇 군데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개들이 인제 개들은 훈련받은 병력이니까. 거기 있다는 것도 벌써 개들은 다 상황판단을 하고 물줄기 따라 본부를 친 거지. 적의 후방을 친 거지 저쪽 사람들은 말하자면.

\_ 그럼 경찰서를 침범한 거네요.

그렇지 경찰서가 여기 있었지.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한 사람 두 사

람 세 사람이 죽었나. 그 기슭에. 여기서 세 사람이 죽고. 그리고 붙들려 간 것은 그 사람이 붙들려 간 거지. 그런 얘기에요.

\_ 세 사람이 죽었어요.

세 사람이 죽었지.

\_ 그분들은 보초서다가요.

아니 그 사람들은 집에 있다가.

\_ 집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거 뭐 아무리 결사대라도 인제 말하자면 대항하는 우리가 했던 병력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는 여기는 일단은 후방이니까 조금은 후방이니까 총소리가 나고 하니까 밖에들 나왔다가 그냥 죽은 거지.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던 사람은 괜찮았고 밖에 나왔던 사람들이 대다수 죽은 거지. 진짜 한 사람 죽고 두 사람 죽고 세 사람 죽은 거지.

\_ 그세 사람 기억나세요. 이름이.

이름은 모른다고.

\_ 이름은 몰라요.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_ 오래 돼서요.

오래 돼서. 세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은 붙들려 가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6.25나고서 아군들이 진격해 들어갔었어. 평양 저쪽으로 다 들어가니까 인제경찰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정구역이 여기 원래 인제군 남면인데 38선이 자르니까는 행정구역을 홍천으로 붙이다 보니까 홍천군 신남이 됐는데.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인제경찰서라는 게 행정상으로는 인제군도 있고. 행정상으로는 그랬다고. 홍천에서 있었으나 명칭은 가지고 있었다. 38선이 없어지고 사람이 왕래하니까 인제경찰서가 수복을 들어간 것이라고. 정식으로. 치안수복을. 그래 들어가 있다가 인제 개들이 1월 4일. 아군이 1.4후퇴니까

1월 4일에 총 후퇴를 했으니까. 그 기간이 가까우니까 애들도 정보를 알았겠지. 그러니까 밤으로 자꾸 피습을 하더라고 꼭 밤이면, 낮에는 없어졌다가 밤이면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 날 저녁에도 들은 바에 의하면 정보가 좋지 않으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38선은 없어졌다고 해도 전에는 이북 땅이었으니까 우리가 불리하니까 일단 38이남의 옛날 우리 본거지로 후퇴한 거지. 거기다 병력을 배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날도 역시 기습을 했는데 전방에서 병력끼리 싸운 것이 아니라. 강가의 물줄기를 타고 후방을 말하자면 기습공격을 한 거지. 재네들이 적의 후방을 기습공격한 거지. 여기 와서.

\_ 그때 그러면 여기 인민군 3개 사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3개 사단이. 아 그거는 들은 얘가지. 한 3개 사단이 집결해 있었다고. 서화라는데.

\_ 그러면 인민군 3개 사단은 어디로 간 건지 모르세요. 나중에.

우리는 1.4후퇴하고 그 뒤로는 여기는 중공군을 못 봤어요. 개들이 나왔지.

\_ 아 중공군을 못 봤어요.

예, 못 봤어요. 여기는 중공군이 안 나왔어요. 인민군이 나왔지.

\_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민군이 밀고 나온 거군요.

그렇지. 그러니 그때부터 시작한 거야. 개들이.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군사적인 것은 모르니까 민간인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그네들은 뭐 그러니까 자기네들 끼리 그런 정보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인체경찰서가 수복 들어가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 가서 치안을 유지했겠지. 거기도 사람이 살고 그러니까. 그해 한 10월 달 쯤 되니까 개들이 살살 기습작전을 하더니 1월 달 가까이 되니까 자꾸 찾아지더라고. 규모가 커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기습을 했는데. 그 규모가 자꾸 커지고 아 그 12월 달 가까이 가니까 기습이 잦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여기도 한 1주일 간 함락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한 12월 달 되겠다. 그

리고 여기도 개네들한테 기습을 당해 가지고서는 전체가 개들 수중에 들어갔었는데 뭐. 여기서부터 한 신남까지. 기습을 당해서 개네들 수중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아군들이 들어왔는데요 뭐. 아침부터 들어오더니 저녁때까지 하루 온종일 들어오더라고. 또 후퇴해가지고 갔지요. 또 서울서 인천도 내렸었잖아. 서울 수도도. 작전 상 후퇴라 그러지만도. 우리가 총 1월 1.4후퇴라고 하는 1월 4일 날 북에까지 들어갔다 철수를 해가지고 있다가 38선까지 왔다가 또 후퇴를 해가지고. 여기는 고생 무척 했어요. 그 바람에, 자꾸 이렇게 전진해 나왔다가.

\_ 여기는 공백 기간일 때 군인들은 없었어요.

거 전쟁할 때만 보지.

\_ 그러면 경찰만 나와서 지켰어요.

경찰이 지키고 하지. 군인들이란 있을 수가 없지 다 전방으로 투입됐으니.

\_ 그러면 여기는 경찰하고 인민군 3개 사단만 남아 있었네요.

3개 사단인지 뭔지는 들은 얘기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쉽게 얘기 하자면 인민군 패잔병들이 그때는 서화라는 데가 아주 오지예요. 지금은 도로가 났지만 그때는 도로도 없었어요. 그 서화라는 데는 아주 오지 중에도 오지지. 그러니까 개네들이 그 지역이 좋으니까 그 지역에 은거해 있다가. 개네들이 벌써 중공군 나오기 전에 먼저 여기 38선 돌파했어요.

\_ 어르신은 그러면 이 동네 계속 사셨어요.

여기서 계속 살았지요.

\_ 어렸을 때도.

아.

\_ 몇 대를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몇 대가 아니라. 어 할아버지가 여기. 원래는 춘성군

북산면에 있었어요. 조교리에.

\_ 조교리에.

거기서 살다가 내가 4살 먹어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해방직전에 여기 들어왔다고. 여기.

\_ 해방직전에.

예, 해방직전에 들어왔다가. 여기 우리도 사실은 살기 좋은 데를 골라 간다고 동해안으로 갈까 뭐 할까 하다가 임시 근거지로 여기 땅이 좀 있으니까. 그걸 또 해가지고서는 일단 8.15해방되고 38선 되고 그러니까 막히고 이러니까는 여기서 살았는데.

\_ 본은 어디세요.

순흥.

\_ 순흥. 안 씨들은 대부분 그쪽이세요.

벽산이 또 있더라고.

\_ 아 벽산이.

순흥이 많아요. 주로 순흥 안 씨예요.

\_ 순흥이 그지역이 어디.

경상도.

\_ 아. 그럼 여기는 4살 때 들어오셨고. 조교리 사시다가. 그 6.25 나던 해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16살이나. 16살 되었을 거예요.

\_ 그럼 부모님은 어디 사시고.

여기서 같이 살았지요.

\_ 농사지으시고요.

그럼요. 농사지었지요.

\_ 형제들은 많았어요.

형제들은 내 동생하고.

- \_ 딱 두 형제였어요. 동생 분은 어디 다른데 가서 사시고,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 \_ 가끔 내려오시겠네요. 고향 생각나고 그러면. 그 동생 분은 지금 뭐 하세요. 지금은 하는 것 없지요. 환갑이 넘었는데.
- \_ 아, 정년퇴직 하시고. 어르신은 그때 공무원 한다고 그러셨나요. 예전에. 나요. 난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 \_ 춘천 가서 사셨다고. 예, 춘천 살았어요. 캠프페이지 있었어요. 춘천에.
- \_ 아, 캠프페이지요. 그 당시 옛날에는 좋은 직업이었다면서요. 지원 공병단 있어요. 미8군에. 난 보급과여서 보급관리 했다고. 캠프 페이지서.
- \_ 그럼 캠프페이지 물품을 혼자서 좌지우지 하셨겠네요.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병이니까.
- \_ 공병단 그 쪽에만. 뭐 다리도 놓고 집도 짓고 무슨 이런 공사도 하고 뭐 설게도 하고 막 사도 짓고 별 것 다 했어요. 훈련도 나가면 그것도 지원해 주고. 지원 사령부니까. 미 8군의 지원사령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 모든 저거는 지원사령부에서 민간인 가지고 지원한다고. 군인이 한 게 아니고.
- \_ 그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지원사령부가 하나니까. 하나니까 전체를 다 지원하니까는 뭐 춘천도 있을 수도 있고 서울도 있을 수 있고 대구에도 있을 수 있고 갈래가 많지요.
- \_ 이 동네는 옛날에 다 각성바지가 살았나요. 여기는 다 각성바지였어요.

\_ 집단부락이 아니고.

집단부락 아니었어요.

\_ 징용 끌려가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일제 때.

물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잘 모르고, 국민학교 3학년 때 8.15해방을 맞았는데요.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징용 갔다 온 사람.

\_ 여기도 일제시대 때 훈련시키고 그런 곳 있었어요.

아이 그런 것 없었어요. 그리고 남면 행정부가 지금 신남인데 여기가 아니고 원래 관대리에요. 거 군단자리. 거기가 원래 면소재지라고. 38선 갈리면서 홍천군 편입되면서 남면 소재지를 여기 만든 거지. 원래 관대리에요. 그리고 여기 댐 되고 뭐 그래 사람 안 살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상황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뭐 8.15해방되니까 8.15해방되었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미군들이지. 들어와서 38 경계를 하고, 38이북에는 소련군이 나왔다고 하는 소리만 들었지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 거기는 소련군이 나와 가지고 2차대전 끝나니까 그네들이 저거 한 거니까. 나와서 38선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38경계를 해 달라. 그 사람들이 철수를 하고는 인제 남에서는 경찰력이 들어와서 치안 유지를 하고, 군인들은 지금 두촌이라는 데 거기다 본부를 두고 여기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38경계만 시찰만 해요. 시찰만하고 도로 가요. 그리고 본부는 지금 두촌이라는 데 거기 본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그리고 38이북에는 치안대가 뭐 아나 보안대 38보안대가 자기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 다음부터는. 거 미소 양군이 있을 때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초기에는. 뭐 친척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막 고조되고 하니까 막 못 가게 하더니. 총질이 나고 그러니까. 경계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고지 근무를 하고 개네들도 고지근무를 하고. 6.25전에도 한 20일 정도 여기서 피난 갔다가 왔었는데요. 개네들이 침투해 나와 가지고.



\_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한 6월 달인데 몇 년돈지는 모르지만. 6월 달에 개네들이 해가지고.

\_ 6.25전예요.

예, 해가지고. 지금의 신남까지 함락돼 가지고 한 20일 동안을. 그때 우리 한국군은 7연대라고 그러지. 7연대.

\_ 7연대.

7연대가 여기 있다가 전투를 하다가 실패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8연대 6중대가 여기 들어와서 38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_ 그래서 밀린 거예요.

도로 뺏었지. 그때 도로 뺏은 거죠. 뺏어가지고 현역 군인이 들어오고 8연대 6중대라는 군인들이 들어와서 저기 600고지고, 저건 681고진가 그렇다고, 저쪽 704고지. 거 이름이 있는 것은 600고지 681고지 704고지 이렇게 군인들이 정식으로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6.25를 맞았지.

\_ 여기 인민군들이 통치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거 북한이.

통치한 기간이 있었지요.

\_ 그때 인민위원회도 설치하고 그랬지요.

물론 했겠지요.

\_ 어르신은 못 봤어요.

그때 저 거기 그때만 해도 우리는 나이가 어리니까 크게 무슨 저것 받지 않고. 말만 들었지 우린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동네와 달라서 여기는 38선이 있기 때문에 뭐 이북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데는 뭐 빨갱이들이 많고 무슨 뭐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없어요.

\_ 죄익도 없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있을 수 없지. 최전방인데. 이북에서 어떻게

정치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정치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없으니까는 여기선 그런 거는 없다고. 뭐 빨갱이라고 죽이고 뭐 아군들이 죽이고. 그러니까 왔다갔다하는 아주 전쟁은 있어도 그런 고통은 안 받았다고.

\_ 북한이 통치할 때도.

북한이 통치할 때는 모두 산 속으로 다 도망가고 애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만 있었는데. 누가 있었나. 다 산속으로 도망가고.

\_ 여기는 통치 기간이 상당히 오래였잖아요.

6.25나고 8월 달에 벌써 아군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인천상륙작전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고. 아 맥아더가 참 머리를 잘 썼어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저 아래에서부터 진격해 들어온다면 병력 손실이 민간인 피해는 얼마나 났겠어. 그래 인천상륙작전을 해가지고 허리를 꿰으니까 맥을 못 쓰고 그냥 다 철수한 거지. 그거 뭐 함흥 상륙작전도 하고 평양도 들어가고 백두산 근방에 다 들어갔는데요. 말 듣기로는 김일성이가 뭐 자동차로 내려서는 (?) 있었다고. 하하하. 다 내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래 젊은 사람들은 군인 갔다 죽었는데. 중공군이 문제예요.

\_ 중공군이요.

예 중공군이 그때도 중공군이 개입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맥아더가 모가지 잘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중공군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주 폭격을 해서 제지 시켜야 된다. 그러니 미국정부에서는 또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걸 제지해서. 맥아더를 불러들여서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 맥아더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갈 뿐이다.” 그랬잖아요. 하하하.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미군들이 희생이 많이 나니까는 미국의 본토에 그 민간인의 여론이 지금 저 이라크나 월남전 때처럼 여론이 좀 심했어요. 미국시민들이. 그래 가서 죽으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그래 중공군이 나오는 바람에 전쟁이 길어진 거지.

\_ 여기는 중공군이 안 들어 왔다면서요.

못 봤어요. 여기서. 중공군 춘계 공세 3월 달 춘계 공세라고 그래서 화천 철원 저 쪽으로 해서 춘천 대룡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넘어가지고 저 홍천 이쪽으로 넘어 닥쳐가서는 아군들이 그 화력이 세게 저거 하니까는 저 서석 절로 돌아 가지고는 현리 저쪽으로 해서 후퇴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많은 포로를 붙잡히고, 그 전에 내가 한국군 5사단에 쫓아다니면서 있었는데 사단 씨피에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거기 만나 가지고선. 정훈부 보도과라고 있어요. 또 사단 씨피에 그건 민간인들이야 전부 민간인이야. 그래 전쟁 중에 담임 선생님을 만나니까는 넌 좀 어리기는 하지만 붙들리면 이북 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나하고 같이 다니자고 그래 가지고 죽 같이 다녔는데.

\_ 어르신은 그 당시 뭐 결사대라던가 활동은 안 했어요.

그때 16살이니까 안 했지요. 우리는 왜소하고 작으니까는 그렇지만, 덩치가 큰 사람은 더러 한 사람이 있지요. 어린 사람도. 자원이니까 그때요.

\_ 아 자원이었어요.

다 자원이라고. 그러니 결사대는 다 자원이라고.

\_ 나이가 되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무슨 그런 법규가 있어. 행정적으로 무슨 그런 소집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마을에서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한 거지. 말하자면. 우리 결사대 조직하자 그러면 자원해서. 그래 이걸 몰라서 그렇지. 이게 참 여기 전쟁 기록에 하나 남을만 하고. 여 지역으로 봐서도. 규모가 한 200명 정도 됐으니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투는 뭐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밤이면 기습 나와서 쫓겨 나갔다 왔다 하면서 전투를 많이 했어요.

\_ 그때 기록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있었으면 누가 기록을 하고 그랬으면 남았을 텐데. 그저 우리 같은 사람은 나이가 어렸고. 여기

시골인데 무슨 배운 사람들이 있겠어.

\_ 당시 치안은 어땠어요.

여긴 치안이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어느 군인이고 우리 아군이고 인민군이고 그냥 군인들이 와도 그저 스쳐가는 것이었지. 그러니까 그건 뭐 치안이라고 할 수 없지. 마구잡이지. 그저 스쳐가는 거지 아군들도 그렇고 인민군도 그렇고.

\_ 여기 부평리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죽었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요 부락뿐이고. 저 안으로는 또 모르지.

\_ 많이 죽었더라고요. 제보 하시는 사람들 마다 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 결사대 얘기를 하죠.

\_ 예, 그 결사대 얘기도 다 하고요. 그 한청 얘기도 다 하고. 한청. 먼저 장0실 어르신도 와 가지고 말씀 하셨잖아요. 김0봉이라고.

누구요.

\_ 김0봉이라고. 한청에 있었는데 총살을 당하였다고.

나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런 게 없는데. 총살당하고 붙들어 가고 그런 거는.

\_ 하여튼 부평리에 사건이 제일 많았던 거 같아요.

여기는 하여튼 사상적으로 빨갱이라는 것은 모르니까. 여기 전체가. 그런 게 나면 다른 동네에서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없고 여기 전방지역이니까. 주로 이북에서 몰수당해 가지고 나와서 산 사람들이 조금 많았지.

\_ 재산을 몰수당해서 여기로 쫓겨 나와서.

우리는 지주가 있잖아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주가 있잖아요. 농사지어서 이렇게 수거해 가고. 그런 걸 법으로 정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분배생활을 했는데. 이북은 몰수제도예요. 무조건. 밤에 쳐 들어가서 다 내 쫓고 그냥 짝 뺏는다고 그리 몰수라고.

\_ 여기도 지주가 있었다고요.

여기도 왜정 때는 해방되고 지주가 있어가지고 부자 사람들이 다 땅을 차지해가지고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없는 사람들은 소작이나 해먹고 그랬지요.

\_ 그지주분들은 북한에서 내려 왔을 때 피해 없었어요.

피해가 있을 수 없지. 우리는.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해 가지고 행정으로 남면 인제군 남면 이렇게 했지. 우리는 국가 법령에 의해서만 따라서만 살았지. 6.25가 터지면서 병력이 쳐나왔다 쳐 들어갔다 하니까 치안 공백이 생겨가지고 고생들 한 거지. 아군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정식으로 한 후에는 그런 거 없지 뭐. 데려가 죽이고 뭐 그런 거 없다고요. 여기는 그런 건 몰라요 난.

\_ 인제 덕산리 쪽에 가니까 그 북한에서 통치도 하고 그랬다고.

인제 덕산리는 틀려요. 거기는. 이게 38선이라니까. 강이. 거기는 38이북이라고. 거기는 6.25전까지만도 그네들이 치안을 했고 그네들의 정치를 받았고. 우리는 여기 38이남에는 대한민국 땅이고. 이승만 박사가 우리 초대 대통령으로 투표까지 했고. 여기는.

\_ 전혀 다른 지역이었네요.

아 전혀 다르지. 이 강이 38선이야. 바로 38선이지. 이 강이. 그리고 이 북에 저쪽에 높은 산에는 인민군이 있었고 여기에는 아군이 있었고. 6.25가 나면서 인민군이 쳐 내려오니까 인제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아군들이 진격하면서 여기는 빼놓고 다들 제쳐놨어요. 군인들도 여기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공백 기간이라니까 여기. 홍천까지는 들어와서 춘천을 거쳐서 절로 내려가고.

\_ 춘천 화천으로 가고.

그렇지요. 동해안으로 따라서. 이게 태백산맥이 여기 지금 이리로 내려가는 바람에 저쪽으로 치우쳐 동해안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아군들이 밭을 밟지 않았단니까. 아니 패잔병이 들어가다가 그렇게 몰렸었다니까.

\_ 그러면 여기는 그 일종의 전쟁을 제대로.

사각지대라니까.

\_ 사각지대.

어. 그러니까 인제 수복이 되니까 인제경찰서가 인제 두촌으로 조그맣게 있었는데 여기 38선이 그 다음에 없어졌잖아. 인제 아군이 저기를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치안을 들어갔다니까. 원래 인제경찰서가 인제군청이 지금의 현재 있는 그건데 38이북으로 되어 있다가 아군들이 진격해 들어오니까는 인제 정식으로 치안을 들어간 거지.

\_ 그럼 아군이 이쪽으로 들어 온 시기는 언제예요.

아군이 들어 온 거는. 1.4후퇴에서 저기 대구에서 내려갔다가 전부 올라 왔으니까는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월.

\_ 51년도 1월이요.

1.4후퇴라는 게. 1월 4일 날 중공군이 들어와 후퇴한 거예요.

\_ 그때 군인들이 후퇴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공비들이 그때 이렇게 우리가 여편 아니라 다른데 또 있었겠지. 그런 게. 아이 공비가 나 얘기 하는 게 공비가 여기 출몰해 가지고 차단되니까 아군들이 길이 막히니까 배로 철수했지. 함흥철수 작전 얘기 못 들어봤어.

\_ 예, 들어봤어요.

미 10군단이 거기까지 들어갔다가 함흥철수 민간인들 비참하게 군인하고 막 껴서 그 배에다 실고 부산에다가 쏟아 냈잖아. 부산에 이북 피난민들이 거 금순아 뭐 영도다리 그랬잖아.

\_ 여기 그러면 사각지대로 있는 기간은 언제였어요.

사각지대. 그러니까 나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로 6월 25일 날 해 가지고 인민군들이 여기 거쳐만 갔지 또 저 먼저 전진해 다 가니까 잠깐 동안만 봤지. 보지도 못 했지 다 이쪽으로 개들이 전진해 다 나가고. 그리고 개들이 여기 와서 치안 좀 하기는 했어요. 조금 뭐 민민위원

장 무슨 이렇게. 그런데 여기 사람들 어지간한 젊은 사람들 다 피난 나갔고, 못 나간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 다 숨어있고 여기는 무슨 젊은 사람이라고는 없으니까 변변히 치안이나 마다 그렇지. 사람들이 여기 집 몇 집 안 되는 거. 그렇지 않소. 동네가 크면 모르지만.

\_ 동네가 컸다고 그러던데요. 수몰되기 전에는.

큰 게 결국은 여기 위에 동 음양동 구만동 청구동 다 이래 부평리가 이게 동이 여러 개예요. 동이. 저 지금 몰 차 있는데 산 끝에는 구만동이라고 한 동네 살았고 고개 너머엔 청구동이라고 한 동네 살았고 여긴 또 음양동이라고 그래 한 동네 살았고 그래 이게 몇 개동이 모여서 부평리인데 전체를 보면 많은데 이렇게 와보면 요 조그만 거 한 동네인데 저쪽에 한 동네지 그래 전체가 부평리지. 이게 다하면 크다고 그러는데 게 같은 부평리라도 저 고개 너머 사는 사람들은 안면만 있지 이렇게 접촉이 없고 떨어져 사니까 그래 여기 다르고 저 안에 가서 얘기 들으면 다르고 다른 게 그래서 이게 터진 부락이 못되고 이게 막혀서 끊어졌기 때문에.

\_ 이 지역이 아주 특수한 지역이네요.

특수한 지역이지. 바로 고지 밑에 사니까. 38선 고지 밑에. 여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완전히 정부수립해 가지고 정식으로 치안을 한 38이남 행정구역이라고. 여기. 행정구역인데. 다시 얘기하자면 인제군 남면인데 둘로 잘려 나오니까 행정구역을 설정하려니까 갖다 붙일 데가 없으니까 홍천군에다가 편입 시켰는데 홍천군에 남면이 두 개가 되니까 홍천군 남면이 있고 이게 신남으로 되고 그래서 이게 아주 이름이 돼 버렸다고 아주.

\_ 말씀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게 중요한 얘기가 다른 거는 중요한 것이 없고 사람도 많이 죽지 않고 뭐 붙들려 가고 그런 것뿐이지. 아군들이 들어오면서 여기를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서 저 평양 저쪽으로 다 들어가니까는 중공군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공비들이 중간에서 자꾸 침범해 가지

고 해서 차단되니까 아군들은 배를 타고 또 이래 가지고 다시 더듬어 올라왔다고 이리로. 그래 올라 와 가지고 여기 3사단 22연대 23연대 18연대 뭐 이래 오는데 아침부터 하루 온 종일 들어오더라고 군인들이 우리 한국군들이 들어오더니만 저녁 때는 다 나가더라고 군인들이. 그러니까는 저 아래 어디 가서 모아 놓고서는 계속 폭격을 때려 가지고 그러니 여기 적진이 됐었죠. 재들이. 그러니 여긴 인민군만 봤지 중공군은 보지도 못했어.

\_ 미군들의 피해는 없었어요.

미군들이 왜 피해를 줘.

\_ 뭐 민간인들을 성폭행 하거나.

아이고. 그런 거는 부분적으로 어디나 있지. 여기는 조그만 동네니까.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가 더러 있기는 해도 여는 잘 모르고. 그때나 이따나 다 마찰가지야. 미군들은. 저네들이 막사치고 저네들이 군인들 접호하고 뭐 접촉할 일도 없고.

\_ 감사합니다.



## 7

## 소양강의 핏물



구술자	장영찬
구술자 나이	79세(1931년생)
면담 주제	6.25전후의 수산리, 상하수내리 구술자의 삶
면담 일자	2008. 12. 8
면담 장소	상하수내리 구술자의 집
면담자	이학주

6.25전쟁 전후 상하수내리의 상황을 이야기해 줄 사람으로 남면 주민들은 다들 한청 활동을 했던 상하수내리의 장영찬 씨를 꼽았다.

장영찬 씨는 고령으로, 당시 상황이 시간의 경과로 인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젊었을 때의 사실이라 대부분 정확하게 기억을 더듬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듣기 힘들기는 했으나 녹음을 풀면서 몇 번에 걸친 반복으로 인해 다행히 듣고 기록을 했다. 2008년 12월 8일의 인터뷰 내용을 신는다.

장영찬 씨는 한청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군속으로 함경도까지 가서 고생을 하면서 지내기도 했다. 몇 번에 걸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손가락까지 잘리면서 살아 돌아온 전쟁의 영웅이라 할 것이다. 기절을 했다가 깨어보니 손가락이 잘렸다고 했다.

비록 그의 고생이 개인적으로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그 역할이 크다고 할 것이다. 긴박했던 상황을 따라가 보자.

## “소양강의 핏물”

\_ 어르신 먼저 저희들이 왔다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렇게 뵙는 것처럼 저희들이 몇 가지 여쭙 볼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영찬이요.

\_ 동네에서 뭐라고 불러요? 이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영찬이라고 부르지만 그전에 애들은 귀동이라고 불렀지.

\_ 아명이 그랬어요? 아명이 귀동이었어요?

아 내가 귀동인데. 호적 이름은 영찬이고 여기 상수내리에서도 장귀동이라 그러면 더 잘 알아들어. 장영찬이라 그러면 잘 몰라. 호적이름밖에는 잘 몰라. 면 직원들 우체국 직원들 모르는 사람 많아요.

\_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올해 79세가 됐지요.

\_ 아 그럼 몇 월 몇 일생이세요?

12월 26일.

\_ 아. 12월 26일요. 그 여기 뭐야. 어르신 본관은 어떻게 돼요? 어디 장 씨예요?

단양입니다.

\_ 아. 단양이예요? 부모님은 어디 계셨었어요?

부모님도 여기 계시다가 다 돌아가셨지.

\_ 아. 직업은 농사고요? 농사 지으셨어요? 부모님도?

농사지었지. 우리 단양 장씨는 39대 제가 종손이에요. 종손인데 여기서 저 10월 7일 날... 가만있어. 12월 7일 날. 양력 12월 7일 날 여기

서 와서 다 여기 와서 서울에서도 오고 다 와가지고 여기 와서 신나게 잡숫고 잤어요.

\_ 며칠 전에 지냈어요?

예.

\_ 12월 7일 날?

예. 여기 돌아가면 산소가 많을 거요. 그것도 우리 집안 거예요.

\_ 그럼 여기가 장 씨 집성촌인가요? 장 씨들이 여기 많이 모여사나요?

요 근래에 하수내리라고 있었는데요. 댐 밑에 거기는 150호 사는데도 김 씨네라고는 두 집 밖에 없어. 근데 댐이 되는 바람에 부산으로도 가고 서울로도 가고 용문도 가고 원주로도 가고. 그때는 12월 7일 날 다 들어오지.

\_ 아 예. 형제는 많았어요? 형제는?

우리 형제요? 우리 형제 4형제 있었는데 7남매죠. 맨 밑에 끝에 동생이 요 밑에 살고 부대... 양구대교 건너와서 부대 자리 있잖아요. 거기 내려오면 거기 살고 꼭대기에 살고 그리고 복판에 그... 나는 공산당 싫어요...그...

\_ 이승복?

예. 그때 내 동생은 총 맞아 죽고요. 그래서 그때 홍천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그때부터 애들 데리고 보상받으면서 애들 길러가지고. 큰아들은 울산에서 개인택시 끌고 또 하나는 아주 젓먹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길러가지고 거기 있고. 그리고 셋째가 죽었는데 셋째는 먹고살기 위해서 겨울을 여기 와서 제사하고 가다가 바람이 세니까 바람에 밀려가서 죽었어요. 방위 서는 애들이 보고서는 여기 일반 배들... 그때는 기계배는 없고 전부 노젓는 배. 그거로 꺼내어 왔는데. 한 시간 있다가 죽었나. 그래. 탄나라로 보냈는 거지.

\_ 그럼 여기 해방되고도 사셨어요? 해방 후에? 6.25전에 사셨어요?

6.25전에는 여기 사람이 없어요. 강이 그러니까 저쪽까지가 38선이

고. 저긴 이북이고 여긴 이남인데. 로스키하고 미군하고 나와서 교전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아군이 후다닥 강물을 둘러쌌으니까. 7:37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도 많이 죽고 내놔가지고 현병초소 위에 났어요. 그 초소 강 저쪽으로만 돌아서 그리로 해가지고 동해안으로 나갔죠. 이때는 군인가기 전에는 여기 사람들은 그때 한 15세 16세만 되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여기서 군인 데리고 같이 가서 실탄 나르고... 군인들이 16세만 돼도 군인과 같이 나가 있었어요.

- 여기 저기 전쟁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기 사건이요? 아휴 여기서서 뭐 그걸 일일이 어떻게 얘기를 해. 38선이 막혀가지고서 전쟁터가 돼가지고 우리가 저리 내려가 있었잖아요 저리 내려가 있다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는 동생을 데리고 피난을 가시고 나는 결사대에 있었기 때문에. 수산리 결사대에 가서 여기 있었는데. 대략 보게 되면 저 새끼가 어디가 있다는 건지 다 알거든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 새끼들이 언제 우리 인제를 보고 침범할거니까 이리가자. 수산리에서 보면 춘천 올라오는 길에 대동회라고 있어요. 대동회에 가서 그 사는 국민들은 다 아니까. 야 우리 좀 건네줘라. 이북이니까 이북에는 애네들이 시찰을 안 나온다고 이남에는 38선만 넘어오면 살살히 죽이지만 우리는 이북땅이라서 모른다 말이에요. 양구 사천리라는 데 그리 해가지고 저쪽 이북쪽으로 밤에 오면 밤에도 걷고 낮이면 산속으로 걷고 걸어가지고. 저 새끼들 나올 때 어디로 가서 토벌하는 개들 나타날 거니까 거기에 각별히 유의해서 가야한다. 그래갖고 3일 만에 여길 들어와서 습격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뭐 있나. 다 갔는데. 그래갖고 있다가 여기 국방군이 있을 적에 흥 소령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처갓집이 여기예요. 저기에. 그 옆에 위에 있는데. 마땅히 집이라고 웬만한 화장실만도 못하지요. 사람 사는데. 거기에 흥 소령한테 시집을 갔어요. 한 여자가. 근데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서 6.25사변이 나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흥 중위가 됐어요. 중위. 중위가 돼가지고 흥천 가지고 그쪽에 일리 해서 이리 넘어가면 수산리가 나오는데 수산리라는 데 가면은 결사대가 있

다. 산에 올라가서 매복 잠복하고 있는데 벌써 저기 야 나 흥 머시가 야 면서 흥 소령이 소리를 지르면서 올라와요. 왜 내가 거기 있었냐면 지금 같이 양식을 하면 근데 그때는 양식이 없잖아요. 농사 지어 봐도 없지. 콩인데 그거 먹어야 된다는 사람들 그땐 팔 새도 없고. 그거 삶아먹고 사는데. 매번 이남을 나갔다가 넘어온 놈들은 걸어서 넘어오면 돼요. 거기서 쌀을 여름 보따리 해 들고 자기 갖고 있는 실탄하고 실탄 총만 가져오지. 거기에는 전부 쌀이에요. 쌀 짙어지고 넘어와요. 그러면 먹고 사니까. 다 아는 척도 안하고 잠복하고 있다가 보면 보따리는 보따리 놓고, 우선 급한 것이 신발. 신발 벗기고 양말 벗기고 모자 장갑 하고 그거 상상이나 되나. 보급해주는데도 없고 신발 신고 뛰니까 그제 상태가 어떻게 됐든 신 벗겨서 보따리 지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실탄에 맞아가지고서 조금 피가 날거 같아가지고, 쌀에 피가 들어가면은 딱딱해지고 해. 그래서 그래가지고 와서 배급 주다 살아가고 그랬는데. 하루는 흥 소령인가 뭔가 같이 왔어요. 근데 다섯 이가 왔더라고요. 다섯이서 와가지고 그때 내가 제일 어리니까. "야 귀동아. 담거리로 가자" 인민군 있는 데를 가지는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 뭐라고 썼는지 내가 알아요? 여기는 거 시방 개들이 얼마나 있고. 아무데나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살던 사람이 그 처갓집... 여긴 환하잖아요. 그래서 도로 올라와가지고 하루를 돌아다니다가 개네들 물러가가지고 그러면 내일이면 여기 탈환하니까 내일이면 건국...그러니까 여기도 있지 말고 나를 따라 왔단 말이야. 근데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피난을 못가고 후퇴 못했던 국방부 우리 아군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그래갖고 흥 중위인가 그 사람 따라갔더니 무서우니까. 그래서 매번 그래서 인민군들이 타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가가지고 춘천 채 못 갖는데 미군부대가 들어와요. 뭐라고 뭐라고 내려오라고 말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담당이 민간인인데 말해가지고 저들하고 싸우다가 국방군 패잔병들을 맞닿아놓으니 군인이다. 그래서 자기 소속을 찾아서 가니까 얼마 주고 아 근데 우리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 연합군 포위망 뚫어서 고생을 했으니까 조

금만 더 살펴 오면 우리가 진격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빨리 통일이 될 수 있게 협조가 돼 달란 말야. 협조가 되는 게 뭐냐 했더니. 미 10군단 부대에서 와있는 거야 우리가 와 있는 걸 알고 넘어와 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협조 해 달라 그 말이야. 그 맨 처음에 말하자면 미10군단 이게 A지구고 B지구고 W지구고 했는데, 누구누구는 A지구, 누구누구는 B지구... 그럴려고 일주일을 가르쳐요. 말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요건 잊어버리지도 않아. 아니 당신들이 미군이고 어디고 외국사람들이라 해도 이 말만 하면 유아더패스 이러면 아이엠어패스 그러면 미군들은 이렇게 손들잖아요. 미군은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고 와서 어디서 들고 왔냐고 말야 아무데나 있다고 하면 그거 어디까지나 통역관을 불러가지고 통역관을 그거하고 알았다. 아주 뭐 손가락 여기만 자그만 해요. 거기다 탁 찍었기 때문에 그래 갖고 뭘 알고 하면 아무나 찍어주니까. 그래갖고 나오게 되면 이 미군들은 원래 이복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나오면 고생했다고 말야. 너 말야 어디 가서 뭐해라 이렇게 하고. 어디에 가서 정보를 캐고 받으러가고. 미군애들은 그거 없어요. 그거를 묻더라도 답해주면 안 된다. 빨리 군단에 들어와서 애길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 알고 지내기 때문에 안하고. 한국군인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군은 어디가 뭐 어쩌냐 한국 사람이 한국 군인이라는 것부터... 미군들은 안 그래요.

\_ 어르신이 다쳤잖아요. 여기 손가락 다쳤잖아요. 그거 언제 어떻게 다쳤어요?

한... 하여튼. 이쪽에서 화천쪽 나오는데 말고개라고 있어요. 그 말고개에서 넘어져서 다쳤으니까요. 어디에 있는 어디인지. 거기서 다쳤어요.

\_ 어떻게 다쳤어요?

하여튼 새벽에 공격이 있었는데요. 개네들이. 그 반을 나와도 인민군 중공군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도 한국사람 넌 어디서 왔니 그거 묻는 놈들은 없으니까. 그래 통메고 자세히 못 보니까 며칠까지 어디 게 돼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 가끔적이면 미군들이 시

비가 나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죽이면 희한하게 생각하잖아요. 미군들은 막 나가고 아니 중국놈 나와서 죽이면 그냥 밤에도 나오고 그래요. 밤새도록 나와서 오게 되면 한... 여기로 말하면 신남정도 여기 신남 있잖아요. 신남 정도 거기다 하면 이번 치부터는 조를 짜게 해요. 누구누구누구는 어디로 누구누구는 어디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로 오기 전에 결과를 받게 되요. 어디 쫓 가서 맞아야겠다. 자기도 그렇게 하면 뭣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시시각각 다 틀리잖아요. 말하자면 한 소대가 쪽 그냥 올라가게 되면 옆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또 올라가는 거야. 거기서 해가지고 계곡이 아니면 은신할 때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있으면 되는데 허허벌판 이런데 나뿐이 아니고 보초서는 사람이 많아요. 한번 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게 오는데 정신 못 차려요. 난 그래서 거기 차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아군이라 해도 깜짝 놀라게 돼요. 깜짝 놀라면 벌써 내가 어디 다친 거예요.

\_ 그래서 그때 다친 거예요?

예. 그래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정신이 어디가 있는지 아픈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날이 새다 보니까 후퇴할 때가 됐는데 나중 에 내려오는데 손 붙잡고 내려오고 하는데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북 애들 그런 애들은 한국말이라도 쓸 줄 알지만 중국 놈들은 뭔 얘기 하는지 알아요? 한국 놈들은 있다가 두고두고 가고 그랬는데 가려고 하는데 조용 해가지고 벌써부터 다 빠지고 없어요. 그때 보니까. 4주 넘으니까 아물지를 앓아요. 하여튼 피 같은 거 새 나가는 게 분간을 못해요. 나뿐이 아니고 탄 놈들도 피나오고 그랬는데. 그리고 있으니까 미군들은 절대로 이 교전 끝나고 투입을 해요. 한국군인은 포복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거기 들어온 게 있나 전기고 뭐... 그러니까 유아어패스 그러니까 아이엠어패스 그러니까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위치 어디냐고 뭐를 내가 흔들 거니까 거기를 나오라고 나와도 괜찮으니까 나오라고. 나오니까 미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총 들고 거길 한 다섯 사람 내려왔어요. 유아어패스 아이엠어... 이러니



까 거기가 말짱히 나간 거예요. 가까이 와서 거기 있고 총을 하나만 탁 들고 어딴냐고 가운데 어디 있다니까 그래서 맞다고 했는데 총 메고 오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선 급한 것이 피가 묻으니까. 묻은 건지 응급치료를 해가지고 내 발로. 아군을 만나니까 그 다음에 정신을 잃은 거예요. 내가. 헬기를 탔는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나오니까. 미군 군인들 병원. 야전병원이죠. 야전병원이 아니라 임시 무슨 거기 가서 하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지 관대리 있었거든요. 있더라고 온통 개들 돌아다니는 거 그거부터 신고를 해야 하니까 신고를 했더니 아 고생했다고. 이북주민인가 다 하고 그랬더니 그날 봉대감고 피나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야. 근데 그다음에 아군이 테러를 해가지고 강 건너에 와있었고 이 미군들은 보초가 있었어요. 그래 장소로 이동 할라고 양구 남으로 갔다 이거야. 살던 고향이 여기니까 양구 방향으로 가라니까 갔다 오라고 그렇게 된 거지. 그때 처음으로 나왔는데. 장홍순이라고 그 미군 포병한테 맞아 터지고 있더라고. 그 장홍순 그 집이 그때 남한에서 들어보고 다시 못 봤지.

\_ 그래서 그 치료도 하고.

난 치료 하고 그리고서 일루 해가지고.

\_ 그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결사대 있을 때?

그저 열여덟 살인가. 열아홉 살.

\_ 열여덟 살 정도? 농사짓고? 결사대 들어가기 전에 농사지었어요?

나는 농사 안 지었어요. 그저 군인들이랑 같이 가 놓고 그랬지. 아버지만 농사짓고 어머니는 일하고 그랬지. 그래갖고 군에서 크고서 거기서 밥 얻어먹고 집에 와야 그래도 뭐 콩 옥수수 그런 거만 있는데. 군대에서는 뭐.

\_ 그당시 장귀열이라는 사람도 죽었다면서요? 장귀열 상수리 살던 장귀열이라고. 귀열이. 그 귀열이라는 사람은 그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나보다 한댓살 위예요.

\_ 그럼 스물 둘, 셋 정도 됐겠네요? 그 사람은 결혼 했어요?

결혼하고 있다가 그 양반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 여자도 이사갔죠.

\_ 자식은 없고요? 자식은?

자식은 없었고.

\_ 자식은 없었고. 아 여자는 딴 데로 시집가고,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어요?

그거는 내가 여기서 나와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밑에 현 이장에 사는 데가 분모골이예요. 분모골 저 안에 가면 산마치 고개라고 있는데 거... 이렇게 분모골이 들어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는 산마치 고개까지 이쪽 봉우리 이쪽 봉우리인데 고 밑에가 말하자면 곁에 나오기도 뭐하고, 우선 피난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집이 있는데, 우선 저 뭇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랫집에 들어가니까, 그래 가면 서 다 이제 애를 끌고 가서 올리고서 그러느라고, 가만있으라고, 이 불속에 들어가라고, 먹고선 있으니까, 산골 거기로 가게 되면 귀석이 하고 하여튼 세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_ 굴속에?

그냥 여기서 난 우선 임시 은신하러 왔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날 따라 잡시다. 수산리 올라가야 살지 여기선 못살아요. 하니까 에이 괜찮아 그럼 나 갈 게. 그리고 그 산을 타고 나와 가지고서 위로 올라갔는데 저기... 근데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잘 모르지만 잘 모르겠어. 있어 그래 이제 아무것 있나 물어봤더니 없기 때문에 내리 뛰어가지고서 할머니가 이고 간걸 내가 짊어지고 하여튼 빨리 가 십쇼. 얼로 가시든지 빨리 가시라고. 그러니까 나이 많아요. 일단 잘은 모르고 나를 알더라고 그 할머니가, 알아서 가자. 자기가 그래서 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따리 이고 가는 거를 겁나가지고서 그대로 올라가니까 거기를 가가지고 보따리를 주고서 내가 이제 그 박 달고개 거기 꼭 찾으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앓을 때 등이 살았구나.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튿날인가. 하여튼 그땐 이 말만 떠 돌 뿐이지 애들은 전혀 우리 모르니까 땡기면 붙잡혀가니까 인민군

있는데서 같이 떠들고 인민군 떠드는 얘기 우리한테 와서 다 해주고, 이제. 그냥 내가 그 얘기 나오던 날 붙잡혀갔어요. 붙잡혀갔으니까. 없으니까.

\_ 굴속에 있다가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어요?

그 개평이란 분은 늙어서 죽을 정도 아니면 개네들을 다 끌고 갔는데. 뭐냐면. 실탄 운반, 보따리 운반 그거하고. 그 다음에는 사상. 사실 처음에는 급하니까 보따리만 운반하지만 그 다음에 가서는 들어가서는 사상을 했지. 말하자면 이북이 여기 있었으니까 인민군 사상을 갖고 있었으나. 국가사상을 갖고 있었으나. 아 저 우리 그 여기 38선이니까 자기 친척이 양구에도 많고 이쪽에도 많을 거 아닙니까. 아 니 뭐 할아버지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이북서 나온 거야.

\_ 어떤 할아버지요?

돌아가셨지만. 그때 얘기로 하자면 장 씨네 몇 살인지 모르지만 할아버지인데 이북서 왔어요. 같이 올라온 거야. 너 그러지 말고 자수해라. 자수하면 쉽게 살 수 있는데 왜 너 그러니. 맘을 갖고 얘기하니까. 아버지 뭐 쓰잘 데 없고 어찌고 그런 말쑤를 왜하느냐. 그런 얘기를. 우린 벌써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발로 못가요. 거기.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는 바람에 자수해라 자수해라 하는데 안하고. 아버지 나 가겠습니다. 언제가 볼런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 뒤로 해서 는 못 잡고 떨어져있다고. 그대로 가는 거지.

\_ 그 다음에는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인민군이 잡아갔어요?

인민군이 아니라 간첩.

\_ 간첩이 잡아갔어요?

이북서 친척이 이남에 있으니까 친척한테 나온 사람이 그 아버지한테 와서 말하자면 인민군이 어땡고 어땡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자수해라. 자수해라. 그런데도 우리한테 안 왔었지. 자수해라. 자수해라. 그랬는데...

\_ 그 장윙희라는 사람은?

윙희요. 이북서 월남을 해가지고서 여 상수리에 와서 고생 많았었죠. 한 그때 당시가 그 할아버지가 한 70가까이 됐어요. 그때 윙희라는 사람이 우리 아들 벌 되는 사람 맞구나 와가지고서...

\_ 그래서 윙희란 사람이?

그래서 개들한테 총 맞았어요. 어디서 맞았는지. 그전에. 그래갖고 이제 어찌지도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구하러 오면서 살았으니까. 그땐 약이래 봤자 병원이 있어 뭐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거 뭐야 화기 뻘다는 늙은 호박을 찌가지고 그거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_ 그럼 윙희라는 사람은 어떻게 죽었어요?

근데 노인네만 이렇게 있으면 죽잖아요. 그때야 우리 아들 말이야. 다 죽어가는 거 살리고 있단 말이야. 살려달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래도 뭐. 근데 그 부모 앞에 싸 죽었어요.

\_ 아. 다쳐가지고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부모들 보는 앞에서 인민군이 쏜 거예요?

그럼요. 어휴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벌써...

\_ 그럼 인민군이 장윙희를 왜 죽였는데요? 장윙희라는 사람을 인민군이 왜 죽였어요?

젊은 놈이 총을 맞았으니까. 이거는 남쪽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인민 군 총에 맞은 거 아니냐. 사상적으로 나쁜 새끼구나. 그때 우리 결사 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_ 결사대가 아닌데도?

결사대였죠.

\_ 그 당시에 장윙희라는 사람 나이가 어느 정도였어요?

나보다 한 댓살 잡수셨지.

\_ 스물 두, 세살 됐겠네요? 결국 총에 맞아서... 근데 그 사람은 결혼 했어요?

안했어.

\_ 결혼 안했어요? 미혼이었구나. 부모님들은요?

부모님들은 뭐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시다가 돌아가셨지.

\_ 아. 오래 사시다가요?

아. 그럼요. 벌써 몇 년 전인데요. 내가 열네 살 때야.

\_ 이 사람들 말고는 기억나는 사람 또 있어요? 이 사람들 말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아 여기 시방 나하고 같이 싸우고 한 동갑이에요. 뭇을 하고 참 군에  
도 갔다 오고 같이 싸우다가 수복 돼가지고 양구가 수복되니까 양구  
들어가서 세월을 보내다보니까. 노인 회장을 했어요. 내가. 노인 회  
장을 하다가 아 연락이 없고 연락을 하니까 상을 쳤대.

\_ 전쟁 끝난 다음에 그죠?

아니. 몇 해 안 됐죠.

\_ 전쟁 때는요?

전쟁 때 같이 있었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는 게 다 죽고 나도...

\_ 근데 상수내리 계셨는데 수산리가서 결사대 했어요?

상수리에는 이거. 산이 마땅한 산이 없어요. 거기가면 곰에굴이라고.  
1개 소대가 들어가는. 그때가 요렇게 왔는데 여기 이 이쪽에서 놓고  
서 그냥들 건너가지 들어갈 수 가 없어요. 그래갖고 들어가 가지고.  
그날 그러면 인민군 아니라 볼 수가 없고 거기가 피해가 났어요.

\_ 그 수산리 어디 있었어요?

수산리... 그 거기 이름을 그전에 알았는데 갑자기 모르겠네. 하여튼  
박달골이에요. 박달골 충막골... 골짜기가 있는데. 그거 이름이 있는  
데. 수산리에 가게 되면 수산리도 시방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도 모르지만 수산리 본토 살아갖고 6.25때 수산리 살던 사람 찾아가  
면 박달골 어디어디라면 다 알아요. 아 거기서 피난 왔구나.

\_ 수산리에서 결사대에 있다가 또 죽은 사람들 있어요?

결사대 있다가 죽지는 않았어요. 결국 그렇게 다 해산 돼가지고 이  
저 각 각 지방에 가가지고 자기네 있다가 죽은 건 몰라도 거기서 있

다가는 안 죽었어요.

\_ 수산리에서 어디 끌려간 건 없어요?

끌려간 건 없어요.

\_ 아 끌려간 건 몰라요?

예. 하여간 이 저 그 양반이 결사대는 아니고. 우리 쌀 구해다 주고 그랬는데 인민군 총에 맞아갔고 붙잡혀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걸어요. (절뚝거리심.)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잡혔지요.

여기가 처음에는 춘성군 북산면이었어요. 북산면 상하수내리. 그래 갖고 이제 내평리 있었으니까 학교는 걸어 다니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흥천군 두촌면 상하수내리로 돼 있다가. 양구가 수복이 되니까 양구군 남면 상하수내리 이랬다가 소양댐을 막으니까 인제군으로... 하여튼 여기가 옛날에 다 붙어 먹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군인 갈 때는 춘성군에서 영장 받아갔고 갔잖아요. 춘성군에서 영장 받아서 갔다가 내평 거기 들어 가가지고 군인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잡혀가지고 가는데 나보다 나이 더 많은데 붙잡혀가지고...

\_ 두 분 말고는 어디 다치고 누가 죽고 행방불명 된 사람은 없어요?

귀석하고 옹희하고 말고는. 내가 지금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이름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이름이...

\_ 결사대는 어떻게 조직됐어요? 결사대가 조직이 어떻게 됐어요?

아. 조직이요. 결사대 조직은 그 저 한청단장 있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도 이렇게는 안 된다. 아무리 포위가 됐어도 인민군한테 공납할 수는 없고 우리는 대한민국 한청단이니까 무조건 싸우자 그랬어요. 그래도 여기 김기동 씨가 한청단장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결사대를 한 40명 정도 했어요. 40명 정도 하다가도 여기서는 결사대를 하는데 춘성군 땅이니까 춘성군에서 인민 공화국에서 뭐 한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갖고 해서 우리 인민공화국에서 그러는데 좀 협조를 해주고 그러면 좀 나오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뭐 시간이 임박하던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신 분들 여기서 따라서 같이 가야 된다 이거야. 여기서 수산리로 해서 내평리까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수산리 올라가다 말고서 나는 못가겠소 산길 평지가 아니라 난 못가겠다고. 아무데나 눌러 앉았다고. 1개 나라에서 병들을 뽑아 가면 차에도라도 싣고 가야지. 난 다리가 아파서 걸어 못 간다. 그러면 동무 그럼 차 가지고 오면 해가지고 가죠. 가죠. 일단 이제는 그 사람도 이제 놔두고 가 거길 어떻게 가냐고 나도 못가겠는데 5키로도 못가서 주저앉았어요. 그럼 동무들 몇 월 며칠날 몇 시 경에 해서 들으니까 신남에서 차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거기 또 대기하고서 잘 하라고 말야 알았다고. 그래서 걸어가 갖고 그 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배나무골인가. 그런데를 가갖고 이 상수리를 넘어가갖고 그까짓 거 뭐 여기서 나타나면 그걸 뺏어갖고 하는 게. 상수리 같으면 산이 알아갖고 안되었어요. 나는 수산리로 간다. 수산리... 그 간다는데 뭐라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간다. 그래 좋다 이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난리였죠. 하여튼 우리 결사대 거기 인민군 개들이 들어오는데 전화를 하거나 누구한테 말을 안 하고 오지만 그 산골 피난민들이 다 봤어요. 조그만 애들이 많잖아요. 저 새끼들 오면 수류탄하자 뭐하자 어떻게 말을 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면 못 빠져 나가니까. 시방 개들이 시방 몇 백 명이 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우리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거기 수산리가면 개울로 건너려고 하는데 양쪽의 소나무가 뺨뺨해요. 새벽에 도착을 하려면 한나절 이상 걸리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뽕뽕 총소리가 두 번 나거든 나타난 순간에 어디 어디서 해 모으고... 우리 저 뭐 박격포도 다 있었어요. 박격포 실탄을 보급 해줘. 그 새끼가 실탄을 하나 주면 그것도 실탄이다 그래서 가서 내가 이쪽에 앉았고 뽕뽕 두 방을 쏘니까. 저쪽에서도 알아서 뽕... 몇 방을 쏘니까 떨어지니까. 그래 선발대가 우리 앞에 저기 돌아갖고 그러니까 바위

옆에 엮드려서 그 이제 난 따발총을 들고 있었거든요. 몇 방 쏘니까 저 쪽에서 저 쪽에서 쏘라고 하면 쏘고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몇 대대야 그놈 말야 몇 중대야.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한 놈이 거기서 있더라. 그럼 총 버려 총 버리고 내려오고 했어. 그다음에 막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이 우리를 잡으라고 했지만 우리 정보수집 해가지고 미리미리 해놓아서 독안에 쥐새끼지. 그때 맞아. 그 7연대 7연대하는데 몇 중대 앞으로 하니까 그때 아무도 없어도 올라가야지 보니까 마침 하는구나. 총 버려. 총 버리고... 그냥 하여튼 그 따발총이 많이 죽었어요.

\_ 결사대가 언제 해산했어요?

그러니까 홍 중위 들어올 적에 그때 했지.

\_ 아. 중공군 들어올 때?

아니. 그 중공군 말고 여기서 저 미군이 진격을 했을 적에. 미군 진격했을 적에 한국 군인이라고 했지만 그분이 여기 있던 경비대 있잖아요. 그분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나가가지고 미10군단 갈사람 거기로 가고 탄 데로 가고 편입되고 했지. 근데 10군단으로 간 사람이 많아요. 둘이 살아있다고 말로는 죽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이를 먹고 그래서 그때는 여기 와서 말하면 인민군 말하잖아요. 말을 하면 난 저기서 이대로 총을 들고 총만 지고만 쫓다하면 별거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남의 여자 보고 얘기 할 적에 총 보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 내려와서 몇 방 했는데. 뭐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손들어 이 새끼야. 어깨 총 하고서 하여튼...

\_ 그 한청은 어떻게 활동했나요? 한청. 대한청년단?

한청이 뭐야 한청이? 아. 대한청년단이요. 대한청년단은 그 그때 38선 위로 막히자마자 미군들 왔다고 로스키나오고 그럴 적에 여기로 말하면 그 한청 38선 생기고서 생겼단 말야. 대한청년단이. 그래가지고 김기동이라는 분이 왔다가서 그 다음에 청년단한다고 그냥 하니까 그분이 내놓고 그냥... 그때는 결사대 조직이 되니까...



\_ 그럼 대한청년단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결사대로 거의 다 갔네요?

네. 거의 다 갔어요.

\_ 그 이 마을에는 이 마을은 여기가 38선이라 해가지고 다 남한이었잖아요. 그 여기 넘어갈 때 빨갱이 이런 거 없었어요?

이 동네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_ 그럼 여기 나중에 들어왔을 때 인민위원회 그런 것도 없고요?

인민군이 여기 있지를 못했어요. 인민군이 근접 못했어요. 저번에 양구 저쪽에 보면요. 아주 대부대 통해기는 거 아니면은요 통과도 못하죠.

\_ 그럼 여기는 인민군이 아직 들어오지를 못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인 줄 알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뭐 1개 대대나 그렇지 않으면 몇 개 대대 이렇게 다니지. 그 외에는 뭐 1개 소대는 없었죠.

\_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통치는 못했군요? 여기서 통치는 못 했겠다고요? 인민군이 여기 동네에 와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여기 붙어있지 못했지. 인민군애들 빨갱이 넘어와서 넘어오고 그럴 때 그런 것도 몰랐어요. 혼자나 둘이나 와가지고 그냥...

\_ 경찰들도 있었어요? 경찰?

경찰들은 그때는 이 저 어디 무슨 전투나 하게 되면 여기 한청들이 많이 잘려 나갔지.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개들 직업이 뭐냐면요 통...야 금방 쇠죽이고...

\_ 군인들은 얼마나 있었어요? 군인들?

군인들 여기 8연대가 있다가 그다음에 2연대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2연대가 있는데 우리 청년단만도 못해요. 저기 전방사람들은 괜찮은데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군인 뽑아왔는데요. 여기 서게 되면 있잖아요. 총이 망가졌는데 그게 무슨 군인이야. 그래서 6.25사변 적에 한 청년들이 활약을 많이 했어요. 이름을 다 알아야 하도 세월이...

\_ 말씀 고맙습니다.

## 8

## 생생한 대동아전쟁과 6.25전쟁 이야기



구술자	김종근
구술자 나이	89세(1923년생)
면담 주제	6.25전후의 기린면 구술자의 삶
면담 일자	2012. 11. 23
면담 장소	합강리 구술자의 집
면담자	이학주

아래 상황은 김종근 제보자가 필자에게 건넨 내용이다. 필자가 2012년 11월 23일 김종근 제보자를 만났을 때, 제보자는 태극기와 국가유공자라는 글자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있었다. 나름대로 자부심이 강하게 느껴졌다.

필자가 방문한 뜻을 말하자 곧바로 구술이 시작되었다. 묻지 않아도 줄줄이 그야말로 청산유수와 같이 자신이 겪은 일제강점기의 상황과 6.25전쟁 당시의 상황을 풀어내었다. 숨이 찰 정도로 이야기는 진행되었으며, 이야기 도중에 본인이 강연을 한 내용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말 힘든 상황이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구술자가 겪은 일들이 아주 생생하게 들려왔다. 마치 옆에서 같이 그 일을 겪는 듯한 느낌이었다. 1923년이라는 태생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앨범 뒤에서 꺼낸 무슨 종이를 건넸다. 그것은 자신이 겪어왔던 6.25전쟁 전후의 일들을 본인이 기록해 놓은 원고 뭉치였다. 그곳에는 아주 자세하게 자신의 감정까지 담아서 당시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 그 원고 뭉치를 꺼내면서 이 글을 출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렇게 그 뭉치를 받아왔는데, 그 당시는 구술을 엮는 작업이었기에 출판을 하지 못하고 보관해 두었다. 다행히 이번에 기회가 새로 생겼다. 인제문화원에서 38선의 기억이라는 저술을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김종근 씨의 원고가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되어 다행스러운 따름이다. 원고 내용이 구술보다 자세하여 구술내용을 포기하고 원고를 실는다.

## “생생한 대동아전쟁과 6.25전쟁 이야기”

### 일제강점기 상황

내가 겪은 일제말기 대동아 전쟁과 6.25전쟁 사실내용을 후세들에게 전해 주고자 이 글을 쓴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인들의 노예가 되어 압박과 고통 속에서 일본인들이 하라는 대로하여야 했다. 내선일체 라면서 성씨도 같고 이름도 같고 강제지원병 징용 보국대 17~18세 소년은 요카넨이라고 해서 군수공장으로 데려갔다. 17~18세 되는 여자들은 강제군인 위안부를 시키고 짐승까지도 공출을 하였다.

소, 말, 돼지, 개, 토끼 가축도 공출하고 곡식은 벼, 콩, 옥수수, 밀, 보리, 아편을 심도록 하였다. 아편, 목화, 대마초, 피나무 껍질, 싸리 나무 껍질, 신당나무, 머루나무, 칩잎, 신당나무잎, 송진소나무 뿌리, 관솔소나무 솔웅지, 낫쇠로 만든 밥그릇, 손가락까지, 청동화로, 짚 신가마니, 한 가구 당 10매씩 공출하라고 하였다.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시켜 학교에서 매일 아침 아동 일인당 솔은지 20분씩 가져가야만 했다. 모든 곡식을 공출하고 식량이 부족하여 식량배급을 주는데 일본말을 해야만 하고 황국신민선서를 외워야 했다. 초등학교에서도 우리말을 못하도록 하며 딱지를 만들어 10매씩 주고 우리말 한 번에 딱지 1매씩 압수를 하여 10매을 다 압수당하면 화장실 청소를 시킨 다음에는 우리말을 하면 한 번에 1전씩 벌금을 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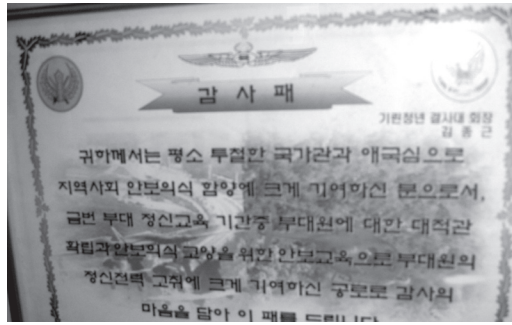
나라 없는 국민의 뼈저린 고통과 설움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양부모를 잃은 고아라면 자식 없는 집으로 입양이라도 갈 수 있지만 국민전체가 그럴 수도 없으니 말이다. 가진 고생을 하다가 애국지사 선조님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어

은 국민들은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목이 터져라 찬지가 진동하도록 조선 독립만세를 부르며 경축행사가 방방곡곡에서 거행되었다. 그런데 원수놈의 38선이 남북을 가로막아 북한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였다. 북에서는 공산당 놈들

이 돈 많은 부자 집 재산과 농토, 집까지 강제몰수를 하여 집을 뺏긴 사람들이 야간을 이용하여 남한으로 월남하여 오기 시작하였다. 월남민이 늘어나자 북한 노동당에서 38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하여 38선 보안대가 경계근무를 하게 되고 우리 남한에서도 경찰을 배치하여 경계근무를 시작하여 남한 왕래는 두절되었으나 북한 사람들이 기린면 장날이 되면 북어를 지고 산을 넘어와서 고무신 광목으로 물물교환하여 가기도 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가 수립되고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어 5.10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3부요인이 확정되어 질서가 확립되었다. 행정 사회단체가 조직되고 군인 경비대대 한청년단, 북한에서 월남하여 온 청년들이 조직한 서북청년단, 서북청년단은 북한에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월남한 청년단체이다. 월남을 하다가 서북 청년에게 발견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초죽음을 당했다.

대한 청년단은 총재 이승만대통령 산하에서 도, 군, 면, 리 단위로 조직이 강화되어 동네마다 청년단 부를 설치하였다. 주임무는 군경들의 보조역할을 하여 경찰과 같이 38선 경계근무를 하여왔다. 38선 경계근무를 허허벌판에서 철조망도 없이 적당한 장소를 택하여 잠복근무를 하자면 불편한 점은 이루 말 할수 없다. 그 와중에 북한 38보안대 놈들은 비, 눈오는 날이면 불법으로 침입하여 경찰청년들을 살해, 납치하여 가곤 했다.



▷ 감사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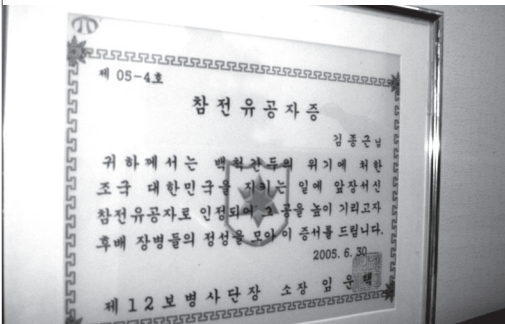
진동리 추대지서 박문식 순경이 살해되고 상수래지에서 이기철 순경이 납치하여 가는 도중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였다. 기린지서에서 김형도, 황영목 순경이 놈들과 교전 중 중상을 당하기도 하고 월평균 2회 이상 기습을 가해오고 하였다. 원대리 북주개 봉사건, 신남면에 어론리까지 진동리 상치전사건, 기린으로 해서 강태무 소령이 1대대를 몰고 월북한 사건, 춘천 관내로 표무안 소령 1대대 몰고 월북한 사건 등 말할 수 없이 사고가 많았다.

38선 경계근무도 경찰로서는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감당하기가 불가능하여 1948년 국군이 담당하고 경찰은 후방철도경찰로 이동하여 철도경비 근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자동차편으로 청도경찰로 가는 도중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를 지날 무렵 누군가 차를 가로막았다. 차를 세우고 보니 야시대리 사람인데 지금 빨갱이 놈들이 와서 청년들을 무차별 살해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했다. 우리들은 무기를 경찰서에도 반납시키고 비무장이니 갈수가 없다하고 춘천에 가서 자고 아침뉴스를 들으니 청년단장 목은 잘라가고 수십 명을 깔로 찌르고 도망쳤다고 하였다.

속담에 '방구가 자주면 똥이 나온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북괴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탱크를 몰고 불법남침을 하고야 말았다. 38선 전 지역에서 우리국군은 총력으로 분골쇄신 전력을 다하였으나 북괴 놈들의 계획적인 침범이라 전세는 풍전등화였다. 물려오

는 이리떼를 당할 수가 없어 작전상 상부에 명령에 따라 후퇴를 하여야만 했다.

같이 참전하였던 한청원과 청년방위대원은 비무장이니 국군들과 같이 행동을 할 수 없어 각자 집에 가서 가족들과 피신하도록 시켰다. 김중근 방위군 소대장은 방위군대원들을 집합시키고 특히 계군들



▷ 참전유공자증

은 부모님과 가족들을 피난처로 모셔 대원들 간에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상호간은 은신처를 알아두어 만약에 소집이 있을 때 속히 응소하도록 지시하였다. 김종근도 집에 가서 부모님과 온가족을 인솔하고 상남리 장덕수집 마당에서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홍천군 동창리를 지나갔다.

빨간 완장을 팔에 메고 한 놈이 오더니 “동무들이 내려가 봤자 소용없으니 집에 가서 김일성 장군님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편히 사는 게 잘하는 거요. 서울이 함락되고 천지가 우리세상이니 근심할 필요가 없고.” 가는 길을 막고 못 가도록 하였다.

동창리에서 약 일주일동안 있다가 가져간 식량도 떨어져 하는 수 없이 하남리 집에 와서 보니 집집마다 벽에 김일성 사진과 스탈린 사진을 부쳐놓았는데 아이들이 사진에 눈알을 손톱으로 파서 없었다.

이웃사람들이 서로 보고 말도 잘 안하고 눈치를 살피면서 접촉도 잘 안했다. 원인을 알아보니 수박인지 사과인지를 알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박은 속이 빨가니 진짜 빨갱이고 사과는 속이 희니 가짜 빨갱이라고 하여 수박, 사과로 구분되었다. 약 10여일이 지나자 기린면 공의이자 면청년단장인 박구하 씨가 찾아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 숨어서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나도 자수를 하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자수하였으니 김종근 당신도 분주소에 가서 자수를 하고 편히 지내라고 애원하다시피 하였다. 다음날 김종근, 홍준표, 한중열, 김용운 4명이 기린분주소에 가서 보니 소장은 함경도 놈이고 차석 하남리 장윤희, 서리 봉덕동 김기말, 현리 박주철, 박주열 두 형제는 형은 남한 경찰인데 그 동생놈이 분주소원으로 있더군요. 그야말로 형제간 동족상쟁도 분수가 있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자수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

다음날 4명이 만나서 임시 산중으로 피신을 하기로 하고 상교동 더령골에 은신처를 정해놓고, 홍인철, 홍준표, 한중열, 김종근, 노현대, 노응원 6명이 상남리 심원섭, 현리 전석하 하고 상남 인민위원장 한명대를 설득시키고 상남리 산림보호국 사무실에 모여 기린 분주소와 노동당 여성 동맹들을 쳐부수기로 회의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찬성



을 하였다. 기린면 분주소에 대한 모든 정보는 현리 전석하가 민청위원장 신분으로 분주소 출입을 할 수 있으니 전석하가 책임을 맡고 김종근은 홍천군 서석면에 가서 집안 조카 되는 김종걸을 설득시켜 기린면 분주소원으로 투입하였다. 김종걸이 숙직 근무하는 날 밤에 무기고에서 무기를 우리에게 내주기로 약속을 하고 공작대원은 하남리에서 홍인철, 김종근 외 8명 상남리 합명대, 심원섭외 8명 총 20명이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김종걸이 연락만 하면 즉시 출동하기로 결정하였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분주소원놈을 만났다. 윤종필 대원이 분주소원놈에게 달려가서 물었다. “동무 왜 왔소.” “한청원을 동원시키로 왔소.” 윤종필이 그놈의 멱살을 잡고 “이놈이 정신없는 놈이지. 민청이지 한청이 뭐냐.” 하면서 발로차고 구타를 하니 “잘못하였으니 용서해주소.”하고 도망쳤다.

하남리 대원들이 집으로 귀가도중 오미재 고개에서 분주소에서 2차 동원을 하기위해 온다는 놈을 붙잡아 산으로 끌고가서 소나무에다 결박을 하고 놈들이 하는 일을 알아내고 이 고장을 점령하고 온갖 만행을 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강제 의용군과 들판에 심어있는 곡식을 조사하여 현물세를 바치라고 하면서 현리 박무호 노동위원장이라고 하는 놈과 계집년들이 손뼉 치면서 장백산 줄기줄기 노래를 부르면서 김일성수령 만세를 부르며 온갖 만행을 하고 있는데 김종걸에게 연락이 왔다. 8월10일 밤 11시 정각에 약속대로 행동하라고 하였다.

그날 밤 상남 하남리 각각 10명씩 20명이 약속대로 11시경 현리 덕다리에 도착하자 덕다리 방향으로 무차별 사격을 하여 분주소로 못가고 덕다리 공동묘지로 도망을 쳤다. 노현대가 김종근이 있나 찾아보라고 한다. “여기있오. 누구 잡



을라고 이런 공작을 했소.” 대답을 해보라하니 김종근은 유구무언이다. 변명이 필요없다. 옆자리에 있던 흥인철이 “노현대 당신 너무 경솔하오. 큰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경솔해서 안 됩니다.” 꾸중을 하니 노현대가 미안하다고 김종근에게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였다. 김종근이 다 같이 살기 위해 일을 하다 보니 잘못되었습니다.

공작 계획은 실패되고 일단 철수하여 다시 피신하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다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정자리 매봉산에 군인이 후퇴하면서 무기를 땅에 파묻고 갔다하여 정자리 매봉산에 가서 수냉식 경기관총 1정을 찾아가지고 현리 뒷산에 배치하여 놓고 야간을 이용하여 분주소 방향으로 사격을 하니 사격이 되지 않았다. 산등 넘어서 확인하여 보니 총알을 빼서 치우고 없으니 또 실패하였다.

상남리 심원섭도 정보를 듣고 우리가 갔다 온 다음날 정자리에 갔다가 인민군패전병과 빨치산 놈들이 아군 복장을 하고 총에 태극기를 매달고 오는 것을 산에서 보고 반가워서 찾아가보니 아군이 아니고 빨갱이놈들이었다. 놈들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였다. 하남리 흥준표, 김종근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 당신을 살려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하고 같이 가자고 하였다. 당신들하고 같이 가면 산에서 보고 도망을 칠테니 심원섭이 우리들이 가서 설득을 시켜 데리고 오겠다고 하니 그러면 “한 사람을 두고 갔다오.”라고 하였다. 한학필 대원을 인질로 잡고 보내주어 왔으니 그리 알고 각별히 조심하라고 하였다. 심원섭이 김종근에게 연락을 하였다.

김종근은 즉시 장소를 이동하면서 철저한 경계를 하여서 김종근, 한중열이 의복을 갈아입고자 밤에 집으로 왔다. 의복을 입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방문을 두드리면서 오늘밤에 김종근을 만나기로 하였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쳤다. 어머니가 재빨리 내방에 오셔서 문을 열어주어도 되냐고 묻자 안 된다고 하고 의복을 입지 못하고 신발과 의복을 안고 뒷문으로 나갔다. 집이 우물정(井)자 집인데 완전 포위되어 빠져 나갈 곳이 없었다.

외양간에 들어가서 소똥을 치우는 곳으로 나갈려고 보니 총에다 착검을 한 두 놈이 총부리를 들이대고 있으니 못나갔다. 우리 집 방

안을 다 수색하고 김종근이 없으니 가지는 소리에 두 놈이 도로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김종근이 나 살려라하고 도망을 치니 “김종근 저기있다.”면서 따발총을 집중 사격하였다. 무사히 구만동 한중열 집으로 갔다.

한중열하고 미기동, 의식동, 후평동 청년들을 피신시키고자 하였는데 후평동 김화발 형제는 산에 있다가 외할아버지 생일을 보러 집에 왔다가 붙잡혀 춘천 관산굴에 끌려가 총살을 당하였다. 광주동 배찬현도 붙잡혀 갔다가 기린면 여성동맹위원장 하고 친척관계로 풀어주어서 무사하였다.

그리고 약 10여일 후 집에서 연락이 왔다. 오늘 인민군 30여명이 맥이 없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 후퇴하는 것 같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고 즉시 하산하여 우리 집은 국도변이고 하여 독립가옥인 홍은표 씨 집에서 작전 모의를 하였다. 김승국 씨가 찾아와서 우리 집에 인민군 2명이 와서 밥을 해달라고 해서 밥을 하고 있으니 속히 가서 해치우라고 하였다.

“알겠습니다.”하고 김종근, 홍준표, 박갑천 3명이 달려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38식 장총과 소련식 아식장총 2정과 배낭 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홍준표는 일본군 상등병이었고 김종근도 소총은 다 사용할 수가 있다. 38식 장총을 보고 물었다. “이 총이 따발총이요.” “아닙니다. 왜 놈들이 쓰던 총입니다.” 구경을 하자고 하니 보라고 해서 홍준표에게 구경하라고 주었다. 아식장총을 보고 물었다. “이 총이 따발총이요.” “그 총은 소련제 아식장총입니다.” 그 총도 구경하라고 주자 받아들이고 구경하는 척 하다가 홍준표하고 두 놈에게 총을 들이대고 “꼼짝 말고 손들어. 우리는 대한민국 국방군이다. 배낭도 내놓고 군복도 벗어라.” 하고 소릴 지르자 우리는 진짜 인민군이 아니고 강제 의용군으로 끌려가다가 도망쳐서 고향으로 가기 위하여 도망중이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다. 말소리를 들으니 경상도 사람이었고 해서 우리가 입고 있던 의복을 벗어주고 인민군 복을 우리가 입고 총을 메고 배낭을 지고 모자까지 인민군으로 완전 무장을 하였다. 그날 오후 5시경 김종근, 홍준표, 박갑천, 김용수, 학

교선생 4명과 하남리 고개 솔밭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인민군 10여명을 발견하고 그 중 5명을 사살하고 소총 5정, 수류탄 10발, 실탄 470발, 배낭 등을 노획하고 산중에서 피신하고 있는 대원들에게 연락하여 그날 밤 완전무장 7명이 되니 마음에선 통일천하를 한듯 하더군요.

다음날부터 덕고개에서 인민군 패잔병과 교전은 계속되어 34일 만에 완전무장 대원 40명이 되자 기린면 전 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하니 지방 유지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각 리 무장대원을 하남리로 모이도록 하였다.

시국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윤동환 씨를 선출하고 위원회에서 부대편성도 하여 대대장은 통솔력이 충분한 홍인철, 부관에 최동섭, 본부요원행정에 박갑천, 부관 김연배, 정보에 이종민, 부관 서리박, 작전에 김남순, 부관 윤선명, 보급에 지영환, 부관 김용운, 감찰에 홍준표, 한중열, 1중대장 김종근, 부관 박치만, 2중대장 이석조, 부관 홍성봉, 3중대장 변영희, 부관 이영학, 중화기중대장 김종금, 부관 남상협, 상남리 중대장 심원섭, 부관 박관시, 미산리중대장 김종철, 부관 신상집, 방동리 중대장 정운학, 부관 전병하, 진동리 중대장 김남철, 부관 박경래, 완전무장대원 총 250명이 부대명칭은 이 자리에 모인 애국청년단원은 백척간두 국가위기에서 국가를 위하여 불고 가사하고 죽음 각오하고 싸우기를 결심하여 기린면 ‘대한청년결사대’ 라고 정하였다. 총력을 다 하여 승리할 때까지 싸우기로 약속하고 각 중대는 본 위치로 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로 하였다. 부인회도 조직하여 부인회에서는 전투병들에게 식사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식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작전상 병력이 수시로 이동을 하다보니 밥을 해 놓고 밥을 먹지 못하고 이동하게 된다. 밥을 보고 먹지 못하고 굶고 싸우는 대원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나라를 위하여 하는 일이고 우리나라가 승리하기만 바랄뿐이다. 국민학교 어린아이들까지 인민군 놈들이 버리고 간 실탄 한발이라도 보면 주어다가 반장에게 주면 반장은 저 부대로 가져다준다.

## 비 오던 날 밤

매일 같이 계속되는 전투에 피곤하던 차에 오늘은 하느님이 아시고 피곤하니 편이 쉬라고 비를 주셨다. 상교동 독립가옥 엄홍섭 씨 집에 가서 하룻밤이라도 편히 쉬기로 하고 엄홍섭 씨 집에 가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하룻밤만 쉬도록 부탁을 하였다.

어서 들어와서 편히 쉬라고 하면서 방 3칸을 내주었다. 감사하다하고 방 3칸에 나누어서 자기로 하였다. 비가 와서 올 사람도 없을 테니 보초는 그만두고 자치 불침번이나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자라고 하였다. 잠이 들어 자고 있는데 “누구야? 우리는 국방군이다.”하는 소리에 놀라 일어나보니 벌써 대원들이 뒷문으로 도망친다. 나도 따라서 도망쳐서 뒷산에 올라가서 보니 대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박상선 대원이 보이지 않았다. 산에 빗물을 마셔가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날이 밝아지자 수색대원을 보내 집 부근을 수색한 결과 아무 이상 없고 엄홍섭 씨 집 방안에 두고 온 총 10정도 그대로 있었다. 불침번 하던 이용일에게 물으니 먼저 주인이 문을 열고 “큰일 났네. 인민군이야.”하자 인민군 놈들에게 “누구야? 우리는 대한민국 국방군이다.”하니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대로 도망을 쳤다. 엄홍섭 씨 집을 중앙에 두고 쌍방이 서로 도망친 것이다.

다음날 9시경 박상선 대원이 붙잡혀가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왔다. 박상선 대원의 말에 의하면 인민군 놈들이 엄홍섭이 자기네 집에다 국방군을 잠복시키고 자기들을 유인하였다면서 다음에 나와서 가족을 몰살시키고 말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엄홍섭 씨 말을 들으면 이웃집에 가서 놀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서 인민군놈들을 만났다고 했다. 비가 와서 행군을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잘 집을 안내하여 엄홍섭은 자기네 집에 우리들이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하였다. 집에 와서 문을 열고 보니 결사대원들이 있었다고 한다.

## 회식을 하던 날

국토방위를 위하여 불철주야 분골쇄신으로 매일 같이 분투하는 청년결사대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광주동 주민들이 돼지 한 마리를 몰고 오다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인민군놈을 만나 몰고 오던 돼지와 주민들까지 붙잡아 가니 큰일 났다고 연락이 왔다. 2,3중대가 출동하여 추결을 하니 놈들이 주민을 인질로 잡고 끌고 가니 함부로 사격도 못하고 생각다 못해 2중대장이 놈들에게 쫓아가서 “동무들 나는 군단정치보위부 정찰대원ियो. 동무들은 왜 민폐를 끼치고 인민들을 괴롭히고 있소? 속히 보내도록 하오”하고 말을 하니 사람과 돼지를 찾고 인민군놈을 사격을 가하여 전원 사살하였다. 핏 먹고 알 먹고 한 셈이다. 이것보고 일거양득이라고 한다. 찾아온 돼지를 붙잡고 하루 회식을 잘 한일이였다.

## 상교동 류형노집 사건

대대본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다. 상교동 류형노집에 인민장교 10명이 와서 저녁밥을 먹고 있으니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오라고 했다. 대대본부에서 홍인철 대장이 인민군 중좌 계급장을 달고 간부급으로 20명이 노응원 씨를 안내자로 가장하고 배낭에 다 부근 지도를 넣어서 류형노 집에 가서 “주인 아버지 있소?”하고 소리를 치니 류형노아버지가 나왔다. “주인아버이 우리 하룻밤 자고 가야하오. 방을 좀 주지요.” “저 방에 인민군이 있으니 못 잡니다.” “이 놈에 영감 반동이 아니요?”

방안에 있던 인민군들이 내다보니 들어와서 같이 자자고 한다. 방에 들어가 보니 상급자 대위였다. 홍인철 대장이 “우리가 데리고 온 안내자를 잘 감시하시오. 그리고 주인동무 저 돼지 잡지요.” “안 됩니다. 올 가을 아들 결혼식에 쓸 겁니다.” “이 반동동무 죽어야 아오? 잔소리 말고 빨리 잡아먹도록 하오. 그리고 안내원 지도를 내놓으시오. 창촌이 어디오?” “창촌이 아니고 창말이라고 합니다.” “또 궁뎅이란 동리는 어데요?” “궁뎅이 아니고 궁둥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

니다. 거기에는 국방군이 많이 있지요. 잘 살피면서 가야합니다.” 홍인철 대장이 인민군에게 말했다. “동무들은 정보를 알고 있소?” “잘 모릅니다.” “동무들 정신 좀 차리시오. 가다 적군을 만나면 싸워야 하니 무기수입부터 잘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오. 일단 빨리 무기 분해소지부터 하고 저 영감안내자를 절대 놓치면 안 되오.”

홍인철이 상급자이고 중좌과 대위니 꼼짝 못하고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무기를 꺼내서 분해소지를 하는 순간에 인민군 한 놈에게 우리 두 사람씩 달려들어 앞마당으로 끌고나와 총살을 하고 권총 4정, 기관총 5정, 칼빈총 4점, 실탄 400발, 수류탄 20발 등을 노획하여 대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저놈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으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동족상쟁이다. 원수에 38선 하루 빨리 무너져라.

### 신내동 3인의 귀순자

하남 2리 신내동에서 연락이 왔다. 인민군 3명이 귀순을 하겠다고 하니 와서 데리고 가라고 하여 대원 5명을 보내 무사히 데리고 와서 귀순동기를 조사하였다. 자기들은 강제의용군으로 끌려 들어와 싸우다 패전을 하고 북한으로 끌려오면서 생각을 하여보니 북한에 가 봐야 뻔한 사실, 전쟁준비하면서 농사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았다. 인민군 놈들 하는 말을 들어보니 고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에 귀순하여 군인에 입대하고 편히 살기로 결심하고 귀순을 하였으니 관대한 용서를 바란다고 귀순소감을 말하였다.

그 날부터 김종근 1중대에 입대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렬한 3용사로서 인민군 포로병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죽이겠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물으니 인민군대에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백 명을 죽여도 분이 안 풀린다고 하였다. 그 3명에 이름은 이용일, 김남중, 한사람은 현씨라고 하였다. 이용일은 활발하고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고 김남중은 차분한 성격이고 현씨라는 사람은 경상도 말을 하였다.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살아있으면 강원도 산골인 인제군 기린면 하

남리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김종근은 이 글 쓰면서 과거사를 후세에게 전한다.

### 와야동 대바우 사건

제 1중대가 하남리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데 급하다고 연락이 왔다. 지금 와야동 대바우 외딴 독립가옥으로 인민군 놈들이 들어가는 것만 봤지 나오는 것을 못 보았다고 하였다. 김종근 중대장이 2개 분대를 인솔하고 현지에 도착하여보니 놈들이 주인을 인질로 잡고 출입을 통제하였다. 놈들이 어느 방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사격도 못하고 집 뒷산에서 포위만 하고 나오기를 약 3시간동안 기다려도 안 나오니 답답할 뿐이다. 마침 주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오라고 손짓을 하여 놈들이 들어있는 방을 알아내었다. 김종근 중대장이 말했다. “수류탄으로 저놈들을 죽여야 한다.” 용감한 이용일 대원이 “중대장님은 안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수류탄으로 저놈들을 해치우겠습니다.” 할 수 없이 “그러면 조심하여 소기의 목적달성하라.” 이일을 무사히 책임완수하고 수색하니 인민군 5명, 내무서원 5명인데 소총 3정, 권총 2정, 수류탄 10발을 노획했다.

### 방동리 오류동전투

복상하는 인민군이 흥천군 내면 미산방면으로 오다가 미산리 김종철 중대에 발견되어 공격을 당하였다. 풍비박산이 된 놈들이 방태산으로 해서 기린면 방동리 오류동 방면으로 도주하였다는 정보를 듣고 제 1중대장 김종근은 중화기 중대장 김종금과 같이 방동리 오류동으로 출동하여 놈들의 복상하는 길목을 차단하고 잠복대기하고 있었다. 인민군 놈들이 오는 것을 목격하고 일제히 총 공격을 하여 적군 사살 45명, 소총 30정, 수류탄 20발, 실탄 500발을 노획하였고 아군 피해는 없었다.

오류동에서 약 1시간 후 대대본부로 귀대 도중 외딴 독립가옥에서 장례식에 상주들이 입던 상복을 입은 사람 20여명이 집에서 나와서



뒷산소 길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 집주인이 누구며 주인들이 어떻게 많으냐고 물어 보았더니 지방주민의 말이 그 집 주인은 피난을 가서 없고 그 집 할아버님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른 일이 있다고 하였다. 인민군들이 상복을 입고 상주로 위장을 하고 도주하는 것이 틀림 없었다. 추격전을 가하여 산을 넘어가는 놈들은 중화기 중대에서 박격포 사격을 하여 전원 사살하고 보니 인민군 놈들이 아니고 내무서원 놈이었다. 전시에 살기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으나 철통같은 경계망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결사대 손에 죽었다.

### 방태산 노루마당터 전투

기린면 소재지인 현리에 인민군 약 1개 중대 가량이 산재해 있으면서 주민들을 괴롭힌다는 주민의 제보를 듣고 놈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제 1중대는 방태산 백암산 지나 현리 조롱고개에서 잠복대기하고 2,3중대는 용포 창암산을 수색하면서 광대바위에서 신호를 올리면 1, 2, 3중대는 포위작전으로 현리를 총공격하고 5, 6중대하고 대대본부는 매화동고개에서 전면공격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아침 4시에 출동하여 주식은 주먹밥으로 각자 지참하고 행동을 개시하며 각 부대는 목적지로 출발하였다.

공격시간 정각 12시 공격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12시 30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도중에서 사고난 줄 알고 가던 길로 귀대도중 방태산 노루마당터에 이르자 전 대원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여 각자 지참한 주먹밥을 먹으려고 경계병을 배치하였다. 순간 잠복대기하고 있던 인민군 놈들이 불시에 총 사격을 가하여 왔다.

우리 부대는 풍전등화요, 사면초가였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튼바위를 가운데에 두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집중사격을 하였다. 결과는 인민군 놈들은 후퇴하고 아군은 승리를 하였으나 대원 한명이 전사되었다. 적 50명 사살과 총기 40정, 실탄 700발을 노획하였다.

대대본부에 귀대하여 보니 2, 3중대는 이동 중에 적을 발견하고 원대복귀 해 5, 6중대하고 다시 작전을 계획하여 매화동에서 1중대가

귀대하기를 대기하고 있었다.

방태산 노루마당터에서 총성소리가 들리자 우리 1중대하고 교전하는 줄 알고 매화동 마리고개에서 적군의 후방 총공격을 하게 되었다. 적군을 중간에 놓고 전면은 1중대가 담당하고 후방에서는 전부대가 총격을 하였으니 한 놈도 살아간 놈이 없다.

### 상남중대와 상남지서 습격사건

현리 대대본부에서 작전상 1중대를 하남에 배치시키고 하남리 중대본부에서 자고 아침 5시경 집에 와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연락병이 급히 달려와서 “중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광주동 방면으로 인민군 놈들 대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청방부대가 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잘 확인해 보시오.” “행동을 봐서 인민군이 틀림없습니다. 도로에서부터 별판으로 흩어져 전투태세를 하고 오는 것이 인민군이 분명합니다.” “큰일 났군. 빨리 비상을 걸어 갈미봉 방면으로 가도록 하라. 적군이 오기 전에 적군이 오고 있는 거리는 우리 중대 본부와 약 500m다.”

중대장 김종근이 중대본부에 가기 전에 벌써 인민군 놈들이 먼저 습격을 가하였다. 하는 수 없이 전 대원은 갈미봉 고지에서 전원 집합하고 작전 계획을 세웠다. 놈들의 후방을 공격하기 위하여 사평동 공동묘지를 지나 거지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놈들이 자동차,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갈 때 강 중간지점에 도착할 때 일제히 총 공격을 하기로 하였다. 급히 보고를 받은 현리 대대본부에서 전 병력이 매화동 배둔지에 도착과 동시에 1중대하고 총공격을 하여 놈들을 강 북판에 몰아 놓고 수중 작전으로 전원 몰살 하였다.

다음날 정보를 들으니 놈들이 02시경 남면 김부리로 해서 상남 심원섭 부대를 습격하고 연이어 상남지서까지 습격하여 무기와 서류 일체를 털어가는 도중에 하남리 용포강에서 우리부대에게 전멸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배를 탄 놈들은 강 북판에 다 몰아놓고 수중작전을 해 놓고 보니 한편 재미도 있었다.

### 북리 윤이덕 전투

결사대 본부를 기린초등학교에 임시 설치하고 있고 경찰은 홍천에서 가끔 출입을 하면서 정보만을 수집할 정도였다. 기린면 소재지에는 산중에서 피난을 하던 주민들이 다수 입주를 하고 있었다. 소재지에서 약 4km거리인 윤이덕 부락에 인민군 1개 중대가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즉시 작전을 세워 2, 3중대는 A고지 능선을 타고 윤이덕 뒷산 최고봉까지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5, 6중대가 B고지능선에서 도착신호를 올리면 합세하여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후방에서 공격을 하기로 하였다. 제 1중대는 A고지와 B고지 중간에 잠복하고 있다가 정면공격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총 공격시간을 12시 정각으로 하였는데 13시 10분 총 공격을 가하여 윤이덕부락에 있던 인민전체를 전멸시키고 윤이덕 뒷산 최고봉에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천지가 진동하도록 만세를 불렀다.

귀대 중 A고지 2중대가 담당했던 지점을 바라보니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약 100여명 정도 복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2, 3중대야?” 하니 “웁소”한다. 말소리가 함경도 사투리였다. 1중대장이 태극기를 총 끝에 매달고 흔드니 상대방 측에서는 백색기를 들고 신호를 하였다. 아니다. 적이다. 일단 자세를 낮추고 실탄 5발씩만 사격을 하라고 명령하고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니 아군은 간곳이 없고 인민군뿐이었다. 우리 1중대만으로 대항 할 수 없으니 작전상 후퇴를 하자 A, B고지에서 우리 중대를 가운데 두고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그러자 우리 중대는 혼비백산하여 진다리 방면으로 후퇴를 하여 집결장소에서 인원 점검을 하니 한명의 낙오자도 없었다.

죽을 변을 당하고 대대본부에 와보니 본부도 지방주민들 전부 상남 방면으로 피난을 시키고 한 사람도 없었다. 당황한 1중대장 김종근은 우리 1중대만 죽으라고 남기고 다 도망을 갔으니 작전을 세운 윤선병 작전참모를 붙잡아 총살하지 말고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자고 약속하였다. 전 대원을 인솔하고 양원이 고개를 넘어 현리

뒷산을 타고 박대감묘소에 이르자 대대장 홍인철이 작전참모 윤선병과 지서 주임경위 김군선이 보였다. 흥분한 나머지 작전참모 윤선병의 멱살을 잡는 순간 지서 주임과 대대장의 만류로 윤선병을 놓치고 말았다. 윤선병은 그 길로 도망을 가서 부산에 살고 있다.

대대장 홍인철 말에 의하면 A고지, B고지로 출동하던 중대가 적인 인민군 놈들에게 발견 되었다. 후퇴를 하면서 1중대는 완전히 포위 되었으니 전멸을 하였는지도 알 수 없으니 1중대를 구출할 생각은 말고 주민들을 빨리 후방으로 피난시키라고 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 하였다. 한 사람도 나코 없이 성과를 올렸으니 하남 2리에 가서 자체경비를 하라한다. 홍천군 방위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였으니 그렇게 알고 홍천군 방위군대가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도록 하라고 하였다.

#### 까치도 작전에 한몫 했다

우리부대 정보에 의하면 신남 방면으로 들어가는 패잔병이 인제에서 집결 재편성하여 기린면 우리 결사대를 목표로 재침공격을 한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다. 우리부대는 현리에서는 작전상 지형으로 보아 불리하여 부득이 하남리 현재 3군단 공병여단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으로 전부대가 이동을 하였다. 이 지점 역시 지형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다. 상남리 오미현(오미재고개)를 차단하게 되면 우리 병력이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더 이상 나갈 수도 없으니 하는 수 없이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정보원들이 계속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었다.

이동한지 5일이 되던 날 아침 5시 1중대 김종근이 숙소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대원 한 명이 왔다. “중대장님 실탄 2발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실탄을 어디에 쓰려고 하나?” “어머니가 젓유종으로 앓고 계시는데 까치가 약이 된다고 해서 까치를 잡으려고 그러합니다.” “그러면 잡든 못 잡든 2발 이상 사용하지 말라.” 박춘화 대원이 까치를 잡으려고 총을 들고 까치가 있는 쪽으로 가자 까치란 놈이 총을 들고 오는 사람을 피하여 날아갔다. 까치를 따라 덕고개 방면으

로 추격하자 덕고개에 잠복하고 있는 인민군 놈들이 박춘화 대원에게 총 사격을 하였다. 난데없이 총소리에 놀라 김종근 중대장이 총신호로 비상 걸어 주민들과 혼합되어 오미재고개에 도착하니 인민군 놈들과 오미재고개에서 만나게 되어 쌍방이 서로 싸우지 못하였다. 우리부대는 상남리로 가고 인민군 놈들은 상남리 배미산 방향으로 진격을 하자 우리부대는 상남리 장터에서 박격포로 배미산에 사격하자 인민군 놈들이 기관총 사격으로 대항을 하여 우리부대는 아홉짜리 고개를 넘어 홍천군 내촌면에서 곡리까지 후퇴를 하였다. 다음날 정보를 들으니 인민군 2개 소대가 남면 정자리로 해서 하남리 덕고개에 잠복대기하고 있다가 인민군 2중대는 남면 김부리로 해서 상남리 오미재고개에 도착하여 신호총으로 연락과 동시에 총공격을 하여 우리부대를 전멸시킬 계획이었는데 그 까치 한 마리 때문에 우리 결사대가 무사히 살아났다.

홍천군 내촌면 서곡리 한돈식 씨 집에다 1중대 본부를 설치하고 있는데 홍인철 대대장이 내촌 청방 중대장 김용하와 같이 와서 하는 말이 1중대가 제일 고생하고 수고를 했으니 편히 휴식취하고 소총 20점만 내촌 중대장에게 빌려주라고 한다. 김종근 중대장이 반대를 하면서 “대대장님 제 정신이요. 전쟁터에서 무기를 빌려주라고 하니 그러지 말고 김종근의 목을 빌려 달라고 하시오. 무기는 줄 수 없습니다.”

홍인철 대대장이 “미안합니다.”하고 가서 제 2중대장 이석조에게 부탁을 해서 소총 20정을 내촌 청방 중대장 김용하에게 빌려 주자 그 총을 무장을 하고 김용하 중대장이 내촌 중대 윤해장 방위 소위가 전사당하고 상남 중대 조남국 대원도 전사하고 이석조 중대에서 빌려간 소총 20정도 인민군에게 뺏기고 완전히 실패를 하였다. 인민군 놈들은 계속 추격전을 하여 내촌면 백우산고지에서 박격포 기관총사격을 하여 우리 1중대는 서곡리에서 내촌시내를 지나 내촌지서 앞을 지났다. 당시 내촌지서 주임 김만호 경사가 김종근 중대장을 보고 “후퇴하면 죽어.” 하면서 권총을 빼든다.

김종근하고는 경찰재직 당시 생사고락을 같이한 사이이다. 김종

근은 화가 나서 권총을 빼들고 “당신들이나 후퇴하지 마시오.” 약 500m도 못가 김난호 주임이 지서 전원들과 후퇴를 하자 김종근 중대장이 “너희들도 후퇴하니?” 하자 대답을 못하고 도망을 쳤다.

우리 결사대를 내촌면 물걸리, 동창리, 화상대, 답풍리, 철정다리까지 각 요지에 배치하여 방어진을 치고 있었다. 홍천군 방위군연대장 성락신 씨로부터 실탄을 약간 보급 받고 약 2주일 만에 원대복귀를 하였다.

홍인철 대대장이 총기 빌려준 관계로 약간의 문제가 생겨 홍인철 대대장은 향토방위대원을 인솔하고 내촌면 과석리를 경유하여 남면 김부리, 정자리, 하남리, 와야동, 사평동, 배둔지까지 용포강을 경계로 하고 방어진을 치고 전투태세를 갖추어 경계근무에 있었다. 최동섭, 김종근, 심원섭, 김남순 방위군 장교들은 최동섭 대대부관을 중심으로 청년방위군으로 편성하였다. 내촌 도관리, 서곡리, 와야리, 아홉싸리고개를 넘어 상남리를 지나 하남 2리 용포강을 경계로 매화동 마리고개 방태산고지 일부분에 방어진을 치고 임진태세를 갖추고 철통같은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민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금 홍천군방위군 연대에서 연락을 오늘 내일 간 보병 9사단 28연대가 전투를 하니 그리 알고 차고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우리는 인민군복장을 하고 있으니 지방 주민이 고개에서 중간 역할을 하기로 했다. 대기 중 청방대원 책임자를 오라고 해서 9사단 28연대장이 창정 대대장 김인문과 인사를 나누고 방태산고지에서 작전임무를 인계하였다. 28연대장님으로부터 당신들은 수고 했으니 오늘밤에는 부락에 내려가서 편히 휴식하라고 하였다. 사평동 허남수 씨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는데 28연대 장교 한 사람이 와서 오늘밤에 현리까지 진격을 해야 되는데 지리를 잘 아는 대원으로 10명만 보내달라고 한다. 김종근 중대장이 갈 사람 나와 보라하니 전 대원이 다 나와서 전원이 다 가겠다고 한다. 중대장 김종근이 전원 선착순 일렬로 모여 하고 1번에서 10번까지 보냈다.

그날 밤 허남수 씨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현리에 가서보니 기린 국민학교에 28연대본부를 두고 보병 제 9사단 28연대하고 우리 결사

단하고 합동작전이 시작되었다. 연대본부 작전과에서 김종근을 오라고 한다. 연락 받고 작전과에 갔더니 28연대장님이 당신이 우리군인 2개소를 인솔하고 결사대하고 하답을 진격하라고 한다. 김종근 말한다. “하답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운이덕에 인민군 2개 중대가 있고 서리 봉덕동에 인민군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답으로 들어가다 포위를 당하면 꼼짝 못하니 알고서야 갈 수 없습니다.” “군인이 죽는다고 해서 전쟁을 못합니까? 국군 2개소대장은 저 결사대장 지휘를 받도록 하고 만약에 불응하면 총살하여도 무방하다. 절대 명령 복종하라. 이상 끝.” “연대장님 만약에 경우 포위를 당하여도 우리대원들은 살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지형 잘 알고 해 가능하지만 군인들은 곤란합니다.” “김종근 당신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않아.”

그날 오후 5시경 국군 2개 소대를 인솔하고 하답으로 전진하여 소주버리 고개에서 보니 궁동에 집집마다 인민군 놈들이 가득하다. 소주버리 산능선을 타고 올라가서 궁동에 인민군 놈들이 있는 곳을 집중 사격을 하여 한바탕 교전하고 무사히 목적지인 하답 더디미 고개까지 도착하였다.

국군 2개 소대는 인제면 하추리 목적지로 보내고 더디미고개 방공호를 살펴보니 인민군 놈들이 있다가 2, 3일 전에 이동한 흔적이 있다. 방공호가 세 곳에 있어서 3개조로 나누어 방공호에 배치하고 조장들에게 우리가 온 것을 보았으니 틀림없이 오늘밤에 습격을 올 것이다.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다가 만약 습격을 해 오면 우리가 오던 길로 가면 저 놈들이 길을 차단하고 포위를 하고 올 것이다. 인제방면 산능선을 타고 나가다 보면 강변 쪽으로 계곡이 있으니 그 계곡에 가서 강변에 집결하도록 하고 다음 제 2집결 장소는 중담에서 흘러나오는 강 건너편 산모퉁이에 집결하기로 약속한다.

각자 원위치에서 근무 중 밤 1시경 놈들이 습격을 해 온다. 우리는 인제방면 산능선 타고 도망쳐서 제 1집결지에 도착, 전원 무사하다. 제 2집결로 와서 보니 우리인줄 알고 방공호를 포위하여 자기끼리 공방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저 놈들을 포위하고 총 공격을 하여

전멸 시켰다. 그리고 우리는 하담 이흥용 씨 집에 다 중대본부를 설치하고 있는데 하추리에 들어갔던 국군은 실패를 하고 소대장 2명, 하사관 3명만 살아왔다. 연대본부에 보고하니 2개 소대를 보내 다시 하추리 공격을 하였으나 또 패전 장교 2명, 사병 5명만이 살아왔다.

연대본부에 연락병을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 우리 결사대원을 보냈더니 급히 달려와서 “중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민학교에 있던 연대본부가 행방불명되고 가설과 통신병만 살아서 넘어오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김종근 중대장이 전원 집결하라고 비상을 건다. 갑자기 총소리가 난다. 불행하게도 배춘혁 중대장 연락병이 따발총 오발을 해서 전사하고 시체는 급히 단가를 만들어 하남리 광주동 자기네 집으로 송치시켰다. 전 대원을 인솔하고 서리 차순경 씨 집에 가니 오후 6시경이다. 저녁식사를 독촉해서 먹고 현리 앞산 창안 산능선 타고 나가는데 산세가 험하고 눈이 많이 와서 밤새도록 은골입구에 도착해보니 인민군 약 1개 중대 가량이 있다가 우리를 보더니 “뭐야?” 하면서 수화를 하자 “국방놈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무엇하고 있어?”하면서 소바소별판으로 구보를 하자 인민군놈들도 같이 용포 소내기재 외딴집에 도착하니 용포 배터에서 배를 보던 사람이 나를 보더니 “중대장님 인민군이 많은데 왜 왔소?”하자 인민군들이 눈치 채고 우리들을 복판에 두고 양쪽으로 갈라서 노려보고 있다. 김종근 대원들에게 나를 따라 오던지 각자 행동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도망쳐서 있다가 5분 후에 인민군 놈들이 포위하고 오는 것을 7명이 집중사격을 하여 죽이고 포위망을 피하면서 상남리가서 김종근 부모님을 만나보고 다시 28연대를 따라 내면방면으로 해서 울전리를 지나 내면 창촌에서 윤두령 넘어 평창군 도암면 미탄면, 정선군 북면 여량리에 집결하였다. 남면을 지나 정선군 소재지에서 하룻밤 새우고 동면 화암리로 이동하고 다음날 다시 정선군 소재지 뒷산 고지에 인민 1대대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2대대 8중대가 공격을 하였으나 적군에게 밀려 다시 2대대가 지원 공격을 하였다. 인민군 놈들은 최고봉고지에 있고 아군은 중간지점에서 지리상 불리하여 포부대 지원사격을 요청하였으나 오폭격을 하여 아군 수명이 전사하였다.



28연대장이 청정현장에 와서 상황을 살펴보더니 수색중대를 집합시키고 일렬로 세우더니 연대장이 직접 “너 나와. 너 나와.”하면서 10명을 2보 앞으로 세우더니 총은 앞에 놓으라고 하고 수류탄을 10발씩을 주고 연대장님이 담배를 한 가치씩 피워 주었다.

“수색대 너희들은 수류탄으로 저 고지 탈환하라.” 권총을 들더니 출발명령을 하여 10명 대원은 수류탄만 소지하고 출발하여 적군이 있는 고지를 향해 포복으로 올라갔다. 놈들이 보고 기관총 사격을 하여 못 올라가고 큰 돌 바위에 은신하고 약 10분가량 있다가 총소리도 안 들리고 사망 조용해서 인원을 점검하니 1명 행방불명되고 9명이 부대를 찾아 약 4기로 정도 가서 “연대장님에게 10명중 1명이 전사하고 9명만 살아왔습니다.” 정보장교가 보고를 하고 돌아 나오는데 전사했다고 보고한 대원이 도착하였다. 정보장교가 다시 연대장님에게 가서 “전사한 대원이 지금 왔습니다.” “전사한 놈이 오다니?” 권총을 들고 정보장교 뺨을 치면서 제대로 정확한 보고를 하라고 하였다.

동면 화암리에서 28연대 완전 포위되어 사면초가로 나갈 곳이 없어 수색중대를 집합시켰다. 우리 부대가 포위망을 뚫고 가야하니 수색중대는 전방능선을 차단하고 적군이 못 오도록 능선을 사수하고 있다가 우리연대가 자리를 잡고 연락을 하면 오라고 하였다. 우리 수색중대는 명령대로 산 고지에서 비와 눈을 맞아가면서 주야 2일이 경과하도록 연락도 없고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민간부락에 내려왔다. 먹을 것을 찾아 집 주인에게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한 즉 인민군들이 먹고 아군들이 먹고 해서 없으니 무엇이든지 찾아 먹을 것이 있으면 찾아 먹으라고 했다. 찾아보니 콩나물 콩이 있어서 부엌에 들어가 볶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인민군들이 완전 포위하고 따발총 사격을 하였다. 암호는 아군의 암호를 사용하나 적군이 틀림없었다. 포복을 해서 집 마당 도랑으로 들어가는데 비와 눈이 와 산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도랑으로 들어가서 뒷산방면으로 도망쳤다.

산봉우리를 넘어 한 부락에 들어가니 아군 2대대 7중대가 모여 있

고 복잡해서 약 500m 가량 가니 빈집이 있었다. 들어가 기진맥진 해방안에 누워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왔다. “누구냐?” “나야” 상남리 심원섭 중대장이다.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앞마당에서 소리친다.

“손들어!” 그 소리를 듣고 기운이 전혀 없어서 꼼짝 못하니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하라 하고 누워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보니 인민장교 놈이었다. 누워있는 우리 두 사람을 발로 툭툭 차면서 일어나 손들어 하면서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총을 압수하고 앞마당으로 끌려 나가 보니 우리 아군이 약 5~60명 가량 잡혀 와서 눈, 비를 맞고 앉아 있었다. 군인 한 사람에게 아군 배낭을 3개씩 지도록 하고 나도 배낭을 주면서 지라고 한다. 나는 못 진다. 산에서 오다가 굴러서 다리를 다쳐서 못 진다고 하니 그러면 담요 2장을 주면서 잘 보관 하라고 하더군요. 그 날 밤 끌려가는데 천지가 지옥같이 캄캄했다. 당장 도망갈 수는 있으나 놈들의 배치사항을 몰라 도망을 못하고 밤새도록 갔다. 지금 생각해보니 영월방면 같기도 하다. 날이 밝자 부락 뒷산 소나무 숲 속으로 끌고 가서 우리 낙오병을 모아 놓고 20명을 1개 분대로 편성시키고 온갖 수단방법으로 우리들을 교육시켰다. 우리를 보고 해방전사라고 하면서 앞으로 해방전사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준다면 희망을 요구하라고 한다. 하루 종일 한말 또 하고 반복을 하다가 밤이 되자 행군을 하는데 심원섭하고 나하고 같이 가다가 기회를 봐서 도망치기로 약속을 했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 팔을 탁 치든지 발로 차든지 하면 도망치자고 약속을 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심원섭 혼자 도망쳐서 국민학교 숙직실에 숨었다가 발각되었다. 끌려가다 들으니 북한에 가서 다시 재편성해서 다시 남침하겠다고 하면서 동무는 북한에 가서 장사를 하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소원대로 할 수 있다면서 감언이설로 유도작전을 하더군요. 나는 너희들 배창자까지 알고 있다. 실컷 떠들어라. 내 갈 길은 따로 있다.

다음날 밤 북진이다. 오늘밤에는 도망을 쳐야 산다고 결심하고 야간행군을 하는데 산을 넘어가게 되었다. 산길을 나가는데 앞사람하고 거리를 멀리 하기 위해서 일부로 넘어지면서 앉아서 뒤로 후진했다. “해방전사 동무 기운이 없소?”하면서 뒤에서 부추겨 준다. 남

의 속도 모르고, 그러나 나는 계속하여 앞서사람과 거리를 멀리하고 약 50m정도 되자 죽지 않으면 살기로 결심하고 옆 산 속으로 36계 줄행랑을 쳤다. “저놈 잡아라!” 사격은 못했다. 구사일생으로 도망쳐서 오다가 또 인민군 놈을 만나게 되어 다른 길로 도망을 해서 간곳이 평창군 대화면 소재지였다.

아침 4시경 대화면 소재지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한 집을 지나가다 들으니 방 안에서 환자 앓는 소리가 났다. “당신 왜 피난을 안 갔소?” “나는 인민군ियो. 환자요.” “해방전사요? 진짜 인민군ियो?” “인민군ियो.” 네놈에게라도 복수하려고 돌을 들고 앞마루에 들어서는데 마루 밑에 있던 개가 앙하고 나온 바람에 들마루에 돌을 던지고 나왔다.

산골 작은 외딴집에 가서 주인아주머니에게 부탁하여 아침 식사를 하고 아주머니 말을 들으니 밤에 이웃집에 사람 5명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내려오는 것은 못 봤다고 한다. 주인집 아이를 시켜 가보고 오라고 했더니 가보고와서 하는 말이 나를 가리키면서 똑같은 군복 차림이라고 한다. 직접 가서 본 즉 아군이 분명하여 자고 있는 걸 깨우니 반 눈 뜨고 꿈꿈하면서 일어나 앓는다. “나는 9사단 28연대 군인이다.” “우리도 28연대 군인ियो.” 손을 잡고 울었다. 그중에 선임자가 하사였다. 지방청년이 피신 차 와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피곤해서 잠 좀 자고 있을 테니 여기 있는 사람 외 다른 사람이 오거든 군인이고 민간인이고 타인을 막론하고 깨워 달라고 부탁하고 자고 있는데 저녁식사를 하라고 한다.

저녁식사를 하고 자고 있는데 밖에서 손을 들라고 소리친다. 잠을 깨서 보니 문 밖에서 총을 착용하고 소리친다. “손들어! 손들어!” “우리는 총도 없고 비무장이고 우리는 국군낙오병이다. 국군이면 들어오고 인민군이면 적대적이니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오.” “우리는 7사단ियो. 28연대 지원을 나와 지금 앞산고지에서 보니 불이 빛나서 왔소.” 편히 쉬라고 하면서 중사하고 하사하고 두 사람이 간 뒤 김종근이 같이 있는 하사보고 저 군인이 가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들 데려오라고 할 것이다. 만약에 군인들 와서 가

자고 하거든 하사 너는 갈수 있어도 우리 중대장님은 못 가신다 하라고 약속을 하고 있으니 김종근의 말대로 상사 1명과 하사 2명이 와서 소대장님 데려오라고 하니 잡시다 하자 같이 있던 하사가 나는 갈수 있지만 우리 중대장님은 못 가십니다. 그 말을 하자 데리러 온 상사가 경례를 한다. “잡혀 가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와서 피곤한데 내일 아침에 간다고 해” “알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7사단 군인이 대화별관에 가득하고 해서 아침 식사를 하고 7사단을 찾아가서 우리 9사단 있는 곳을 알고자 갔더니 당신들 무엇이냐 해서 9사단 28연대 장병인데 인민군 놈들의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하여 온다고 하니 고생했다면서 9사단 있는 곳은 안 알려주고 헌병대로 연행 있다.

산 고지에 숨어 있다가 아군이 보여서 급히 달려왔다고 하니까 아침식사를 하라고 밥을 준다. 몇 숟갈 먹은 체하다가 못 먹겠다고 하고 헌병대 송모 중사가 하는 말이 굶다가 갑자기 밥을 못 먹으니 피곤할 텐데 한잠 자고 일어난 다음에 식사를 하라고 한다. 사병 1명에게 너는 이 군인들이 자거든 1시간 후에 깨워서 식사를 하도록 책임지고 실행하라고 지시한다. 약 1시간 후에 식사를 한 다음에 낙오병이 있는 집결장소에 가니 낙오병은 낙오병대로 모여 있고 인민군 포로병은 따로 모여 있다. 식사를 포로병들은 먹다 남도록 주고 아군 낙오병들은 식사를 조금 주어 배가 고파서 고생을 하도록 하였다. 다음날부터 낙오병은 인민군 보급관이라고 하여 헌병들이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인민군 보급관놈 하면서 보이는 대로 발로 차고 막대기로 때리고 온갖 고통을 주었다. 연대본부 주변청소를 연 4일간 했다. “인민군 보급관 집합. 너희들 3군단 헌병대로 이동해.” 군용차 2대에 분승하고 영월마차에서 영월군 소재지 3군단 헌병대에 도착하였다.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차에서 하차하는 대로 역시 인민군 보급관 놈들 죽이지 않고 하면서 사단 헌병대보다 더 심하더군요. 당시 무기가 있으면 자살할 정도였다. 4일간 군단 부근일대를 청소를 시키고 집합하더니 끌고 가서 어느 창고에 다 몰아넣었다. 식사가 오면

주먹밥인데 감방장이 문 앞에서 주먹밥을 다시 뭉쳐서 감방장이라고 큰 덩어리를 먹고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솔방울 정도로 해서 준다. 그 고생하던 일을 생각하면 55년이 지났지만 어제 일같이 기억이 생생하다.

헌병대에 입장된 5일 만에 9사단 헌병이 와서 창문밖에 있는 걸 보고 부모님보다 더 반가웠다. 잠시 후 9사단 헌병이 왔다. “9사단 장병들 잠시만 기다리시오. 지금 신병인수를 하고 있으니” 그 소리를 들을 적에 기쁜 마음을 말할 수 없었다. 10분후에 9사단 헌병이 왔다. “우리사단 장병들은 나오시오.” 얼짜 좋다하고 영창문을 열어주어나가 군용차 2대에 나누어 타고 영월 떠나가는 도중 헌병중사가 애로사항을 말하라고 하더군요. 제일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 하니 3군단 관할을 지난 다음 식량을 가져왔으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한다.

경북 영주에 도착하여 밥을 해먹고 인솔자인 송중사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지금 가면 또 고생이니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가자고 약속한다. 송 중사가 영주 읍사무소에 들어가더니 쌀 2가마니를 가져 나와 읍사무소 직원이 부락 리 반장들을 불러 한 집에 우리들을 2명씩 배정하고 이 쌀로 떡을 만들어 주라고 한다. “이 군인들이 내일 최전방에 가서 나라를 위해 싸울 용사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리 반장님들 수고 좀 하여 주시오.” 영주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고 영주에서 삼척군 하장면 갈전리 도착 조금만 가면 고생이니 오늘도 여기에서 편히 자고 내일 오후에 부대로 가면 됩니다. 도망가지 말고 잘 있다가 귀대합시다.

다음날 오후 5시경 갈전리에서 출발하여 정선군 임계면 산림보호구사무소에 차를 대고 하차하라고 하여 하차하여보니 낙오자수용소라는 간판이 보인다. 수용소로 들어가려 하는데 뒤에서 “중대장님!” 하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김중학 결사대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연락병이다. “중대장님 고생하였습니다. 오후에 중대장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잘 보관하고 계시다 수용소에서 조사할 때 조사관 무기는 어쨌든 사용 못하도록 해서 버리고 방어틀만 가져 왔다면 됩니다.” 나에게 방어틀을 건네주었다.

보관하고 있는데 다음 아침 9시경 17번하고 불러서 조사실에 들어갔다. 정검이라는 마크를 단 조사관이 있었다. “이 새끼 낫짝 값도 못 해! 누가 잘못해서 낙오를 했어?” “지휘관이 관리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못 하였습니다. 무기는 놈들이 사용 못하도록 해서 버리고 방어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거 제시해.” 소지하고 있던 방어를 내 놓으니 이놈 낫짝 값을 했다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조사는 하루 2회 오전, 오후 조사를 하는데 조사실에서 ‘아이구. 아이구’ 하는 소리, 때리는 소리 지금 귀에 쟁쟁합니다.

약 2주일간 있다가 강릉으로 이동하여 역시 창고 같은데 수용소라고 하여 수용소 생활을 하는 동안 수용소 안에 낙오병들을 30명 1개 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따로 모여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김종근은 현역군인이 아니라고 해서 학도병하고 1개 반을 편성해 있는 동안 특무대원이 낙오자로 가정하고 들어와 낙오자들에게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인민군한테 있을 걸 하면서 고생이 심하다고 감언이설로 낙오병들의 불안감을 주면서 유도작전으로 놈들의 지령이라도 받고 왔냐하고 정보를 수집 하였다. 말려들면 특무대원은 갑자기 “누구 나와!” 해서 불러 나가면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한차례 매를 맞고 오는 사람도 있었다.

김종근 나는 미리 알고 우리 반 학도병을 모아놓고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이 와서 수용소 내의 불평불만을 하던가 인민군에 대한 말을 하거든 무조건 들고 쳐라. 그 사람들이 특무대원이다. 하고 주의하라고 시키고 며칠 후에 밖에서 들으니 우리 반에서 “죽어, 죽어”하는 소리가 들려 들어가 보니 보지 않던 몸을 막 들고 차니 그놈이 경적을 꺼내 들고 호루라기를 불어 경비하던 헌병이 들어와서 데리고 갔다. 약 10일 후에 사상이 확고부동하다고 인정된 사람만 차출해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른 반에서는 3, 4명 정도이고 우리 반에는 사상이 확고부동하다고 인정되어 전원 재판에서 무죄 석방되었다. 그 날짜로 28연대에 와서 연대장님을 만나고 고향으로 가게 하여 달라고 사정을 하니 현역으로 임관해서 같이 군 생활하자고 하였으나 일단 고향집 가서 부모님을 만나보고 오겠다고 사정해서 같이 갔던 대원을

데리고 기린면 하남리 집에 왔다. 부모님과 가족들도 경북 봉화군 내 성면에서 피난생활을 하시다 내가 집에 가는 날 같이 가족상봉을 하였다. 우리 집은 폭격에 타서 없어지고 당장 살집이 없으니 후방으로 피난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집에서 죽지 못해 겨우 살아왔다.

그해 4월경 3군단이 현리에서 하루종일 비행기 보급을 받고 다음 아침 4시경 인민군과 중공군이 남면 김부리로 해서 상남리 오미지고 개에 침입하였다. 고개 헌병초소에서 헌병 목 자르고 하는 바람에 전날 비행기로 보급 받은 군수품 전체를 버리고 방탄산으로 해서 내면, 창촌, 오대산 방향으로 후퇴하고 현리에서부터 하남리까지 군용차량과 군수전체를 비행기로 폭격을 하여 소각시켰다.

김종근은 방위대원 10명과 방탄산 미산리 내면 창촌에서 평창군 하진부를 지나자 HID를 만나 약 5일 있다가 강릉으로 이동하였다. 국도상에서 3사단 18연대 헌병 소대장 만나 백차를 타고 원주에 갔다가 양양군 서면 상평리 헌병 소대에서 보조근무를 하다 동년 7월경 헌병소대장님에게 부탁을 하여 출장증명서를 해 가지고 기린면 하남리 집에 와서 보니 피난 갔던 주민들과 경찰관 5명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데 패전병과 빨치산 놈들이 밤이 되면 양민들을 괴롭히고 식량을 훔쳐갔다. 경찰을 도와주기 위해 의용경찰에 모집되어 경찰임무수행에 보조역할 하였다. 나는 하남 2리 사평동에 위치한 파견대에서 근무 중 12월 하남 1리와 야동에 어제 밤에 빨치산 놈이 출현하다 갔다는 연락이 와서 의경 10명과 현지에 도착하였다. 미 10군단 경비대대 소속 882부대가 와서 있기 때문에 도로 파견대에 오니 매화동에도 어제 밤에 왔다갔다 하는 연락이 왔다. 김종근, 이상균, 김인선, 김철배, 박운학, 손정상, 손자현, 이억만, 박상선이상 10명이 방탄산을 넘어 방동리 오류동 산 안막장까지 놈들 지나간 발자국을 따라 추격을 하였다. 맥장에 가서 발자국도 없고 오리무중이다. 눈이 와서 천지분간 할 수 없는데 하늘로 날아간 것도 아니고 도대체 알 길이 없다. 하여간 이 부근에 있을테니 2명씩 A, B고지에 올라가서 사망을 경계하고 다음 5명은 서로 등을 맞대고 역시 주변을 경계하고 김종근도 주변을 수색한다.

수색중 산비탈에 일직선으로 굴러 내린 흔적을 발견하고 추적하니 5m전방 지하 눈 속에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5명 대원을 손짓하여 오라고 저기 아지트가 있으니 실탄 5발씩만 사격하자고 했다. 사격을 하니 그놈들이 김일성 만세를 부르며 우리가 이 굴속에 몇 백 명이 있는지 알고 있냐면서 온갖 방법을 쓰는데 해는 서산에 지고 시작을 해놓고 그냥 갈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다. 수류탄만 있으면 문제 없는데 김종근 꺾속말로 박상선에게 말한다. “2알씩 사격을 하고 저놈들이 들을 정도로 실탄이 없다 해라.” 실탄이 없다고 하니 그 소리를 듣고 3명이 굴에서 나오는 걸 사살하니 더 이상 안 나오고 끝까지 해보자고 소리만 친다.

김종근은 대원에게 나오는 굴을 잘 보라하고 아지트 뒤로 돌아가서 죽은 놈에서 소총 3정과 수류탄 6발을 들고 와서 소총을 대원에게 건네주었다. 수류탄만 들고 가서 아지트에 내던지니 아지트가 폭발되어 돌아 나오는데 아지트에서 약 5m지점에서 수류탄을 든 손목이 보인다. 김종근은 옆으로 피하면서 재빨리 수류탄을 던져 그 아지트도 폭발시켰다.

날이 어두워서 확인을 못하고 기린지서 주임 조남산에게 보고하니 조남산 인제 경찰서로 보고하여 다음날 인제 경찰서장 각 주임 기동대, 우리 의경 등 100여명이 현장에 가서 수색확인 결과 인민군 빨치산 남자 장교 7명, 여자장교 1명, 사병 8명, 계 16명 사살, 노획품 소총 10정, 실탄 88발, 수류탄 24발, 옥수수, 콩 하고 혼합해 볶은 것 10가마, 백미 2가마, 맷돌, 절구 배낭 등 다수 노획하고 사병 1명 생포하여 강원도 경찰국으로 후송하였다.

약 10여일 후 하남리 파견대에 인제경찰서장 표창장과 상금 당시 구화 10만원 수령하여 당시 참전한 의경 10명이 하루 저녁 회식을 하니 딱 맞더군요. 서기 1952년 12월 19일자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기린면 청년단부로 표창과 상금 일백만원 수령한바 있습니다.

6.25전쟁에 기린 결사대가 전국에서 제일이고 다음엔 춘천학도호국단이 다음이라고 하였다.

김종근은 다시 경찰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1952년 12월 30일자로



강원도경찰국보안과 기동대 제 216부대 2중대 본부발령을 받고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에서부터 북면, 사북, 만항탄광 경비근무, 구절리, 임계, 락천리, 용산리, 골지리, 삼척군 하장면 갈전리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1953년 9월 20일자로 인제경찰서 본서 근무를 발령받았다.

근무 중 제주도에서 양구까지 와서 남파간첩과 접선하기 위하여 미리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인제경찰서 부근을 배회한 사람이 있었다. 각 기관장 집에서만 밥을 얻어먹으며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는데 거지행색을 하고 있었다. 7월인데 머리는 장발이고 상의는 안 입고 하의 무명바지, 신발도 안신고 맨발이다. 신체는 건강한 늙은이데 보기에 수상하여 붙잡아 사찰주인님에게 데리고 갔다. “수상하니 조사 좀 해보시오” 하고 나와서 약 2시간 후에 사찰주임에게 가서 물어보니 “이 사람이 거지인데 무얼 그래”

2일 만에 다시 붙잡아 사찰계에 데리고 갔다. “거지가 아니고 간첩입니다. 다시 잘 알아보시오.” 하였더니 전기고문을 하다가 죽었다고 한다. 민사처병원에 가서 병원장이 진찰한 결과 죽지 않고 멀쩡한 늙은이라고 한다. 유치장에 넣고 김종근 혼자 멀리서 숨어서 보니 죽은 체 하던 늙이 머리를 들고 사방을 살펴보더니 다시 죽은 척하고 누워서 있다. 그것을 보고 바로 사찰주임에게 보고하니 사찰 주임이 강원도 경찰국에 보고 하였다.

다음날 경찰국 사찰과에서 경위 1명, 경사 2명이 와서 주야 2일 만에 자백을 받았다. 말하기 싫으니 필기도구를 달라고 하여 필기도구를 갖다 주니 양면에 10장에 자술서를 쓰면서 전직경찰인데 양구 문등에서 접선하게 되어 미리 와서 정보를 수집하여 가려고 하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검거되었다고 자술서를 썼다. 그날 경찰국으로 압송 하였다. 그래서 복상하는 간첩도 잡아보고 기린면 방태산에 아지트를 두고 활동하는 빨치산 놈들도 소탕하였다. 그 후로는 빨치산 소리도 없어지고 지방 주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었다.

## 명예 회복을 위하여

기린면 대한청년결사 대원들은 자진하여 백척간두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총궐기하였다. 죽음을 무릎 쓰고 피를 흘리면서 내 고장을 사수하기 위해 꽃다운 청년 83명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렇다 할 명예회복을 해 주지 않으면서 광주 민주화 유공자에게만 국가유공자의 대우를 해 주고 유공자 수당까지 주면서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재직당시 수차례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냈는데 회신조차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인제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두 번이나 하고 기린면 하남리 덕고개에 있는 충훈비도 보신 바가 있어 어느 대통령보다도 인제군 내용을 잘 아신다. 마지막으로 2000년 2월 16일자 김대중 대통령 각하에게 결사대원들이 싸운 사실 내용을 진정서에 올렸더니 회신이 왔다. 보훈처로 이첩되어 보훈처에서 회신과 동시 국방부 인사관리과 대위 정재원에게서 인후보증 참전사실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라고 서류양식을 동봉하여 2000년 3월 13일자로 보내주었다. 즉시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1차로 18명을 선출하여 참전용사증서를 받고 수시로 제출하여 현재까지 6.25 참전 유공자증서를 취득한 회원 67명, 인제 관내 거주자 40명, 군외 거주자 27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각하 감사합니다. 내내 만수무강 하옵소서.

오늘의 시점에서 결사대의 활동은 6.25를 겪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로까지 피 흘린 이 고장 선인들의 유혼으로 남게 해 놓는다. 다시는 6.25와 같은 역사의 전철를 밟지 않기 위해 우리세대는 후대에 물려줄 가치로운 역사를 창조하여야 한다. 더욱이 승공 통일의 이념에 투철해야 할 자세의 확립이 기대된다. 이 고장의 수호를 위해 산화한 선령들의 위령비 건립에 기린면 향우회 변환기 외 11명이 사재를 털어 1981년 6월 26일자로 하남 2리 덕고개에 건립하였다. 산화한 녀들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6월 6일 현충일이면 상남면 사무소 주관으로 위령제를 지내고 영세불멸 그들의 위업을 추모하고 있다. 본지 주필인 당시 중대장 김종근은 참전대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충훈비 건

립됨으로서 산화한 녀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뜻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의 글을 남겼다.

유구한 역사적 전통에 서려있는 설악의 정기로 태어난 젊은이들은 저마다 부푼 꿈을 안고 자랐다. 1950년 북괴 남침으로 차디찬 학살과 만행으로 절망에 시달렸던 한청결사대원 250명은 상하남지구 고(故) 홍인철, 진동지구 김남철, 상남리 심원섭, 현리 최동섭 대장을 비롯한 반공청년들의 6.25당시와 그후 수차 출몰한 유격대 빨치산 격별이 남달리 솟구쳐 오르는 분노와 함께 이 고장의 수호를 위해 총궐기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 수천 명을 무찌르고 산화한 83명의 녀를 영세추모하기 위하여 유서 깊은 갈미봉 기슭에 기린중고등학교 제 2회 졸업생 12명 향우회원들의 뜻을 모아 나라 위한 명령들을 여기 비돌에 새겨 고이 봉안하였다.

아 ~ 그지없이 슬프도다. 이제 그대들이 뿌리박아 놓은 거룩한 공훈은 송이송이 꽃이 되어 천만 대 후손에 빛을 전하리오. 명령들이여 날로 살찌어 뻗어 가는 향토와 함께 번영의 복지 향진을 굳게 다잡하니 편히 영면하옵소서.

## 당시 기린면 청년 결사대 부대편성표

대 대 장 : 홍인철	부 관 : 최동섭
인 사 행 정 : 박갑천	김연배
정 보 : 이종민	서리박
작 전 : 김남순	윤선명
보 급 : 지영환	김용운
제1중대장 : 김종근	부 관 : 박치만
제2중대장 : 이석조	부 관 : 홍성봉
제3중대장 : 변영희	부 관 : 이영학
중화기중대장 : 김종금	부 관 : 남상협
상 남 중 대 : 심원섭	부 관 : 박관시
미 산 중 대 : 김종철	부 관 : 신상집
진 동 중 대 : 김남철	부 관 : 박경래
감 찰 : 홍순표	한중열

참전 총인원 250명에서 전사자 83명, 하남 2리 덕고개 충혼비 돌에 안치하고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 상남면 사무소에서 위령제를 올리고 있다.

\_군가\_ 결사대가

역사 깊은 백두산을 북쪽에 두고  
 군사국에 자손이다. 우리에게 용사  
 화랑도 요망하는 대한에 천년  
 태극기 높이 들어 총칼을 미고  
 당당한 대한청년결사용사

## 참전유공자 명단

### 상남면

1. 박운학 2. 배찬혁 3. 한은하(사망) 4. 현순종 5. 최돈문 6. 엄상섭 7. 박운일 8. 이의재

### 기린면

1. 강환성 2. 박원길 3. 최명로 4. 이경준 5. 용석주(사망) 6. 전병하 7. 엄준수 8. 김종훈 9. 조성구

### 인제읍

1. 조병수 2. 변영원 3. 이용식(사망) 4. 박수환 5. 강환용 6. 허남수 7. 김록수

### 북면

1. 홍성봉 2. 김종근 3. 조영화 4. 손봉수 5. 김권호 6. 서암석 7. 이인호 8. 최선옥 9. 광용팔

### 서화면

1. 이기용 2. 장순규 3. 최석준 4. 장광열 5. 손영창 6. 신경묵 7. 최경선

### 인제군외

1. 최동섭(사망) 2. 남상협 3. 송관훈 4. 김동준 5. 고재호 6. 김종훈 7. 박동식 8. 권영석 9. 문재영 10. 박경재(사망) 11. 김인선 12. 박상선 13. 박성선 14. 이종열 15. 윤성병 16. 정선훈 17. 김은빈 18. 유형노 19. 김창기 20. 김우섭 21. 엄규환





역은이

이학주

성균관대학교 문학박사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장

## 38선의 기억

인쇄 2014년 12월 20일

발행 2014년 12월 31일

펴낸이 남덕우

역은이 이학주

기획인 백창현

펴낸곳 인제문화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5  
(033)461\_6678/팩스(033)461\_0220

편집·인쇄 도서출판 산책

※ 이 책은 군비보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